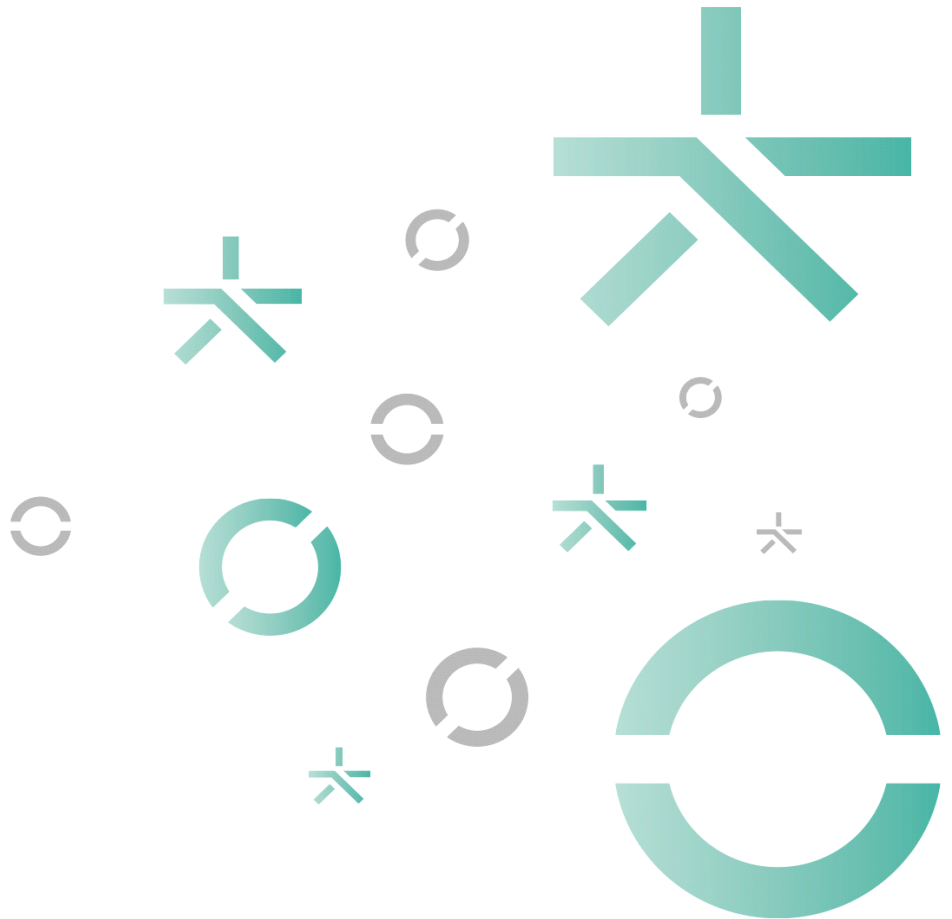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가능성 방향 연구

이용갑·이선정



연구책임

이용갑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

이선정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2009년부터 기업의 후원금과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지탱해주는 한 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부금 후원이며, 또 하나의 축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주거 관련 기업의 전문인력에 의한 재능나눔 및 집수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재능나눔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사업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되면서 2020년부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재원이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으로만 충당되고 있음.
 - 둘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지원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셋째, 2021년 1월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광역시로부터 광역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자로 지정받으면서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고, 이 센터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자로서 실시하게 됨.

- 이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관협력 사회복지사업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결합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활동'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상자 가구의 만족도 분석,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단체 관계자 및 전문기술의 재능나눔을 실시하는 단체의 의견수렴, 센터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방향을 찾고자 함.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문헌분석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전환,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2009~2022년 사업 결과, 민간기업 후원금 기부 현황 및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 현황 분석
- 사업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2009~2022년 부분·전부수리 완료가구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후원금 기부 민간기업·단체 및 재능나눔 전문인력단체 대상 서면 설문조사
 -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 관계자 대상 CSR/ESG 차원에서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정도 및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확인
 - 재능나눔을 한 전문인력 단체 대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정도 및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확인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 분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논의

2.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ESG

1)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종의 집수리 사업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전문인력의 재능기부에 의한 자원봉사 및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한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위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10년대 후반부터 몇몇 연구자들은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지자체가 기획하고 동원하는 소위, ‘동원성·일회성 자원봉사’에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 최상미 외(2017)는 세대·환경의 변화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자원봉사는 감소하는 반면에, 정기적인 봉사과 전문재능을 가진 봉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원봉사에서 시민참여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분석함.
 - 유사한 맥락에서 이명신(2018)도 생활양식, 문화, 사회,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와 욕구 또한 변화하면서 자원봉사도 시대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함.
 -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실증분석을 한 최준규 외(2022)는 2010년대 이후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등록률은 증가하였으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진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변화 때문에 자원봉사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능기부 자원봉사, 또는 전문자원봉사는 지자체 및 전국에 산재한 광역·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음.
 - 최준규 외(2022)는 전문봉사활동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전문봉사활동을 ①‘재능’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②‘전문가(직업분류 및 전문지식·기술 활용)’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 ③‘경력’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④‘선경험자의 재능기부’, ⑤‘전문단체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로 구분함.
- 최상명 외(2012)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중 전문봉사활동을 수행한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전문가 개인’과 ‘전문단체’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 이금룡 외(2018)는 인구고령화시대에 필요할 수 있는 노인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인 ‘보건복지부 노인 재능나눔 사업’을 분석하여 전문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함.

2)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두 축 중 하나인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은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동참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①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②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의 ESG 경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첫째, 관점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책임이 주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까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기업활동, 예를 들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위험 관리 차원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임.
 -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차원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헌 활동임. 그러나 ‘기업의 ESG 경영’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3가지 비(非)재무적 요소 중 하나인 사회(S), 즉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라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ESG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실현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입법 안(案)과 함께, 주식거래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나 ESG 경영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 후원 및 재능나눔과 연계되는 법적, 행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음.
 - 고경환 외(2022)는 지난 2020년 초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부금의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의 90% 이상이 기업(법인)의 기부금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함. 또한, ESG 경영전략의 등장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본래 미션인 이익창출·수익확대와 사회적 기대를 연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요약 표 1] 2009~2022년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전부 수리	부분 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클린 방역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지원 (가전제품)	단열 지원	골목길 (벽화) (단위: 지역)
2009	150		148					2		
2010	521		425					96		
2011	780		637					143		
2012	646		518					128		
2013	611		427					184		
2014	1,250	11	454	509				276		
2015	1,297	31	500	540				216		10
2016	890	15	505	260					97	13
2017	1,125	13	508	502					90	12
2018	1,024	8	506	505						5
2019	733	12	407	302						12
2020	1,512	15	285	302	797	103				10
2021	1,750	12	301	302	1,035	100				
2022	2,909	10	303	317	2,204	50	25			
총계	15,198	127	5,924	3,539	4,036	253	25	1,045	187	6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연도별 사업의 완료가구 규모는 2009년 150가구에서 2015년 1,297가구로 증가한 후, 2019년 733가구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2020년부터 완료가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총 2,909가구임.
- 2009~2022년 사업결과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면, 사업 완료가구가 가장 많은 세부 사업은 ‘부분수리’(5,924가구)이며, 그다음으로 ‘클린방역’(4,036가구), ‘소규모 생활수선’(3,539가구), ‘물품지원’(1,045가구) 등임.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노후주거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주택 리모델링과 내부 전문 수리 등을 수행하는 주택 ‘전부 수리’ 완료 규모는 127가구임.
 - 홀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계층 등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주주택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부분 수리’ 사업의 완료 규모는 5,924가구임.
 - 홀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형광등·콘센트·스위치·각종 수전 교체 등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 규모는 3,539가구임.
 - 위생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클린방역’ 완료 규모는 4,036가구임.
 - 여름철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관에 방충망을 제작·설치해주는 ‘현관 방충망 설치’ 완료 규모는 253가구임.
 - 소외계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수매트를 지원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 규모는 25가구임.
 -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전제품이 낡은 가구에 가전제품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물품지원’ 완료 규모는 1,045가구임.
 -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구를 만능수리공이 방문하여 동절기 대비 단열필름 또는 비닐 등의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단열지원’ 완료 규모는 187가구임.

- 노후되거나 위험한 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을 조성하는 ‘골목길(벽화) 사업’은 6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공을 완료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전체의 완료가구를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할 경우, 완료가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전체 완료가구의 17.6%인 2,676가구가 대상이 된 서구임.
 - 그다음으로는 15.0%인 2,278가구가 대상인 된 계양구, 11.3%인 1,719가구의 남동구, 부평구(1,663가구), 동구(1,659가구) 순으로 완료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은 전체의 3.7%인 558가구, 옹진군은 전체의 3.4%인 524가구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 가구였음.

[요약 표 2] 군·구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09	150	18	38	6	3	12	1	1	38	3	30
2010	521	104	88	51	51	58	41	43	69	7	9
2011	780	80	73	129	173	79	66	63	93	20	4
2012	646	53	56	75	83	52	43	43	37	13	191
2013	611	77	69	82	77	112	49	78	63	4	
2014	1,250	116	56	157	162	165	189	224	177	4	
2015	1,297	105	132	162	119	196	198	182	180	18	5
2016	890	117	96	115	98	81	126	139	102	10	6
2017	1,125	107	125	227	112	143	114	146	145		6
2018	1,024	84	101	104	131	162	83	163	177	19	
2019	733	70	56	101	71	79	88	157	96	15	
2020	1,512	73	205	93	124	220	172	259	165	81	120
2021	1,750	114	335	83	104	163	238	351	196	132	34
2022	2,909	88	229	143	79	197	255	429	1,138	232	119
총계	15,198	1,206	1,659	1,528	1,387	1,719	1,663	2,278	2,676	558	524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의 대상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클린방역’ 및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대상가구를 제외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 11,137가구 중 37.1%인 4,129가구인 독거노인(1인 가구 노인, 홀몸 노인)이 가장 많은 유형이며, 그다음으로는 25.9%인 기초생활수급자 2,884가구, 12.3%인 장애인 1,735가구, 12.1%인 차상위·저소득 1,348가구 등임.

[요약 표 3] 대상유형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골목길 (벽화) (단위: 지역)	기타
2009	150	121	9		9	11		
2010	521	122	82	42	185	90		
2011	780	199	146	102	253	80		
2012	646	178	100	42	253	73		
2013	611	215	140	81	139	36		
2014	1,250	401	228	146	374	101		
2015	1,297	378	118	153	490	148	10	
2016	890	394	158	50	198	77	13	
2017	1,125	406	239	83	294	91	12	
2018	1,024	406	200	76	241	96	5	
2019	733	309	96	37	173	106	12	
2020	715	336	68	47	103	143	10	8
2021	715	357	75	43	75	157		8
2022	680	307	76	55	97	139	0	6
총계	11,137	4,129	1,735	957	2,884	1,348	62	2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정 현황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재원은 2013년 수입에 포함된 ‘2012 국정과제 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제외하면 ①첫째, 인천광역시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 보조금’(보조금), ②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금 형식으로 제공되는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기탁금)’, ③셋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배분하는 ‘복권기금’임.
- 전체 수입은 2009년 2,950만 원에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및 복권기금의 증가로 2015년 10.9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이 두 종류 재원의 규모가 감소하고, 지원이 종료됨. 2018년 이후에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이 주요 재원이 되면서 수입이 계속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약 3.9억 원 수준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11년 37.3%, 2019년 83.8%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90% 이상이었음.

[요약 표 4]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

연도	수입	지출	예산집행률	비고
2009	29,500,000	29,092,890	98.6	시예산: 2천9백5십만 원
2010	160,000,000	160,000,000	100.0	기탁금: 1억6천만 원
2011	545,000,000	203,472,000	37.3	기탁금: 5억4천5백만 원
2012	456,000,000	450,604,420	98.8	기탁금: 4억5천6백만 원
2013	360,000,000	359,435,320	99.8	기탁금: 2억6천만 원 (2012국정평가우수특별교부세: 1억 원)
2014	549,000,000	548,461,090	99.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1천9백만 원
2015	1,090,000,000	1,082,543,060	99.3	복권기금: 10억 원; 기탁금: 9천만 원
2016	730,000,000	671,256,960	91.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2억 원
2017	600,000,000	599,921,890	99.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7천만 원
2018	600,000,000	593,728,600	98.9	시예산: 5억3천만 원; 기탁금: 7천만 원
2019	640,000,000	536,745,010	83.8	시예산: 5억3천만 원; 기탁금: 1억1천만 원
2020	435,000,000	434,232,890	99.8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5천5백만 원
2021	393,000,000	390,169,160	99.3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1천3백만 원
2022	393,000,000	392,176,000	99.8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1천3백만 원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출현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누적 지출은 같은 기간 수입 총액인 69억 8,050만 원의 92.4%인 약 64억 5,183만 원임.
 - 지출 규모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면 ‘전부수리’에는 총지출액의 8.2%인 약 5.3억 원, ‘부분수리’에는 70.3%인 약 45억 3,498만 원, ‘소규모 생활수선’에 4.9%인 약 3.2억 원, ‘물품지원’에 6.4%인 약 4.2억 원, ‘시원한 여름나기’와 ‘따뜻한 겨울나기’와 같은 하절기·동절기 지원에는 0.4%인 약 2,897만 원,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하였던 ‘클린방역’에는 0.6%인 약 4,000만 원이 지출됨.
 - 이에 따라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전부수리’와 ‘부분수리’에 각각 총지출액의 8.2%와 70.3%인 총 50억 6,467만 원(78.5%)을 지출함으로써 원래 목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관협력 사회복지사업’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결합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민간기업·단체 후원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분석

1) 민간기업·단체의 후원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형식으로 후원한 민간기업 및 단체는 41개임.
 - GS건설(주), 대림산업 등과 같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인천불교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주안복지재단, 부평감리교회 등과 같은 다양한 단체들도 후원에 동참함.
- 2009년부터 실제 기부금이 후원된 2019년까지 민간기업 및 단체의 지정기탁금 총액은 약 17억 5,609만 원임.
 - 지정기탁금 후원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1년으로 12개 기업이 약 5억 4,500만 원을 후원함.
 - 2017년부터는 2개 기업의 지정기탁금 후원만 이루어졌으며, 2020년부터는 이 2개 기업의 후원도 중단된 상황임.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기탁금을 후원한 41개 기업 및 단체 중 가장 많은 횟수의 후원을 한 기업은 (주)선광으로, 총 9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의 지정기탁금을 후원함.
 - (주)스카이72는 6회, (주)이건산업(창호) 및 (주)힐라선은 4회에 걸쳐 지정기탁금을 후원하였으며, (주)유승종합건설, 대한제당(주),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인천지역본부)는 3회에 걸쳐 후원함.
 - 반면에, 기부금을 후원한 민간기업과 단체의 절반 이상인 25개 민간기업 및 단체는 1회만 기부금을 후원하였음.

2)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수와 전문인력 재능나눔 자원봉사자의 실인원이 아닌, 연인원(사업 참여자)을 기준으로, 복수로 산정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재능나눔 봉사자 수를 추정하면 약 3.1만 명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는 89개 기업 및 단체가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기업은 56개, 봉사단체는 14개, 기타 단체는 11개, 비영리단체는 7개, 종교단체는 1개임.
 - 기업/단체별 재능나눔 봉사 횟수는 기업인 ‘오성인테리어’가 16회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 봉사단체 ‘나눔회’가 15회, 기업인 ‘진주인테리어’가 14회, 비영리단체인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가 12회, 기타인 ‘가좌3동 새마을협의회’가 11회임.
- 기업 및 단체가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한 연도 및 참여사업의 경우 벨전자, 보호관찰소, 서구자원봉사센터, 종합철물,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의 교수와 학생 등을 제외하고,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과 단체는 ‘전부수리’, ‘부분수리’ 사업에 참여하였음.
 - 가좌3동새마을협의회, 경동나비엔, 나눔회, 소망기움봉사단, 오성인테리어, 웨슬리봉사단, 진주인테리어, 참사랑나눔봉사단,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49개 기업 및 단체의 재능나눔은 일회성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에는 기업 및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에서 만능수리공으로 활동하거나, ‘골목길(벽화) 사업’에 참여해 벽화그리기 등에 동참하거나, ‘클린방역’ 사업에 참여해 소독 및 방역 봉사를 함.
 - 연인원 기준으로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445명, ‘골목길(벽화)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1,419명, ‘클린방역’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4,581명으로 총 6,445명의 개인 전문인력이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함.

5.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상자,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 만족도, 제시하는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1), 2)}
 - 첫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수리 완료가구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사업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조사 결과를 분석·활용하고자 함.
 - 둘째, 본 연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 중 인천에 소재한 지역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기부금 후원의 동기와 만족도, 기부금 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본 연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재능나눔 봉사단체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단체 중 인천 지역 단체 8개를 대상으로 재능나눔 자원봉사의 동기와 만족도, 재능나눔 참여의 지속을 위한 필요 자원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의 만족도 분석

- 2011년부터 실시된 완료가구 대상 ‘만족도 조사’의 연도별 결과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만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1) 수리 완료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업시행 연도가 경과한 것뿐만 아니라, 수리완료가구 가구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사업 시행 각 연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연결하여 분석함.

2) 41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및 89개 전문인력 재능나눔 단체 중 설문조사 대상자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기부금 재능나눔에 참여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였음. 이에 따라,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단체 대상 서면 설문조사는 일반적인 설문조사라기보다는 답변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서면조사 방식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내용이 대표성이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함.

-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결과는 2011년 86%, 2013년 95%, 2014년 98%, 2015년 94%, 2016년 97%, 2017년 98%, 2018년 70%, 2019년 93%, 2020년 92%, 2021년 93%, 2022년 93%임.
- 즉, 2011년과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완료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결과는 2011년 86%, 2013년 95%, 2014년 98%, 2015년 94%, 2016년 97%, 2017년 98%, 2018년 70%, 2019년 93%, 2020년 92%, 2021년 93%, 2022년 93%임.
- 즉, 2011년과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완료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요약 표 5]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연도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1	39	47	10	4	0
2013	29	66	5	0	0
2014	0	98	1	1	0
2015	28	66	5	0	0
2016	37	60	3	0	0
2017	28	70	0	2	0
2018	13	57	25	4	1
2019	5	88	4	2	1
2020	16	76	6	1	1
2021	15	78	4	3	0
2022	15	78	4	3	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기부금 후원기업 대상 설문조사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한 기업으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 중, 인천 지역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문항은 크게 ①후원 참여 현황, ②후원 동기, ③후원에 대한 만족도, ④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⑤후원 계속 여부, ⑥‘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문항 총 17개로 구성됨.
- 조사에 참여한 응답 기업은 4개소는 모두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각 기업의 기부금 후원 현황은 A 기업 9회, B 기업 4회, C 기업 3회, D 기업 2회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알게 된 계기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가 2개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참여 권유’ 및 ‘사업 홍보물(팸플릿 등)을 통해’가 각각 1개 기업임.
- 기부금 후원사업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4개 기업)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4개 기업)이 후원 시작의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후원 만족도는 9점 만점에 7.75점으로 높은 수준임.
 - 후원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의 후원이 기업의 ESG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도가 9점 만점에 7.50점으로 대체로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ESG 활동 기여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3개 기업)가 가장 주된 요인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2개 기업),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1개 기업) 순임.
- 후원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3개 기업),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3개 기업)가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각각 2개 기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n=4,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50.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2	50.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1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1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25.0

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 단체 대상 설문조사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재능나눔 봉사단체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단체 중, 인천 지역에 소재한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문항은 크게 ①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②후원 동기, ③후원에 대한 만족도, ④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⑤후원 계속 여부, ⑥‘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⑦애로사항(어려움), ⑧개선 필요 사항, ⑨사업 필요 자원, ⑩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여를 위한 필요 지원에 관한 문항 총 21개로 구성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8개 단체이며, 가장 참여 횟수가 많은 단체가 16회, 가장 적게 참여한 단체는 8회 참여하였음.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알게 된 요인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와 ‘주변 기업/지인의 소개’가 각각 4개 단체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한 1순위와 2순위 이유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6개 단체이며, 그다음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4개 단체),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3개 단체),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1개 단체)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재능나눔활동을 시작하게 된 1순위와 2순위 이유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6개 단체)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4개 단체),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동참’(3개 단체) 등의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의 재능나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개 단체 평균 9점 만점에 7.75점으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재능나눔활동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와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4개 단체로 가장 주된 이유로 밝혀짐.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3개 단체,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가 2개 단체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 활동이 단체의 ESG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는 8개 단체 평균 9점 만점에 7.38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조사됨
 - 재능나눔이 기업 및 단체 ESG 활동에 기여하는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7개 단체)가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가 4개 단체,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가 2개 단체, ‘인권·양성평등·다양성 보장에 기여’가 1개 단체 순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재능나눔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8개 단체 모두 ‘계속할 예정’(100.0%)이라고 답함.
- 재능나눔활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6개 단체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3개 단체,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해져서’가 1개 단체로 나타남.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75.0%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요약 표 7]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n=7,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6	75.0
재능나눔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기업 대상 교육·홍보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2	25.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2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12.5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애로사항(어려움)으로 ①사업대상자 및 가족·임대인 등의 낮은 사업 이해도로 인한 갈등 문제, ②불필요한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③수혜자 선정의 적합성·적절성 문제, ④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의 주차 문제, ⑤높은 자재비로 인한 비용의 어려움,

⑥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어려움, ⑦사업대상자와 일정 조정 어려움, ⑧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어려움 등이 있다고 응답함.

-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①식대, 주차요금 등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활동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의 지원, ②무상봉사로 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인정·헌정 관련 지원 확대, ③최근 물가 상승에 맞춘 재료비 현실화, ④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충원을 위한 홍보 지원, ⑤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충원을 위한 홍보 지원, ⑥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정적 절차 개선 등을 제시함.
-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자원은 ①전문인력 자원봉사자의 식비, 주차요금 등 필요 활동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②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위한 맞춤형 지원, ③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④재료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적 예산 운용 필요, ⑤수리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확보와 기업 후원의 확대, ⑥사업대상자 확대, ⑦인천광역시 차원의 적극적 홍보 및 지원, ⑧전문인력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함.

6. 결론: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와 적응전략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하고 있음.
 - 첫째, 사업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기부금 후원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0년부터는 전혀 없는 상황임.

[요약 표 8]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

환경 변화	내용
[1] 재원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 → 인천광역시 보조금
[2]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의 새로운 행위자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 분야)/인천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 분야) →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주택 분야)
[3] 전문인력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과정에서 실비 미지원 문제 및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4]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필요성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클린 방역’ 사업 수행 →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필요
[5]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필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전체수리/부분수리’ 중심에서 주기적 ‘소규모 생활수선’ 확대 →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필요

- 둘째,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공사(iH)에 운영을 위탁한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2021년 2월 개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이 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역할이 주변화되고 있음.
- 셋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실비 미지원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넷째,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클린방역’을 실시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게 됨에 따라 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적관리가 필요한 세부 사업 ‘소규모 생활수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세부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섯째, 인천도시공사(iH)가 운영하는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보다 풍부한 자원을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핵심 세부 사업을 일회성인 ‘전체수리/부분수리’사업 중심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규모 생활수선’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 2009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작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민간기업과 단체의 기부금 후원 및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구성된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주택 관련 부서 및 인천도시공사(iH)와 협력하는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중 전부수리·부분수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및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많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핵심 사업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요약 표 9]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발전 방향

발전 방향	내용
[발전 방향 1]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역할 정립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 중심으로 전환
[발전 방향 2]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전달체계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대상자'로 확립
[발전 방향 3]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주기적 '소규모 생활개선'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 구축
[발전 방향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화	•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발전 방향 5]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화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

- 둘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로의 전달체계 확립임.
 -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부 사업 ‘클린방역’의 실시 경험 및 향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의 확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셋째, 사업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례관리의 확립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중심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인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또한 대상자가 거주하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이 체계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넷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의 체계화임.
 - 민간기업·단체가 후원하는 기부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전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적 인정 등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의 체계화 및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재능나눔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능나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다고 한 응답을 고려한다면,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임.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연구진행의 흐름도	7

2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ESG

1.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11
2.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17

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25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 인구사회학적 분석	42

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민간기업·단체 후원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분석

1. 민간기업·단체의 후원	77
2.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80

5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개요	93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의 만족도 분석	94
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기부금 후원기업 대상 설문조사	97
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 단체 대상 설문조사	110

6 결론: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와 적응전략	135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140

참고문헌	145
------------	-----

[표 3-1] 2009~2022년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26
[표 3-2] 부분수리 수리 내역별 완료가구	28
[표 3-3] 군·구별 완료가구	30
[표 3-4] 대상유형별 완료가구	32
[표 3-5]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34
[표 3-6] 자원별 수입·지출현황(2009~2022년)	36
[표 3-7] 세부 사업별 지출현황	41
[표 3-8]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 개요	42
[표 3-9]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43
[표 3-10]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44
[표 3-11]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45
[표 3-12]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46
[표 3-13]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47
[표 3-14]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48
[표 3-15]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49
[표 3-16]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50
[표 3-17]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52
[표 3-18]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53
[표 3-19]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55
[표 3-20]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57
[표 3-21]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59
[표 3-22]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60
[표 3-23]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61
[표 3-24]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62
[표 3-25]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연령 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63
[표 3-26]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63
[표 3-27]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64
[표 3-28]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64
[표 3-29]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64

[표 3-30]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65
[표 3-31]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65
[표 3-32]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66
[표 3-33]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67
[표 3-34]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가구형태	68
[표 3-35]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68
[표 3-36]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69
[표 3-37]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70
[표 3-38]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71
[표 3-39]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72
[표 3-40]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72
[표 3-41]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72
[표 3-42]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73
[표 3-43]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73
[표 4-1] 연도별 지정기탁금	78
[표 4-2] 기업/단체별 지정기탁금	79
[표 4-3]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에 따른 재능나눔 봉사자 수 추정(중복 산정)	80
[표 4-4] 기업/단체별 재능나눔 봉사 횟수	83
[표 4-5] 기업/단체별 재능나눔 봉사 참여연도 및 참여사업	85
[표 4-6]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의 참여사업별 봉사자 수	88
[표 5-1] 연도별 만족도 조사 개요	94
[표 5-2]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95
[표 5-3] 후원기업 대상 설문조사 개요	97
[표 5-4] 후원기업 응답자 특성	98
[표 5-5] 연도별 후원 참여 현황	98
[표 5-6] 연도별 후원 규모	99
[표 5-7] 사업 인지 요인	100
[표 5-8] 사업 선택 이유 - 1순위	100
[표 5-9] 사업 선택 이유 - 2순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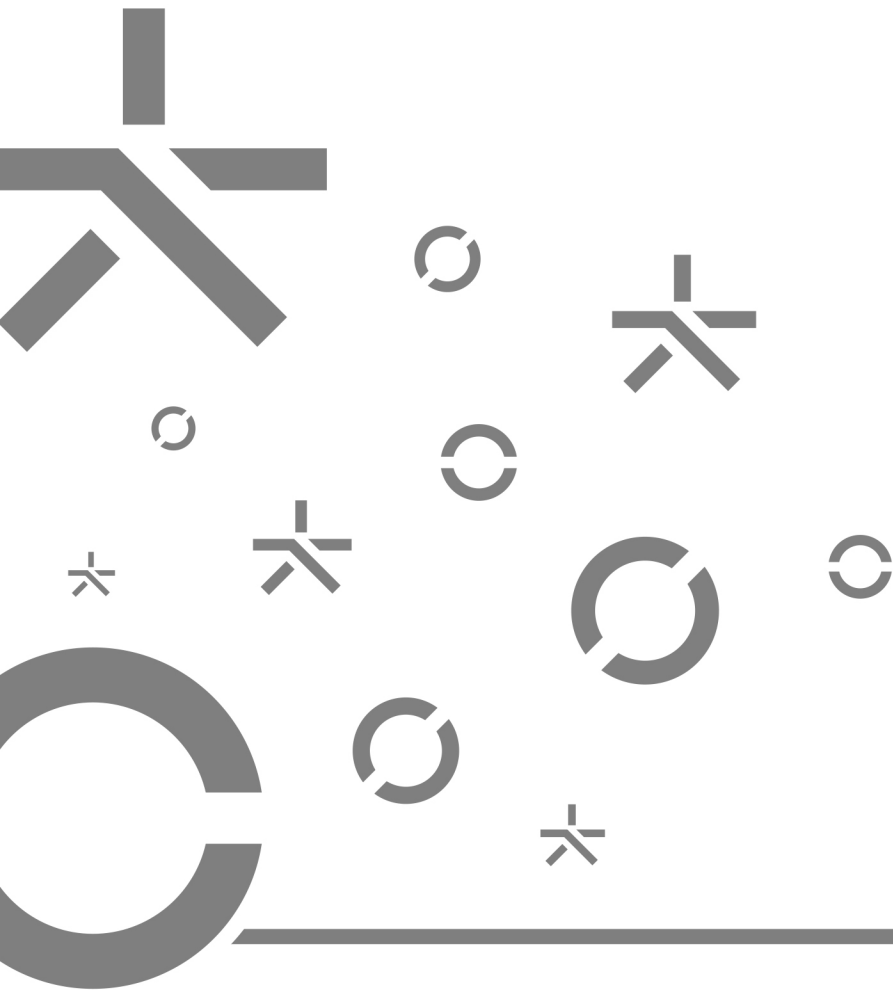
[표 5-10] 사업 선택 이유 - 1+2순위	101
[표 5-11] 후원 시작 이유 - 1순위	101
[표 5-12] 후원 시작 이유 - 2순위	101
[표 5-13] 후원 시작 이유 - 1+2순위	102
[표 5-14] 후원 만족도	102
[표 5-15] 후원 만족 이유 - 1순위	103
[표 5-16] 후원 만족 이유 - 2순위	103
[표 5-17] 후원 만족 이유 - 1+2순위	103
[표 5-18] 후원 만족 보통 이유	103
[표 5-19]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104
[표 5-20]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순위	104
[표 5-21]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2순위	105
[표 5-22]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2순위	105
[표 5-23]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보통 이유	105
[표 5-24] 후원 계속 여부	106
[표 5-25] 후원 계속 이유 - 1순위	106
[표 5-26] 후원 계속 이유 - 2순위	106
[표 5-27] 후원 계속 이유 - 1+2순위	107
[표 5-28] 후원 중단 이유	107
[표 5-29]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순위	108
[표 5-30]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2순위	109
[표 5-31]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109
[표 5-32] 재능나눔 봉사단체 대상 설문조사 개요	110
[표 5-33] 재능나눔 봉사단체 응답자 특성	111
[표 5-34]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111
[표 5-35]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 인원	112
[표 5-36] 사업 인지 요인	113
[표 5-37] 사업 선택 이유 - 1순위	113
[표 5-38] 사업 선택 이유 - 2순위	114

[표 5-39] 사업 선택 이유 - 1+2순위	114
[표 5-40] 재능나눔활동 시작 이유 - 1순위	115
[표 5-41] 재능나눔활동 시작 이유 - 2순위	115
[표 5-42] 재능나눔활동 시작 이유 - 1+2순위	116
[표 5-43] 재능나눔활동 만족도	116
[표 5-44] 재능나눔활동 만족 이유 - 1순위	117
[표 5-45] 재능나눔활동 만족 이유 - 2순위	117
[표 5-46] 재능나눔활동 만족 이유 - 1+2순위	118
[표 5-47] 재능나눔활동 만족 보통 이유 - 1순위	118
[표 5-48] 재능나눔활동 만족 보통 이유 - 2순위	118
[표 5-49] 재능나눔활동 만족 보통 이유 - 1+2순위	118
[표 5-50]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119
[표 5-51]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순위	119
[표 5-52]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2순위	120
[표 5-53]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2순위	120
[표 5-54]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보통 이유	120
[표 5-55] 재능나눔활동 계속 여부	121
[표 5-56] 재능나눔활동 계속 이유 - 1순위	121
[표 5-57] 재능나눔활동 계속 이유 - 2순위	122
[표 5-58] 재능나눔활동 계속 이유 - 1+2순위	122
[표 5-59]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1순위	123
[표 5-60]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2순위	124
[표 5-61]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124
[표 5-62] '사랑의 집 가꾸기' 참여 시 애로사항(어려움)	125
[표 5-6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선 필요 사항	127
[표 5-6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참여 자원 중 가장 필요한 자원	128
[표 5-65]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필요 지원	130
[표 6-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 변화	137
[표 6-2]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발전 방향	141

[그림 1-1] 연구진행의 흐름도	7
[그림 2-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비전·미션·전략	12
[그림 3-1] 연도별 완료가구 현황	25
[그림 3-2]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27
[그림 3-3] 부분수리 수리 내역별 완료가구	29
[그림 3-4] 부분수리 수리 내역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기준)	29
[그림 3-5] 군·구별 완료가구	31
[그림 3-6] 군·구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기준)	31
[그림 3-7] 대상유형별 완료가구	33
[그림 3-8] 대상유형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33
[그림 3-9]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35
[그림 3-10]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집행률)	35
[그림 3-11] 연도별 전체 수입액(수입총액) 및 재원별 수입액	37
[그림 3-12] 연도별 총 사업비 수입·지출 현황	38
[그림 3-13] 연도별 인천광역시 보조금 수입·지출 현황	38
[그림 3-14] 연도별 지정기탁금(민간기업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39
[그림 3-15] 연도별 복권기금 수입·지출 현황	39
[그림 3-16] 연도별 (중앙정부)특별교부세 수입·지출 현황	40
[그림 4-1] 연도별 지정기탁금 총액	77
[그림 4-2]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에 따른 재능나눔 봉사자 수 추정	81
[그림 4-3] 연도별 재능나눔 봉사 참여단체 수	87
[그림 4-4]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의 참여사업별 봉사자 수	89
[그림 5-1]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중 만족(매우 만족+만족) 비율	96
[그림 5-2] 연도별 후원 참여 현황 및 후원 규모	99
[그림 5-3]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및 참여 인원	112

1

서론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2009년부터 기업의 후원금과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09년 당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사업’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인천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주한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사업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전문자원봉사자들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임.
 -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의 한 종류로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실시 되었으며,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비로 충당되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지탱해주는 한 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부금 후원임.³⁾

- 민간기업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총 17.56억 원을 기부하였음.
-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기업의 규모나, 기부금 규모 자체가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축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주거 관련 기업의 전문인력에 의한 재능나눔 및 집수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재능나눔임.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주거와 관련한 기업의 전문인력에 의한 재능나눔 및 집수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개인들의 모임·단체의 재능나눔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집행부가 만들고자 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 및 민간기업의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 중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사업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되면서 2020년부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재원이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으로만 충당되고 있음.
 - 둘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지원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셋째, 2021년 1월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광역시로부터 광역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자로 지정받으면서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었고, 이 센터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자로서 실시하게 됨.

3)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부의 특별지원금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도 재원으로 충당되었지만,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주요 재원이면서 동시에 전문인력의 재능나눔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중요한 사업추진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도시공사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
 - 인천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거주자(쪽방, 고시원, 여인숙, 여관, 반지하 등)의 발굴,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과 이주 및 정착 과정을 밀착 지원함.
- 이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관협력 사회복지사업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결합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활동’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수행된 사업의 진행 과정, 성과,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상자 가구의 만족도 분석,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단체 관계자 및 전문기술의 재능나눔을 실시하는 단체의 의견수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방향을 찾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이 실시되는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2009~2022년
- 내용상 범위
 - 2009년~2022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결과 분석, 대상자 가구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후원 민간기업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정도 확인 및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방향 제안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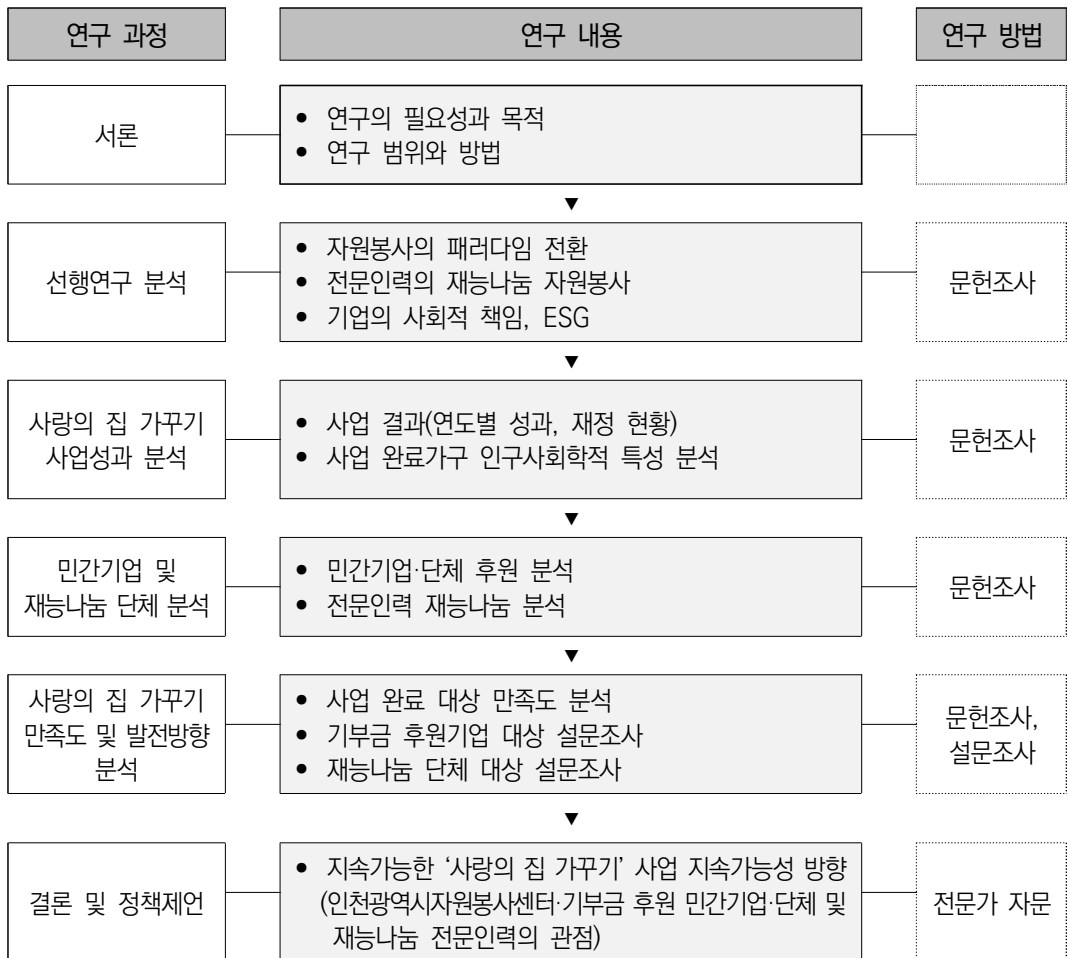
- 문헌분석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전환,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2009~2022년 사업 결과, 민간기업 후원금 기부 현황 및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 현황 분석
- 사업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2009~2022년 부분·전부 수리 완료가구 대상 준공검사 시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후원금 기부 민간기업·단체 및 재능나눔 전문인력단체 대상 서면 설문조사
 - 기부금을 후원한 민간기업 관계자 대상 CSR, 또는 ESG 차원에서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정도 및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확인
 - 재능나눔을 한 전문인력 단체 대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정도 및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확인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 변화 분석
 -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발전 방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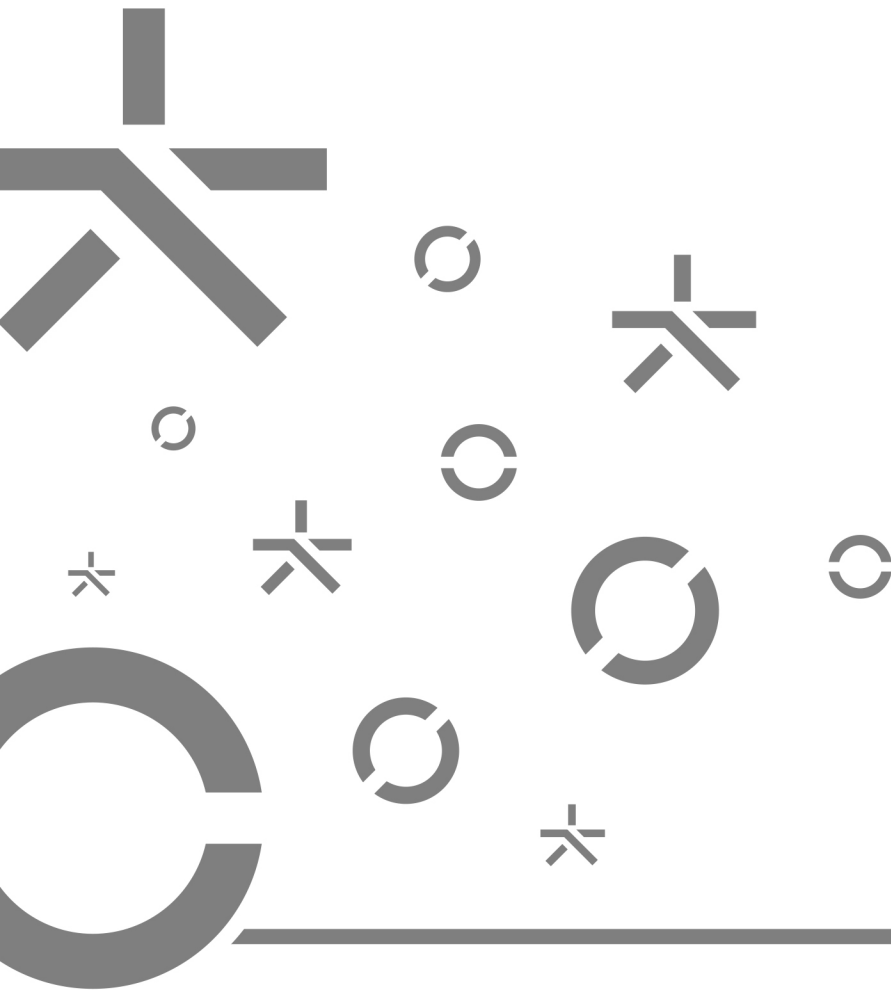
3. 연구진행의 흐름도

- 이상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과정에 따른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연계하여 연구진행 흐름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진행의 흐름도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ESG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ESG

1.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1)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따라 “혁신과 연대로 만드는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함으로써 가치 있는 봉사활동과 인천의 자원봉사 발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임.⁴⁾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의하면 광역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구분됨.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광역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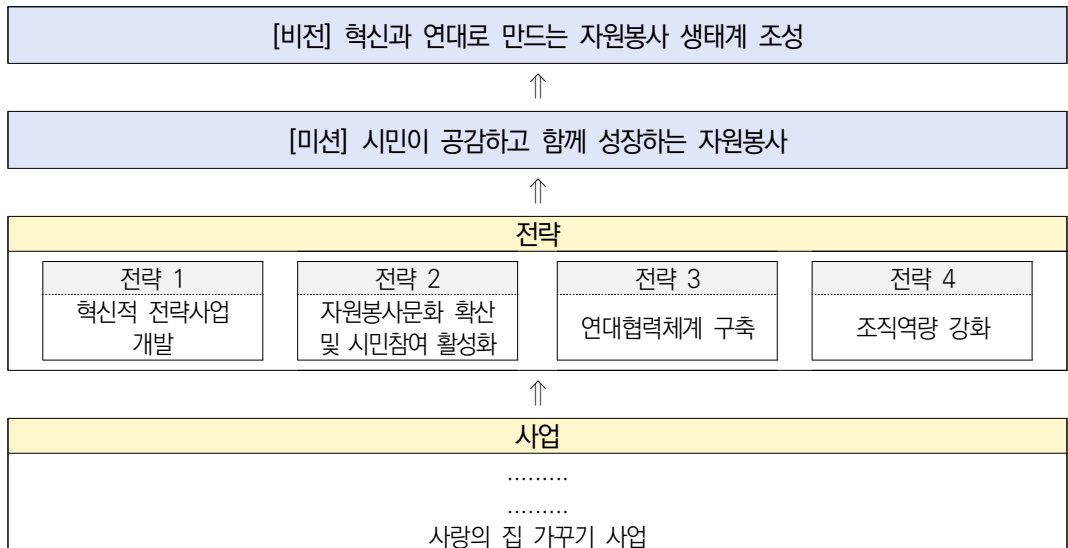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같은 법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혁신과 연대로 만드는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라는 미션을 달성하고자 4가지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 첫째, 인천시 자원봉사 브랜드 사업개발과 확산 등을 위한 ‘혁신적 전략사업 개발’
 - 둘째,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 등을 통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셋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연대협력체계 구축’
 - 넷째, 센터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충 등 ‘조직역량 강화’

[그림 2-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비전·미션·전략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2023.5.23. 검색)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첫 번째 전략을 실현하는 실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종의 집수리 사업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 둘째, 전문인력의 재능기부에 의한 자원봉사
 - 셋째,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한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위한 기부금 후원

2)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 2010년대 후반부터 몇몇 연구자들은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지자체가 기획하고 동원하는 소위, '동원성·일회성 자원봉사'에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 최상미·신경화·이혜림(2017)은 세대·환경의 변화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자원봉사는 감소하는 반면에, 정기적인 봉사과 전문재능을 가진 봉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원봉사에서 시민참여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분석함.
 -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최상미 외(2017)는 사회 환경의 일반적 변화, 비영리 영역의 확대와 비영리조직의 다원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자원봉사와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변화 때문에 온라인 봉사와 해외봉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제로 자원봉사의 확장, 지역사회·자원봉사자 개인 중심의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간 상호호혜적 관계의 형성 등 시민 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논의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최상미 외(2017)는 다양한 아젠다 개발을 통한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 사회적 경제 및 시민참여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 선도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내용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 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사한 맥락에서 이명신(2018)도 생활양식, 문화, 사회,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와 욕구 또한 변화하면서 자원봉사도 시대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함.
 - 이명신(2018)은 초기에는 관(官) 주도, 즉, 지자체가 기획하고, 동원하는 '동원성·일회성 자원봉사'가 많아지면서 자원봉사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자원봉사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자원봉사자의 시민성을 성장시키기는 어려웠다고 진단함.
 - 이명신(2018)은 이러한 초기 관 주도의 동원성의 일회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의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논의함.
 - 자원봉사자 개인의 신념과 관심사가 반영된 '기업가형 자원봉사'

- 근본적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 요소, 즉, 생각과 행동 또는 신념으로 공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하는 ‘사회변화형 자원봉사’
- 이러한 의미에서 이명신(2018)은 자원봉사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세부 지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음.
 - 첫째, 자원봉사 과정 차원에서의 지표: 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 둘째, 자원봉사 결과 차원에서의 지표: 사회변화, 확산성
-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실증분석을 한 최준규·이지은·오단아·김화연·조현혜(2022)는 2010년대 이후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등록률은 증가하였으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진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변화 때문에 자원봉사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최준규 외(2022)는 자원봉사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일반인, 자원봉사 및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대다수 경기도민과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화를 희망함.
 - 지자체의 자원봉사 관련 정책담당자들(공무원)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차별화된 자원봉사정책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준규 외(2022)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방향 전환, 지자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을 활성화하여 자체적인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러한 의미에서 최준규 외(2022)는 지자체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관계형성 중심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것, 즉,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발적 민간조직 간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초점을 둔 자원봉사정책으로 전환
 - 둘째, 자원봉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확대

3) 재능기부 자원봉사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능기부 자원봉사, 또는 전문자원봉사는 지자체 및 전국에 산재한 광역·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음.
- 최준규 외(2022)는 전문봉사활동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전문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함.⁵⁾
 - '재능'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 '전문가(직업분류 및 전문지식·기술 활용)'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 '경력'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 '선경험자의 재능기부'
 - '전문단체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상명·주성수·최민희(2012)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중 전문봉사활동을 수행한 비율은 16%에 불과하며⁶⁾, 이러한 결과는 전문봉사활동(재능기부)이 자원봉사활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이나, 상담과 정신건강 관련 전문봉사활동의 비율이 높은 유럽 7개국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함.
 - 최상명 외(2012)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개인'과 '전문단체'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즉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논의함.
 - 최상명 외(2012)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2010년부터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재능나눔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 유형에서는 주변환경개선(집수리, 도배, 장판 등) 활동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다고 분석함.

5)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최준규 외(2022)의 분류에 따르면 '전문가 개인'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며, 동시에 '전문단체'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6) 최상명 외(2012)는 지역별 자원봉사자 중 전문봉사활동 비율을 대전 21.0%, 전라북도 19.5%, 인천광역시 17.4%, 충청남도 17.2% 등으로 분석함.

- 재능기부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최상명 외(2012)는 먼저, ‘한국자원봉사협 의회’의 ‘재능나눔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 관리시스템’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①재능기부 목표의 명확화를 시작으로 ②활동 관리 프로세스 구축, ③재능기부 전문관 리자 양성 및 배치, ④재능기부 연계 시스템 구축, ⑤인정과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⑥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등
- 이금룡·김진욱·전용호·이민홍(2018)은 인구고령화시대에 필요할 수 있는 노인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인 ‘보건복지부 노인 재능나눔 사업’을 분석하여 전문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함.
 - ‘보건복지부 노인 재능나눔 사업’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여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향상하여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이금룡 외(2018)는 노인의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공식적으 로 참여하는 시민 서비스 성격의 공익활동’으로 명확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전문인력 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 다 는 입장임.
 - 결과 차원에서 효과성 평가 정립
 - 과정 차원에서 수행방식 개편

2.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1) 기업의 ESG 경영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두 축 중 하나인 전문인력의 자원봉사는 ‘시민·전문인력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패러다임 변화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다른 한 축인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은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동참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음.
 -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의 ESG 경영’
- 매출·비용·(순)이익 등과 같은 재무적 요소 이외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시작한 개념임.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음.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연이 허용하는 한계 범위를 고려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UNEP, 1991)⁷⁾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WCED, 1987)⁸⁾
 - 소위 ‘지속가능 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은 기업이 조직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의 최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7) Sustainability i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while living within the carrying capacity of supporting eco-systems(UNEP, 1991)

8)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WCED, 1987)

-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ESG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개념이며,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보다 구체화되고, 규범화되고,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첫째, 관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책임이 주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까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기업활동, 예를 들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위험 관리 차원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임.
 -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헌 활동임
 - '기업의 ESG 경영'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3가지 비(非)재무적 요소 중 하나인 사회(S), 즉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라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ESG 경영'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즉 CSR이 지배적이었음.
 - 하지만, 2006년부터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환경(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ESG 경영'은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고유목적 사업과는 별도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조직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의 ESG 경영’이 중장기적 투자전략의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2025년부터는 주식거래시장인 ‘한국거래소(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들은 ESG 활동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됨.
- 기업의 ESG 경영 결과 보고에 대한 법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비(非)재무적 요소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법안 제2103712호)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있음.
 - 법안의 주요 내용 중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하여 사회(S)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전략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을 위한 전문인력의 자원봉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법안에 제시된 이러한 ‘사회적 가치’ 중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한 주제어는 다음과 같을 수 있음.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의 복원’, ‘그 밖의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임.
 - 이외에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이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ESG 경영 결과 보고에 대한 행정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향후 기업은 ESG 경영 활동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됨.
- 2023년 5월 12일에 개최되었던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상장주식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코스피)에 ESG 활동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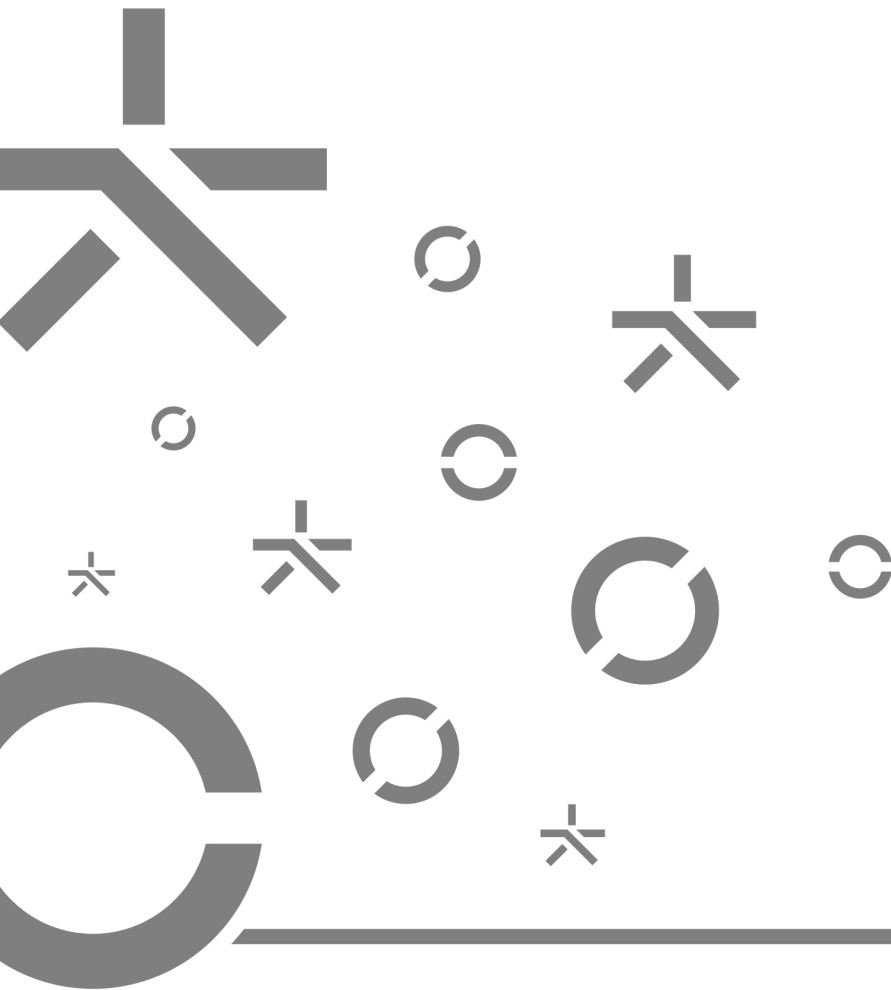
- 2025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2027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상장기업, 2029년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 2030년에는 전체 상장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함.

2)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 공공기관의 ESG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실현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입법 안(案)과 함께 주식거래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나 ESG 경영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 후원 및 재능나눔과 연계되는 법적, 행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에서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현명(2021)은 외부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존에는 매출·비용·(순)이익 등 재무적 요소가 거의 유일한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ESG 요소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의 복원’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공헌과도 연계된 사회참여 요소인 사회(Social)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 기부나, 기업 단위의 전문가의 재능에 기초한 조직적 자원봉사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황인창·김고운·백종락·이운혜(2022)는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단체 또는 그룹이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및 노력하는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응력 강화와 관련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의함.
 - 황인창 외(2022)는 지자체의 민간기업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은 시기적으로 그 방향을 차별화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단기 지원 방향: 공공조달 평가항목 개정,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등
 - 중장기 지원 방향: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플랫폼 구축, ESG 기금 마련, 투자정책에 ESG 반영 등
 - 지속적 지원 방향: 공공 조달 평가항목 지표 개선 등
- 고경환 외(2022)는 지난 2020년 초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부금의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의 90% 이상이 기업(법인)의 기부금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함.
- 고경환 외(2022)는 ESG 경영전략의 등장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본래 미션인 이익창출·수익확대와 사회적 기대를 연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고경환 외(2022)는 기업이 사회공헌사업과 ESG를 연계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사회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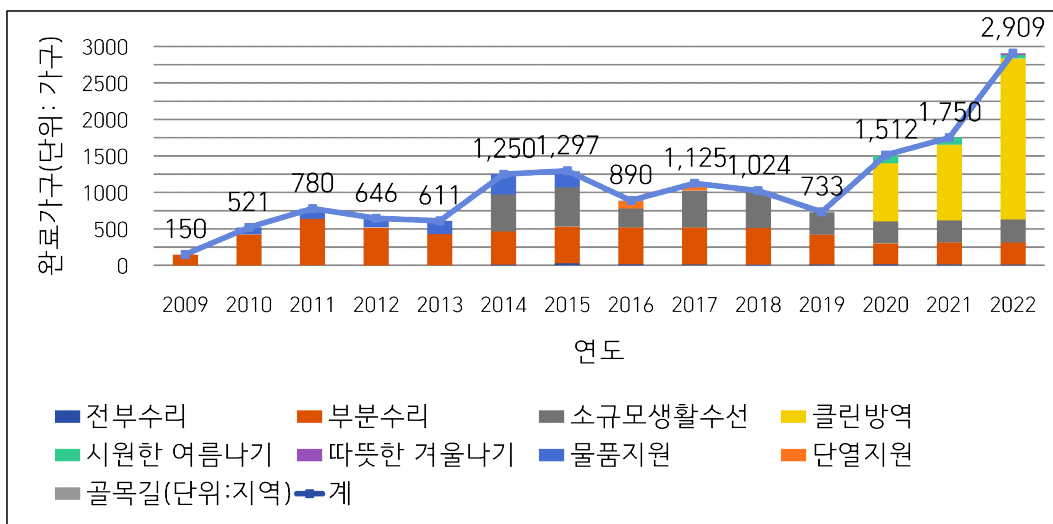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성과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연도별 성과 현황

❖ 연도별 완료가구 현황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적으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과 인천광역시의 지원금을 받고, 집수리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자원봉사, 즉 재능나눔으로 구성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였음([표 3-1]).
- 연도별 사업의 완료가구 규모는 2009년 150가구에서 2015년 1,297가구로 증가한 후, 2019년 733가구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2020년부터 완료가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총 2,909가구임.

[그림 3-1] 연도별 완료가구 현황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표 3-1] 2009~2022년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전부 수리	부분 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클린방역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지원 (가전제품)	단열 지원	골목길 (벽화) (단위: 지역)
2009	150		148					2		
2010	521		425					96		
2011	780		637					143		
2012	646		518					128		
2013	611		427					184		
2014	1,250	11	454	509				276		
2015	1,297	31	500	540				216		10
2016	890	15	505	260					97	13
2017	1,125	13	508	502					90	12
2018	1,024	8	506	505						5
2019	733	12	407	302						12
2020	1,512	15	285	302	797	103				10
2021	1,750	12	301	302	1,035	100				
2022	2,909	10	303	317	2,204	50	25			
총계	15,198	127	5,924	3,539	4,036	253	25	1,045	187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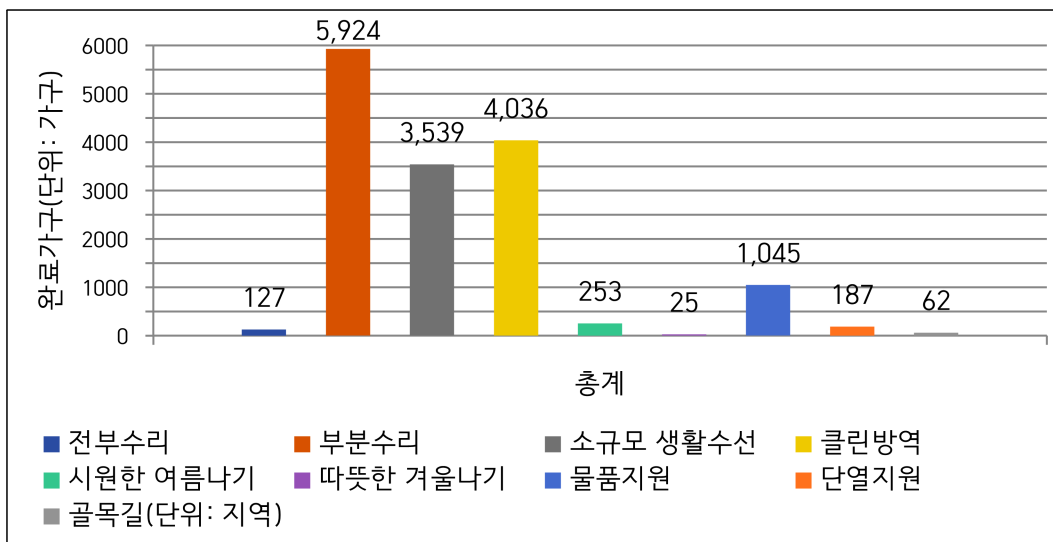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현황

- 2009~2022년 사업결과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면, 사업 완료가구가 가장 많은 세부 사업은 ‘부분수리’(5,924가구)이며, 그다음으로 ‘클린방역’(4,036가구), ‘소규모 생활수선’(3,539가구), ‘물품지원’(1,045가구) 등임.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노후주거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주택 리모델링과 내부 전문 수리 등을 수행하는 주택 ‘전부 수리’ 완료 규모는 127가구임.
- 홀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계층 등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주주택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수리’ 사업의 완료 규모는 5,924가구임.

- 홀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형광등·콘센트·스위치·각종 수전 교체 등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 규모는 3,539가구임.
- 위생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클린방역’ 완료 규모는 4,036가구임.
- 여름철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관에 방충망을 제작·설치해주는 ‘현관 방충망 설치’ 완료 규모는 253가구임.
- 소외계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수매트를 지원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 규모는 25가구임.
-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전제품이 낡은 가구에 가전제품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물품지원’ 완료 규모는 1,045가구임.
-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구를 만능수리공이 방문하여 동절기 대비 단열필름 또는 비닐 등의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단열지원’ 완료 규모는 187가구임.
- 노후되거나 위험한 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을 조성하는 ‘골목길(벽화) 사업’은 6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공을 완료함.

[그림 3-2]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세부 사업 '부분수리'의 규모는 2009년 148가구에서 2011년 637가구로 증가하였다가 그 후 2018년까지는 500가구 수준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300가구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그림 3-3]), 수리 내용은 도배·장판, 싱크대, 화장실, 지붕 방수, 문샷시, 보일러, 복합공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3-2]).
 - 전체 5,924가구의 '부분수리' 완료 가구의 44.5%인 2,638가구는 도배·장판을 수리한 가구임.
 - 3가지 이상의 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공사 1,255가구(21.2%), 싱크대 수리 557가구(9.4%), 문샷시 수리 532가구(9.0%), 보일러 수리 349가구(6.0%)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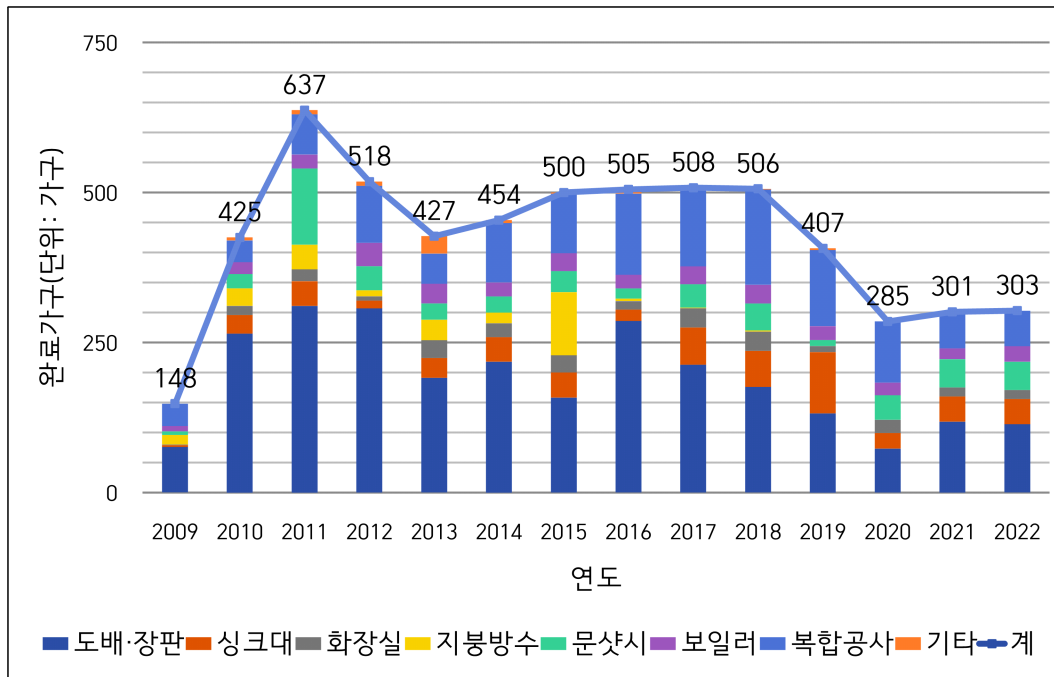
[표 3-2] 부분수리 수리 내역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연도	부분수리								
	계	도배·장판	싱크대	화장실	지붕방수	문샷시	보일러	복합공사	기타
2009	148	76	3	1	16	6	9	37	
2010	425	265	31	15	29	24	20	36	5
2011	637	311	41	20	41	127	23	67	7
2012	518	307	13	7	10	40	39	95	7
2013	427	191	33	30	34	27	33	50	29
2014	454	218	41	23	18	27	23	99	5
2015	500	158	42	29	105	35	30	99	2
2016	505	286	19	14	4	17	23	135	7
2017	508	213	62	32	1	39	30	129	2
2018	506	176	60	32	2	45	31	159	1
2019	407	132	102	10		10	23	127	3
2020	285	73	26	22		41	21	102	
2021	301	118	42	15		47	18	61	
2022	303	114	42	15		47	26	59	
총계	5,924	2,638	557	265	260	532	349	1,255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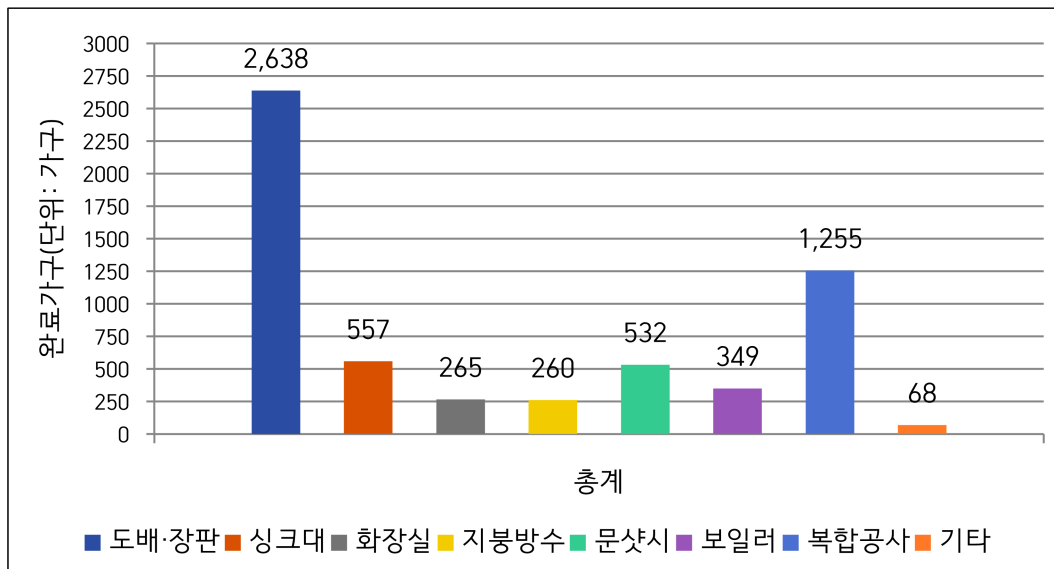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3] 부분수리 수리 내역별 완료가구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4] 부분수리 수리 내역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기준)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군·구별 완료가구 현황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전체의 완료가구를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할 경우, 완료가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전체 완료가구의 17.6%인 2,676가구가 대상이 된 서구임.⁹⁾
 - 그다음으로는 15.0%인 2,278가구가 대상인 된 계양구, 11.3%인 1,719가구의 남동구, 부평구(1,663가구), 동구(1,659가구) 순으로 완료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은 전체의 3.7%인 558가구, 옹진군은 전체의 3.4%인 524가구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 가구였음.

[표 3-3] 군·구별 완료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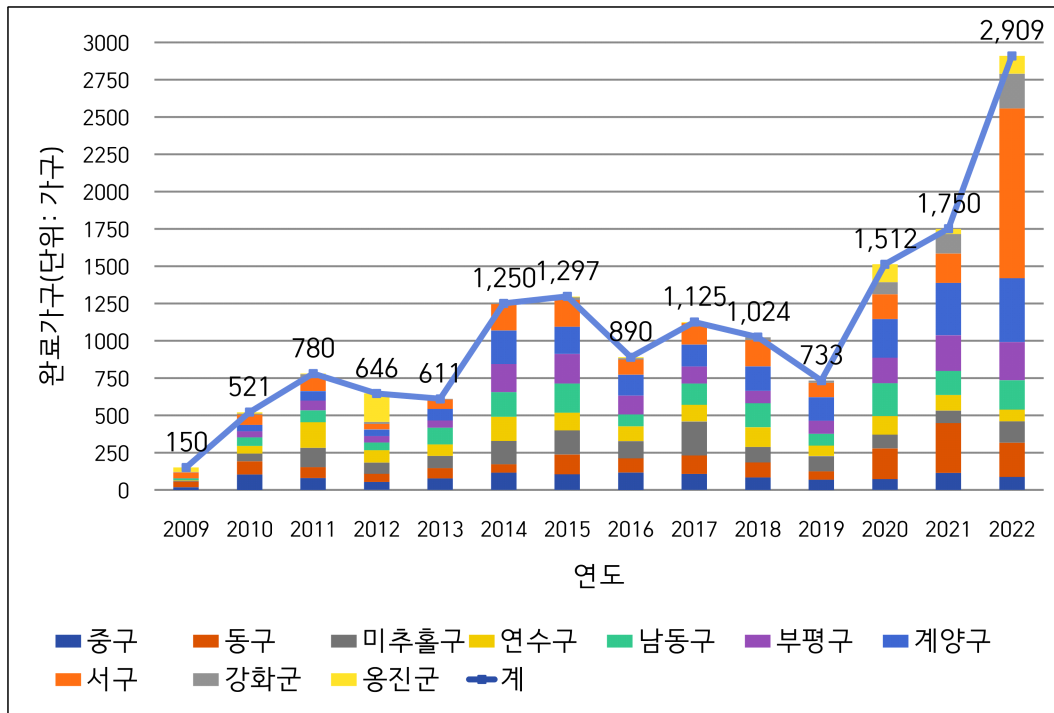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09	150	18	38	6	3	12	1	1	38	3	30
2010	521	104	88	51	51	58	41	43	69	7	9
2011	780	80	73	129	173	79	66	63	93	20	4
2012	646	53	56	75	83	52	43	43	37	13	191
2013	611	77	69	82	77	112	49	78	63	4	
2014	1,250	116	56	157	162	165	189	224	177	4	
2015	1,297	105	132	162	119	196	198	182	180	18	5
2016	890	117	96	115	98	81	126	139	102	10	6
2017	1,125	107	125	227	112	143	114	146	145		6
2018	1,024	84	101	104	131	162	83	163	177	19	
2019	733	70	56	101	71	79	88	157	96	15	
2020	1,512	73	205	93	124	220	172	259	165	81	120
2021	1,750	114	335	83	104	163	238	351	196	132	34
2022	2,909	88	229	143	79	197	255	429	1,138	232	119
총계	15,198	1,206	1,659	1,528	1,387	1,719	1,663	2,278	2,676	558	524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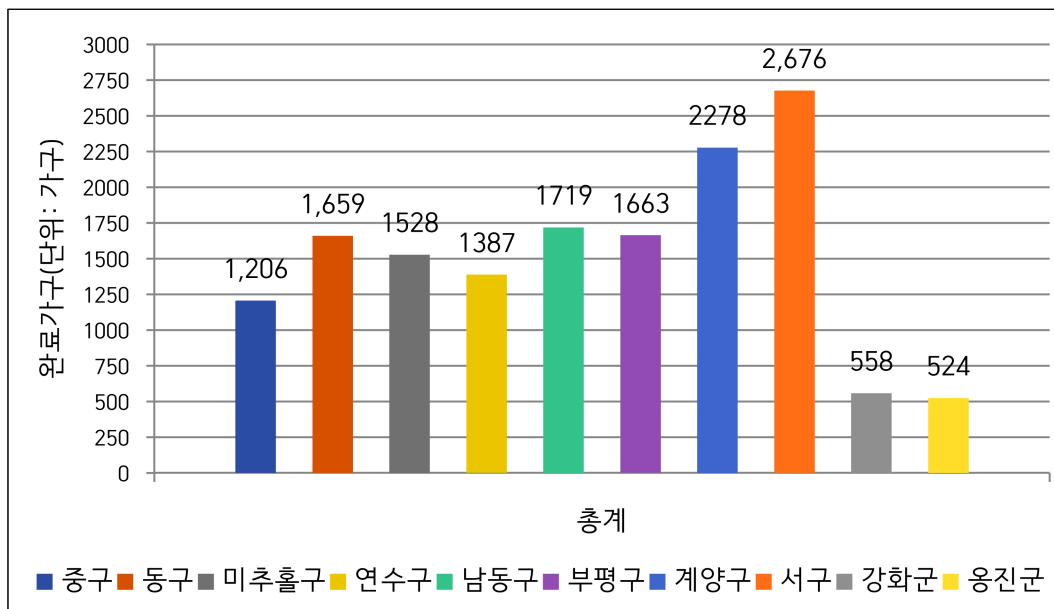
9) 기초지자체의 협력 및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활동 동원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별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기초지자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의 대상자 추천, 사업수행의 가능성,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활동지역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심층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5] 군·구별 완료가구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6] 군·구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기준)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완료가구 현황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의 대상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표 3-4]).¹⁰⁾
 - ‘클린방역’ 및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대상가구를 제외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 11,137가구 중 37.1%인 4,129가구인 독거노인(1인 가구 노인, 홀몸 노인)이 가장 많은 유형이며, 그다음으로는 25.9%인 기초생활수급자 2,884가구, 12.3%인 장애인 1,735가구, 12.1%인 차상위·저소득 1,348가구 등임.¹¹⁾

[표 3-4] 대상유형별 완료가구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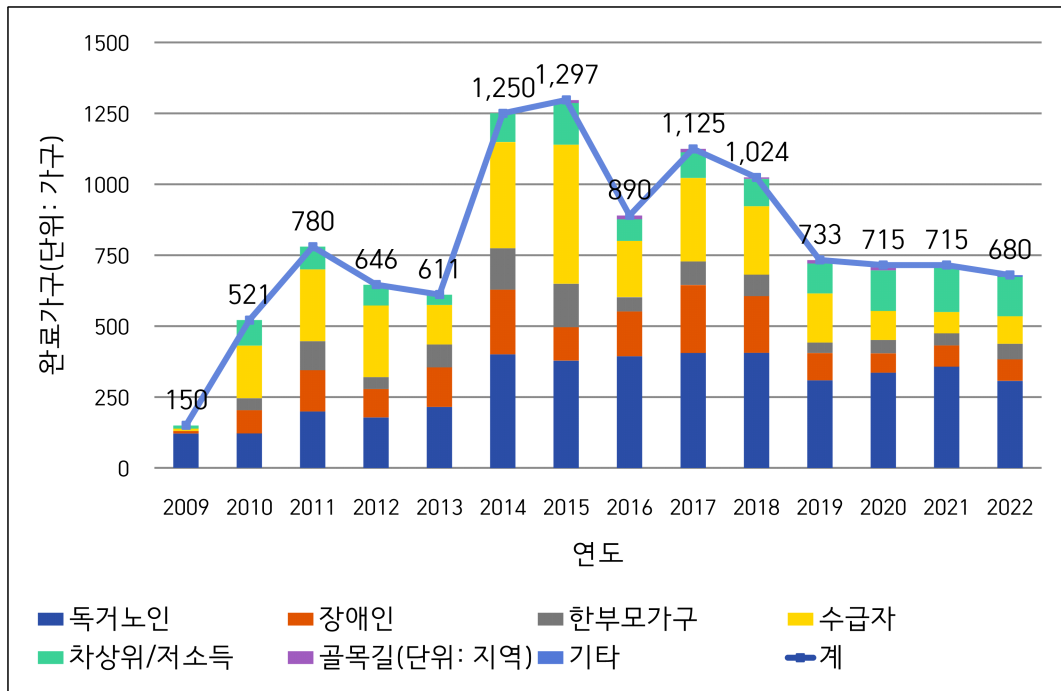
연도	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저소득	골목길(벽화) (단위: 지역)	기타
2009	150	121	9		9	11		
2010	521	122	82	42	185	90		
2011	780	199	146	102	253	80		
2012	646	178	100	42	253	73		
2013	611	215	140	81	139	36		
2014	1,250	401	228	146	374	101		
2015	1,297	378	118	153	490	148	10	
2016	890	394	158	50	198	77	13	
2017	1,125	406	239	83	294	91	12	
2018	1,024	406	200	76	241	96	5	
2019	733	309	96	37	173	106	12	
2020	715	336	68	47	103	143	10	8
2021	715	357	75	43	75	157		8
2022	680	307	76	55	97	139	0	6
총계	11,137	4,129	1,735	957	2,884	1,348	62	2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10) 단, 대상 유형 구분자료가 없어 구분 분석이 어려운 2020년부터 2022년의 클린방역 대상가구, 2022년의 따뜻한 겨울나기 대상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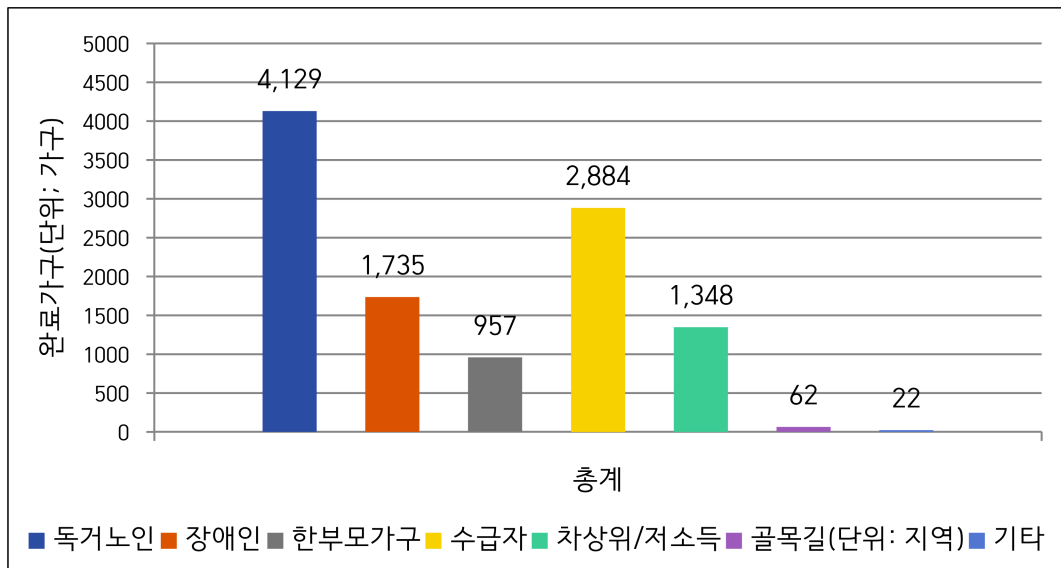
11)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지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자료 양식에서 이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임.

[그림 3-7] 대상유형별 완료가구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8] 대상유형별 완료가구(2009~2022년 총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연도별 재정 현황

❖ 총괄 현황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재원은 2013년 수입에 포함된 '2012 국정과제 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인천광역시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 보조금'(보조금)
 -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제공되는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기탁금)
 - 셋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배분하는 '복권기금'
- 전체 수입은 2009년 2,950만 원에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및 복권기금의 증가로 2015년 10.9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이 두 종류 재원의 규모가 감소하고, 지원이 종료되고, 2018년 이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이 주요 재원이 되면서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3.9억 원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11년 37.3%, 2019년 83.8%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90%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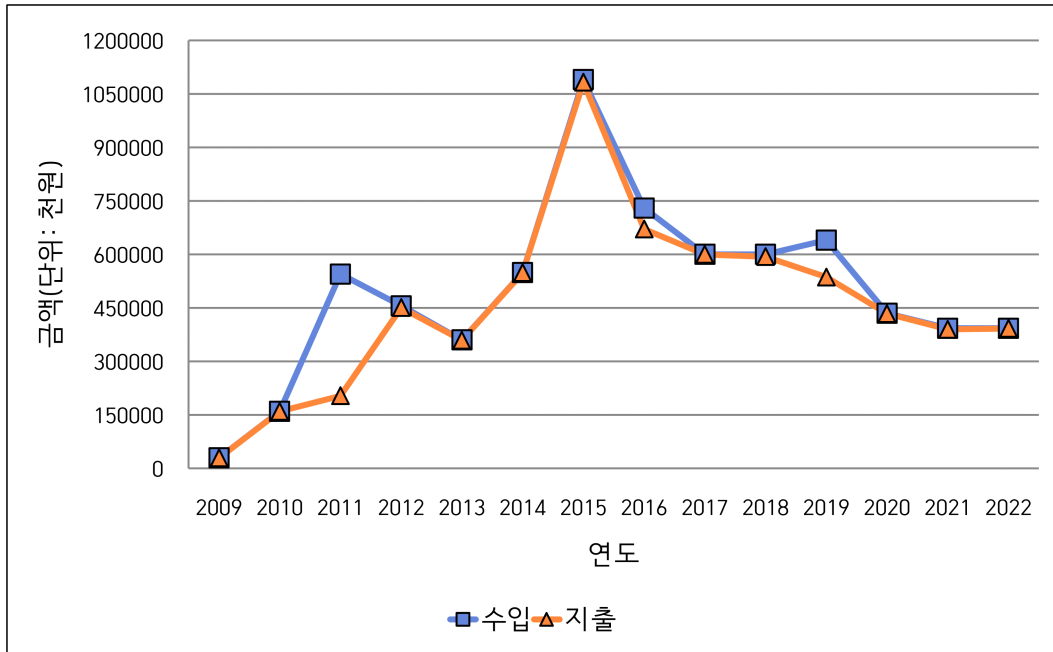
[표 3-5]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

연도	수입	지출	예산집행률	비고
2009	29,500,000	29,092,890	98.6	시예산: 2천9백5십만 원
2010	160,000,000	160,000,000	100.0	기탁금: 1억6천만 원
2011	545,000,000	203,472,000	37.3	기탁금: 5억4천5백만 원
2012	456,000,000	450,604,420	98.8	기탁금: 4억5천6백만 원
2013	360,000,000	359,435,320	99.8	기탁금: 2억6천만 원 2012국정평가우수특별교부세: 1억 원
2014	549,000,000	548,461,090	99.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1천9백만 원
2015	1,090,000,000	1,082,543,060	99.3	복권기금: 10억 원; 기탁금: 9천만 원
2016	730,000,000	671,256,960	91.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2억 원
2017	600,000,000	599,921,890	99.9	복권기금: 5억3천만 원; 기탁금: 7천만 원
2018	600,000,000	593,728,600	98.9	시예산: 5억3천만 원; 기탁금: 7천만 원
2019	640,000,000	536,745,010	83.8	시예산: 5억3천만 원; 기탁금: 1억1천만 원
2020	435,000,000	434,232,890	99.8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5천5백만 원
2021	393,000,000	390,169,160	99.3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1천3백만 원
2022	393,000,000	392,176,000	99.8	시예산: 3억8천만 원; 기탁금: 1천3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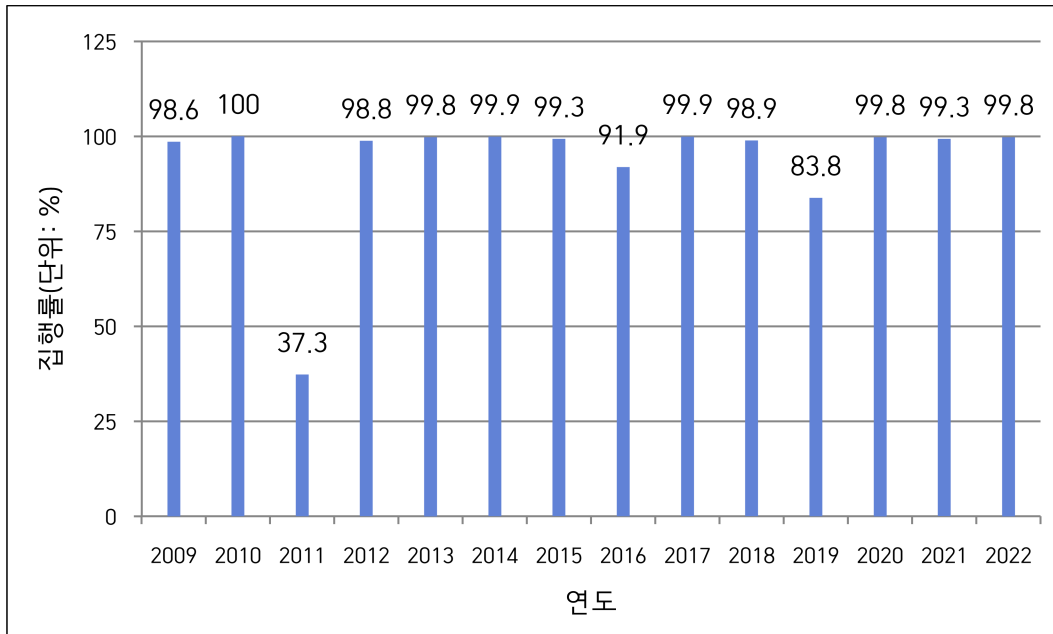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9]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0]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집행률)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재원 현황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재원인 복권기금,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업 보조금(보조금), 민간기업의 지정기탁금(후원금),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에서 각각 얼마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는가를 분석할 수 있음([표 3-6]).
 -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수입의 대부분이 지정기탁금(민간기업·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한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지정기탁금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배분하는 ‘복권기금과’ 인천광역시 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이 주요 수입원이 됨.
 - 하지만, 지정기탁금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은 2014~2017년에 배분된 후 종료되었고, 인천광역시 보조금은 2017~2019년에 5.3억 원이었다가 2018년부터는 3.8억 원으로 감소한 상황임.

[표 3-6] 재원별 수입·지출현황(2009~2022년)

(단위: 원)

연도	복권기금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			민간기업 지정기탁금(후원금)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2009	29,500,000	29,092,890	407,110	0	0	0
2010	0	0	0	160,000,000	160,000,000	0
2011	0	0	0	545,000,000	203,472,000	341,528,000
2012	0	0	0	456,000,000	450,604,420	5,395,580
2013	0	0	0	260,000,000	259,911,310	88,690
2014	530,000,000	530,000,000	0	19,000,000	18,461,090	538,910
2015	1,000,000,000	999,979,220	20,780	90,000,000	82,563,840	7,436,160
2016	530,000,000	529,975,470	24,530	200,000,000	141,281,490	58,718,510
2017	530,000,000	530,000,000	0	70,000,000	69,921,890	78,110
2018	530,000,000	530,000,000	0	70,000,000	63,728,600	6,271,400
2019	530,000,000	447,690,900	82,309,100	110,000,000	89,054,110	20,945,890
2020	380,000,000	380,000,000	0	55,000,000	54,232,890	767,110
2021	380,000,000	380,000,000	0	13,000,000	10,169,160	2,830,840
2022	380,000,000	380,000,000	0	13,000,000	12,176,000	824,000
합계	4,819,500,000	4,736,738,480	82,761,520	2,061,000,000	1,615,576,800	445,42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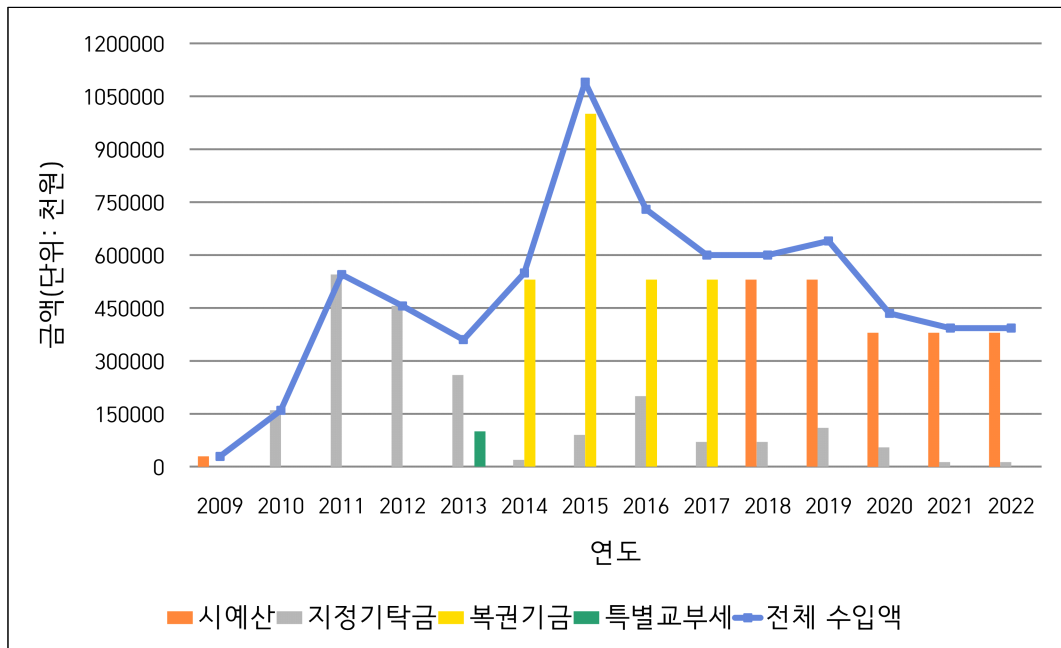
[표 3-6] (계속)재원별 수입·지출현황(2009~2022년)

(단위: 원)

연도	(중앙정부)특별교부세			총 사업비		
	수입	지출	잔액	수입총액	지출총액	잔액
2009	0	0	0	29,500,000	29,092,890	407,110
2010	0	0	0	160,000,000	160,000,000	0
2011	0	0	0	545,000,000	203,472,000	341,528,000
2012	0	0	0	456,000,000	450,604,420	5,395,580
2013	100,000,000	99,524,010	475,990	360,000,000	359,435,320	564,680
2014	0	0	0	549,000,000	548,461,090	538,910
2015	0	0	0	1,090,000,000	1,082,543,060	7,456,940
2016	0	0	0	730,000,000	671,256,960	58,743,040
2017	0	0	0	600,000,000	599,921,890	78,110
2018	0	0	0	600,000,000	593,728,600	6,271,400
2019	0	0	0	640,000,000	536,745,010	103,254,990
2020	0	0	0	435,000,000	434,232,890	767,110
2021	0	0	0	393,000,000	390,169,160	2,830,840
2022	0	0	0	393,000,000	392,176,000	824,000
합계	100,000,000	99,524,010	475,990	6,980,500,000	6,451,839,290	13,432,339,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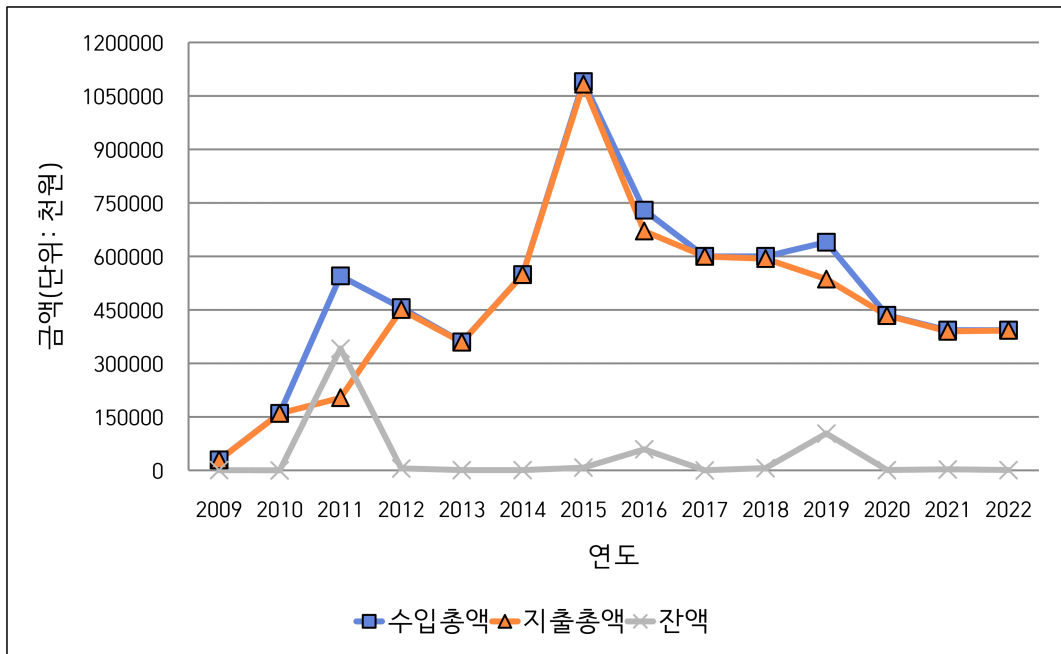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1] 연도별 전체 수입액(수입총액) 및 재원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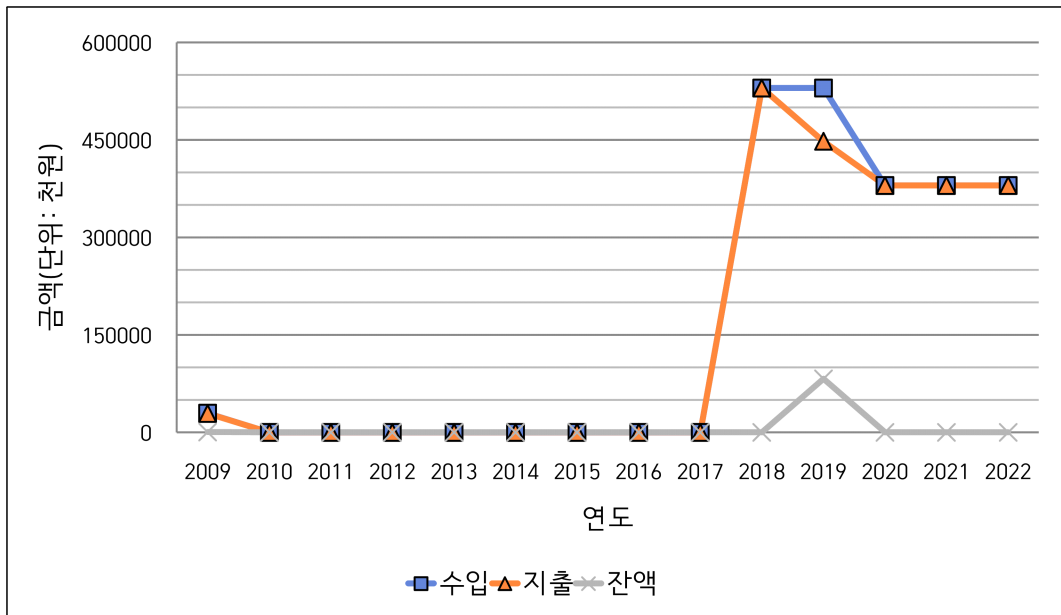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2] 연도별 총 사업비 수입·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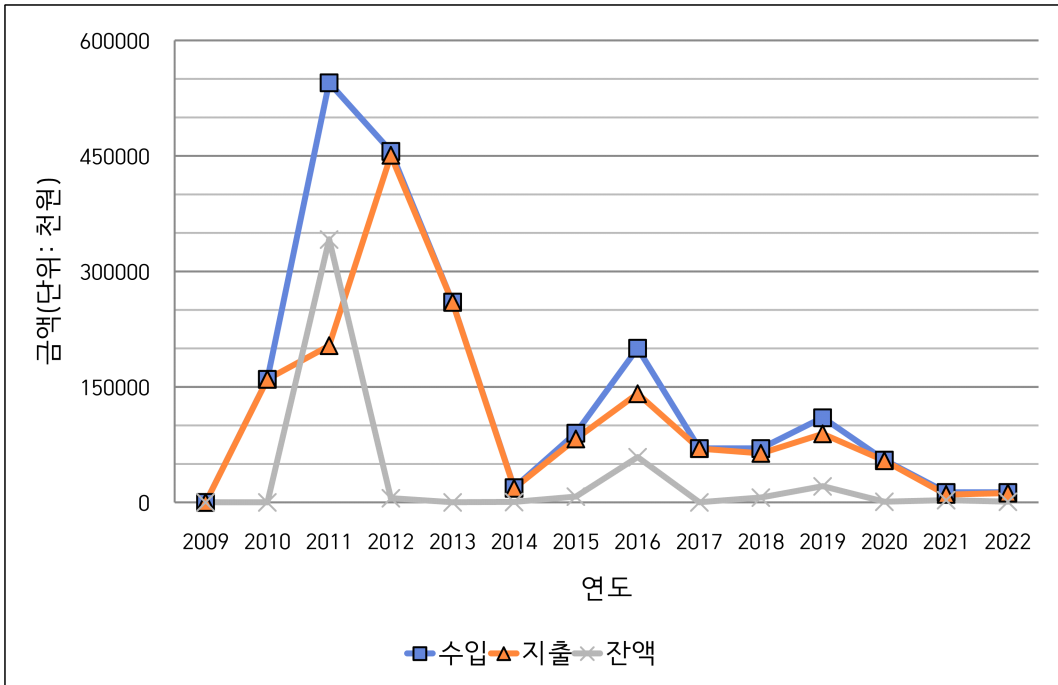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3] 연도별 인천광역시 보조금 수입·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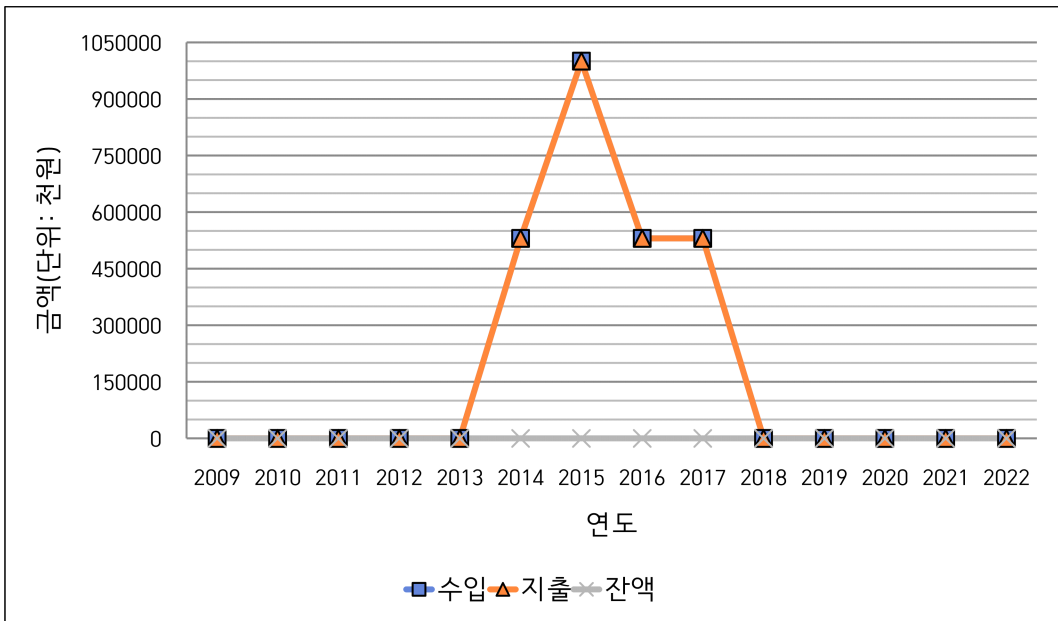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4] 연도별 지정기탁금(민간기업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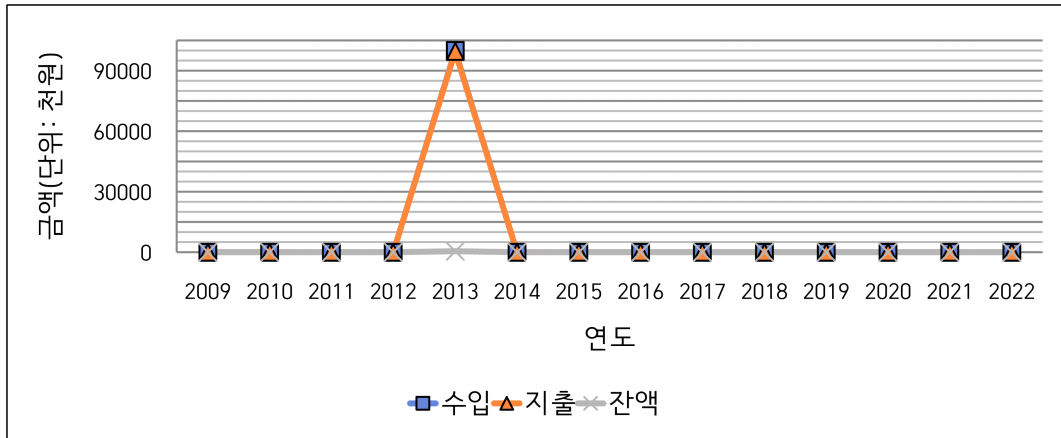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5] 연도별 복권기금 수입·지출 현황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6] 연도별 (중앙정부)특별교부세 수입·지출 현황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세부 사업별 지출현황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출현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표 3-7]).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누적 지출은 같은 기간 수입 총액인 69억 8,050만 원의 92.4%인 약 64억 5,183만 원임.
 - 지출 규모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면 ‘전부수리’에는 총지출액의 8.2%인 약 5.3억 원, ‘부분수리’에는 70.3%인 약 45억 3,498만 원, ‘소규모 생활수선’에 4.9%인 약 3.2억 원, ‘물품지원’에 6.4%인 약 4.2억 원, ‘시원한 여름나기’와 ‘따뜻한 겨울나기’와 같은 하절기·동절기 지원에는 0.4%인 약 2,897만 원,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하였던 ‘클린방역’에는 0.6%인 약 4,000만 원이 지출됨.
 - 이에 따라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전부수리’와 ‘부분수리’에 각각 총지출액의 8.2%와 70.3%인 총 50억 6,467만 원(78.5%)을 지출함으로써 원래 목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관협력 사회복지사업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단체의 후원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을 결합한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총지출액 중 1.4%인 ‘기타’에는 홍보물 제작비용, 현장 체험 비용, 렌트 차량 운영비용, 기타 운영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3-7] 세부 사업별 지출현황

(단위: 원)

연도	구분	계	전부 수리	부분 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클린 방역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지원 (기전제품)	단열 지원	골목길 (벽화)	사업 설명회/간담회	사업 선정심사	사업 평가회	기타
2009	복권/시	29,092,890							10,313,950			849,500			17,929,440
	지정기탁	0													
2010	복권/시	0													
	지정기탁	160,000,000	6,679,000	133,928,000					19,393,000						
2011	복권/시	0													
	지정기탁	203,472,000		164,656,200					38,816,800						
2012	복권/시	0													
	지정기탁	460,604,420		396,971,420					53,633,000						
2013	복권/시	0													
	지정기탁	259,911,310		184,555,310					75,376,000						
특별교부	복권/시	99,524,010		97,867,010					1,657,000						
	지정기탁	530,000,000	65,437,460	304,190,420	28,272,330				108,994,117						23,135,673
2014	복권/시	18,461,090		7,774,800	3,499,100				7,151,883						35,307
	지정기탁	999,979,220	116,110,180	488,116,160	38,995,990				99,758,000			752,870	3,451,000		36,623,750
2015	복권/시	82,563,840	52,816,100	28,000,940	1,746,800										
	지정기탁	529,975,470	56,088,400	457,147,900	15,799,080					999,400		920,240			19,850
2016	복권/시	141,281,490		75,961,600	8,296,640										
	지정기탁	530,000,000	37,919,200	460,206,460	31,874,350					236,900		820,000	300,000	997,000	5,783,600
2017	복권/시	69,921,890	2,666,500		11,234,540										
	지정기탁	530,000,000		485,655,300	44,434,700										
2018	복권/시	63,728,600	34,703,900												
	지정기탁	447,660,900		417,660,900	30,000,000										
2019	복권/시	89,054,110	45,705,000												
	지정기탁	380,000,000	45,000,000	285,000,000	30,000,000	15,000,000	5,000,000								
2020	복권/시	54,232,890					3,916,000								
	지정기탁	380,000,000	38,505,500	297,261,800	30,235,900	13,996,800									
2021	복권/시	10,169,160					9,603,000								
	지정기탁	380,000,000	28,069,800	300,107,500	40,822,700	11,000,000								566,160	
2022	복권/시	380,000,000													
	지정기탁	12,176,000					5,500,000	4,950,000						1,726,000	
총계				6,451,839,290											
(누적 지출)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기공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 인구사회학적 분석

1) 분석 개요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세부 사업은 전부수리, 부분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클린방역,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지원, 단열지원, 골목길(벽화) 사업임.
 - 다양한 세부 사업 중 '클린방역'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2년에 시행된 단기사업이며, 또한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방역 대상 가구와 장소를 선정하고 클린방역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이 가능한 명단 및 정보가 없는 상황임.
 - 또한, 세부 사업 중 하나인 '골목길(벽화)' 사업은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골목길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이 가능한 명단 및 정보가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완료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은 '클린방역' 및 '골목길(벽화)' 사업은 제외하고, 다른 사업인 '전부수리', '부분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지원', '단열지원' 사업의 완료가구에 대해서는 가능함.

[표 3-8]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 개요

구분		자료 보유 여부	분석 대상 포함 여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전부수리	○	○
	부분수리	○	○
	소규모 생활수선	○	○
	클린방역	× (단기사업, 센터 주관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시원한 여름나기	○	○
	따뜻한 겨울나기	○	○
	물품지원	○	○
	단열지원	○	○
	골목길(벽화)	× (가구 대상이 아닌 지역, 특정 골목길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므로 대상자 특정 불가능)	×

2) 전부수리 완료가구

❖ 군·구별 분포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전부수리' 완료가구 127가구의 소재지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9]).
 - 미추홀구 소재 '전부수리' 완료가구는 18.9%인 24가구, 남동구 및 계양구는 각각 18.1%인 23가구, 부평구는 11.8%인 15가구, 서구는 10.2%인 13가구였음.
 - 반면에, 강화군 소재 '전부수리' 완료가구는 1가구이며, 옹진군의 경우 '전부수리' 완료가구가 한 곳도 없음.¹²⁾

[표 3-9]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14	11	2	4	1	0	1	1	0	2	0	0
2015	31	2	4	8	1	4	4	6	1	1	0
2016	15	2	1	2	0	2	2	3	3	0	0
2017	13	1	0	4	1	1	2	2	2	0	0
2018	8	0	0	2	0	0	2	2	2	0	0
2019	12	3	2	2	0	3	1	1	0	0	0
2020	15	1	0	3	0	5	1	4	1	0	0
2021	12	0	0	0	3	1	2	5	1	0	0
2022	10	0	0	2	1	6	0	0	1	0	0
총계	127	11	11	24	6	23	15	23	13	1	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12) 도서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경우 전부수리 가구 대상자의 존재와 추천,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활동 가능성, 기초지자체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연령분포

-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사업 당시 대상자의 연령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0]).
 - ‘전부수리’ 완료가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13.4%인 17가구임.¹³⁾
 - ‘전부수리’가 시행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자의 연령은 70-79세가 24.4%인 31가구였으며, 80세 이상이 18.8%인 24가구, 40-49세가 13.4%인 17가구, 50-59세가 12.6%인 16가구였음.
 - 반면에, 29세 미만과 30-39세는 각각 2가구, 6가구였으며, 이에 따라 ‘전부수리’ 사업의 대상자가 청년보다는 중장년층,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¹⁴⁾

[표 3-10]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단위: 가구)

연도	계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확인 불가
2014	11	0	0	3	0	1	1	2	4
2015	31	0	0	8	5	3	4	4	7
2016	15	1	1	2	2	2	2	4	1
2017	13	0	0	3	1	1	1	5	2
2018	8	0	0	0	0	2	6	0	0
2019	12	0	1	0	3	1	2	3	2
2020	15	0	1	0	3	3	5	2	1
2021	12	0	2	1	1	1	5	2	0
2022	10	1	1	0	1	0	5	2	0
총계	127	2	6	17	16	14	31	24	17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13) 대상자 추천과 선정과정에서 주거지 환경, 연령, 소득, 가족구성 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할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것은 자료보관의 문제이거나,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상자 관리도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14) 이는 사업대상이 일반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이라고 할 경우 연령은 노인이 먼저 설정되는데, 20대와 30대도 대상자가 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표 3-10]과 같은 이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20대와 30대도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가구 형태

-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1]).
 -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부수리’ 완료가구 총 127가구 중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전체의 약 절반 수준인 62가구임.
 - 대상자의 가구 특성 중 독거노인(노인 1인 가구, 홀몸 노인 가구)이 23.6%인 3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 17.3%인 22가구, 한부모가구가 7.1%인 9가구였음.
 - 2개 이상의 복합은 독거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한부모가구 등인 경우와 같이 2개 이상의 가구 형태가 복합된 가구이며, 2018년 가구 형태 복합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한부모가구인 1가구임.

[표 3-11]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질병세대	노인부부	복합	기타	확인불가
2014	11	2	1	0	0	0	0	0	0	0	8
2015	31	7	8	1	0	0	0	0	0	0	15
2016	15	2	4	2	0	0	0	0	0	0	7
2017	13	3	1	1	0	0	0	0	0	0	8
2018	8	3	1	0	0	0	0	0	1	0	3
2019	12	2	2	1	0	0	0	0	0	0	7
2020	15	3	1	3	0	1	1	1	0	0	5
2021	12	6	1	0	0	0	0	0	0	0	5
2022	10	2	3	1	0	0	0	0	0	0	4
총계	127	30	22	9	0	1	1	1	1	0	6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소득 유형

-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기준 가구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2]).
 -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부수리’ 완료가구 총 127가구 중 가구의 소득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는 9.4%인 12가구임.
 -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55.9%인 71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며, 18.1%인 23가구는 차상위계층 가구, 15.7%인 20가구는 저소득계층 가구임.
 - 이와 같이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약 90%인 114가구가 일반적 의미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2021년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중 ‘기타’ 1가구는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임.

[표 3-12]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단위: 가구)

연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기타	파악 불가
2014	11	9	0	2	0	0
2015	31	19	4	2	0	6
2016	15	10	3	1	0	1
2017	13	10	2	0	0	1
2018	8	5	0	3	0	0
2019	12	6	2	3	0	1
2020	15	0	9	5	0	1
2021	12	6	2	2	1	1
2022	10	6	1	2	0	1
총계	127	71	23	20	1	1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주거 형태

-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3]).
 - 2014~2022년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11가구임.
 -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28.3%인 36가구, 단독주택 거주가 22.8%인 29가구, 연립주택 거주가 21.3%인 27가구, 아파트 거주가 14.2%인 18가구였음.
 - 주거 형태 기타는 무허가건물, 원룸, 쪽방, 컨테이너, 일반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2021년 주거 형태 중 ‘기타’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임.

[표 3-13]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기타	파악 불가
2014	11	8	1	0	0	1	0	1
2015	31	8	5	9	1	2	0	6
2016	15	4	4	3	0	3	0	1
2017	13	3	4	1	2	1	0	2
2018	8	1	2	3	1	1	0	0
2019	12	2	3	3	1	2	0	1
2020	15	2	5	4	0	4	0	0
2021	12	0	7	3	0	1	1	0
2022	10	1	5	1	0	3	0	0
총계	127	29	36	27	5	18	1	1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주거 소유 형태

-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부수리' 완료가구 127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4]).
 - '전부수리' 완료가구 중 주거 소유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7.9%인 10가구임.
 -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중 자가가 55.9%인 71가구, 무상이 18.9%인 24가구¹⁵⁾, 월세가 7.1%인 9가구, 전세가 5.5%인 7가구였음.
 - 임대 중 임대 기타는 무상임대, 또는 유상임대인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가구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부수리' 완료가구 중 1가구가 해당됨.
 - 주거 소유 형태 중 '기타'는 사용대차, 미등기 무허가 등의 주거 소유 형태를 갖는 가구로 2019년 1가구임.

[표 3-14] 전부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자가	월세	전세	임대			부분무료	무상	기타	파악 불가
					무상임대	유상임대	임대기타				
2014	11	6	0	1	0	0	0	0	3	0	1
2015	31	15	0	2	0	1	1	0	6	0	6
2016	15	10	1	0	0	0	0	0	4	0	0
2017	13	7	2	1	0	0	0	0	1	0	2
2018	8	8	0	0	0	0	0	0	0	0	0
2019	12	7	1	0	0	0	0	0	2	1	1
2020	15	10	2	1	1	0	0	0	1	0	0
2021	12	4	3	1	1	0	0	0	3	0	0
2022	10	4	0	1	1	0	0	0	4	0	0
총계	127	71	9	7	3	1	1	0	24	1	1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15) 주거 소유 형태 중 무상은 가족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주거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함.

3) 부분수리 완료가구

- [표 3-1]에서의 '부분수리' 완료가구는 5,924가구이지만, 연도별 결과보고(사업추진 결과보고), '부분수리' 완료가구 붙임자료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수리' 완료가구는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표 3-15])와 같이 총 5,771가구이며, 이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실시함.

❖ 군·구별 분포

- 2009~2022년간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표 3-15]).¹⁶⁾
 - '부분수리' 완료가구 5,771가구 중 14.6%인 846가구는 계양구, 13.9%인 805가구는 남동구, 12.5%인 722가구는 연수구, 12.5%인 720가구는 서구, 11.1%인 642가구는 부평구에 소재함.
 - 2012년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를 보면 옹진군이 184가구로 다른 연도와 비교해 옹진군에 거주하는 가구가 부분수리 대상자로 많이 포함되었지만,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옹진군의 부분수리 완료가구가 6가구에 불과함에 따라, 옹진군 거주 가구의 '부분수리' 필요성이 해소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수리의 필요성은 있지만, '부분수리'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표 3-15]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 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09	129	17	40	5	3	10	2	1	38	1	12
2010	420	41	85	47	35	56	38	40	61	8	9
2011	637	69	59	72	167	56	54	53	83	20	4
2012	513	37	35	51	69	38	33	30	24	12	184
2013	426	65	56	45	57	74	32	58	36	3	0
2014	464	54	30	37	76	67	69	88	40	3	0
2015	486	48	50	33	66	72	71	70	67	9	0
2016	505	77	55	48	74	57	49	72	68	5	0
2017	389	31	33	60	46	79	40	34	55	5	6
2018	506	47	42	45	52	102	33	75	91	19	0
2019	407	38	28	56	23	51	46	90	60	15	0
2020	285	8	24	23	18	56	60	81	15	0	0
2021	301	7	9	30	29	42	62	81	41	0	0
2022	303	8	4	65	7	45	53	73	41	7	0
총계	5,771	547	550	617	722	805	642	846	720	107	215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16) 2014년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경우 454가구이지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2014년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결과보고」 17쪽의 재료비 지원가구에 의하면 465가구이며, 이 중 중복 가구를 제외하면 464가구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464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2014년 '부분수리' 완료가구를 464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함.

연령분포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연령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6]).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수리연도 당시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전체의 약 3.8%인 217가구임.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수리연도 당시 연령은 70-79세인 가구가 28.7%인 1,654가구, 60-69세가 16.1%인 928가구, 80세 이상이 20.1%인 1,162가구로 전체 ‘부분수리’ 완료가구 총 5,771가구의 2/3 이상인 3,961가구가 60세 이상임.
 - 반면에, 29세 미만인 가구는 1.5%인 85가구, 30-39세인 가구는 3.4%인 198가구, 40-49세인 가구는 11.7%인 674가구임.
- 이에 따라, ‘부분수리’ 사업이 청·장년층보다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3-16]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단위: 가구)

연도	계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파악불가
2009	129	7	2	4	1	19	62	30	4
2010	420	4	24	74	54	62	118	55	29
2011	637	11	48	95	93	81	139	62	108
2012	513	4	7	56	88	59	160	110	29
2013	426	11	18	58	71	56	132	77	3
2014	464	8	16	59	86	77	129	84	5
2015	486	7	11	70	98	80	127	85	8
2016	505	6	17	46	80	101	149	99	7
2017	389	8	11	35	69	75	115	68	8
2018	506	8	11	57	65	101	149	106	9
2019	407	5	7	36	43	73	125	111	7
2020	285	2	13	29	23	31	90	97	0
2021	301	1	9	31	32	44	93	91	0
2022	303	3	4	24	50	69	66	87	0
총계	5,771	85	198	674	853	928	1,654	1,162	217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가구 형태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7]).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전체의 약 1/3 정도인 1,816가구임.
 - ‘부분수리’ 완료가구 중 35.6%인 2,111가구는 독거노인이며, 장애인은 19.3%인 1,111가구, 한부모가구가 8.0%인 459가구, 노인부부가 1.9%인 108가구임.
 - 가구형태 중 ‘기타’는 다자녀가구, 자녀동거가구, 청·장년 1인가구 등을 의미하여, 연도별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1가구임.
 - 2011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5가구, 자녀동거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1가구임.
 - 2012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1가구임.
 - 2014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1가구, 2인가구 1가구, 4인가구 1가구임
 - 2015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청·장년 1인가구 4가구임.
 - 2016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청·장년 1인가구 2가구, 3인가구 1가구, 노인세대가구 5가구임.
 - 2017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2인 가구 2가구, 노모 및 자녀동거가구 1가구, 노인세대 1가구, 부부중심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5가구, 다자녀가구 1가구임.
 - 2018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4가구임.
 - 2019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근로무능력가구 1가구, 부모자녀동거가구 1가구, 부부중심가구 1가구, 사례관리대상가구 2가구, 청·장년 1인가구 3가구임.
 - 2020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부부중심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2가구임.
 - 2021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1가구, 다문화가구 1가구임.

[표 3-17]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구	질병 세대	노인 부부	복합	기타	파악 불가
2009	129	104	10	1	7	1	3	0	1	0	2
2010	420	104	70	34	1	5	4	2	2	1	197
2011	637	139	123	73	1	9	0	21	0	7	264
2012	513	178	108	31	1	1	0	22	5	1	166
2013	426	168	101	44	1	0	0	1	1	0	110
2014	464	159	117	44	0	4	0	9	3	3	125
2015	486	158	119	47	0	1	2	6	8	4	141
2016	505	200	116	31	0	4	2	7	10	8	127
2017	389	140	75	23	0	1	1	14	7	11	117
2018	506	189	111	35	1	2	0	13	4	5	146
2019	407	182	63	26	0	1	0	5	9	8	113
2020	285	143	24	27	0	0	1	4	2	3	81
2021	301	127	34	28	0	2	0	4	1	3	102
2022	303	120	40	15	0	0	0	0	3	0	125
총계	5,771	2,111	1,111	459	12	31	13	108	56	54	1,816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소득 유형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8).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을 알 수 없는 가구는 전체의 10.6%인 614가구임.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3인 3,631가구이며, 차상위계층 가구가 15.5%인 894가구, 저소득계층 가구가 10.7%인 615가구임.¹⁷⁾
 - 소득유형 ‘기타’는 다자녀가구 수당, 기초연금 등을 받는 가구를 포함함.
 - 2010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수당을 받는 1가구임.
 - 2014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수당을 받는 3가구임.
 - 2015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1가구임.
 - 2016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2가구임.
 - 2018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1가구임.
 - 2019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 4가구,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1가구임.
 - 2020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 1가구, 일반가구 2가구임.
 - 2021년 소득 유형 ‘기타’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가구 1가구임.

[표 3-18]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단위: 가구)

연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기타	파악 불가
2009	129	40	2	69	0	18
2010	420	205	35	69	1	110
2011	637	411	32	60	0	134
2012	513	301	59	46	0	107
2013	426	329	54	22	0	21
2014	464	341	75	30	3	15
2015	486	364	67	42	1	12
2016	505	394	68	30	2	11
2017	389	301	49	30	0	9
2018	506	356	80	59	1	10
2019	407	223	99	45	5	35
2020	285	25	161	79	3	17
2021	301	94	84	23	1	99
2022	303	247	29	11	0	16
총계	5,771	3,631	894	615	17	614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17) 이러한 소득 유형은 수리연도 당시 조사된 소득 유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구가 차상위 가구가 되고, 저소득이었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유형 간의 경계는 사실상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주거 형태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19]).
 - ‘부분수리’ 완료가구 중 19.3%인 1,112가구는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임.
 - 주거 형태 중 다세대주택은 23.0%인 1,329가구, 18.1%인 1,042가구는 단독주택, 17.6%인 1,017가구는 아파트, 14.5%인 834가구는 연립주택, 5.7%인 330가구는 빌라, 1.9%인 107가구는 기타로 분류됨.
 - 주거 형태 기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무허가건물, 쪽방,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함.
 - 2009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1가구, 무허가건물 2가구, 다녀 집 1가구임.
 - 2010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쪽방 1가구, 동생 집 1가구, 무허가건물 1가구, 일반주택 4가구임.
 - 2011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상가 2가구, 원룸 3가구, 무허가건물 2가구, 일반주택 8가구임.
 - 2012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1가구, 상가 1가구, 일반주택 1가구임.
 - 2013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2가구, 상가 1가구, 무허가건물 6가구임.
 - 2014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2가구, 컨테이너 1가구, 다가구주택 1가구, 무허가건물 4가구, 일반주택 10가구임.
 - 2015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2가구, 다가구주택 2가구, 무허가건물 1가구, 일반주택 1가구임.
 - 2016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6가구, 비닐하우스 1가구, 상가 1가구, 쪽방 1가구, 다가구주택 3가구, 무허가건물 2가구, 일반주택 4가구임.
 - 2017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3가구, 반지하 1가구, 컨테이너 1가구, 다가구주택 2가구, 무허가건물 2가구, 일반주택 4가구임.
 - 2018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1가구, 비닐하우스 1가구, 다가구주택 2가구임.
 - 2019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4가구, 다가구주택 1가구, 일반주택 1가구임.
 - 2020년 주거 형태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2가구,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 오피스텔 1가구임.

[표 3-19]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기타	파악 불가
2009	129	0	0	0	0	0	4	125
2010	420	45	9	0	46	20	7	293
2011	637	74	71	13	123	72	15	269
2012	513	153	68	44	18	93	3	134
2013	426	142	101	67	11	89	9	7
2014	464	113	107	114	12	97	18	3
2015	486	101	128	121	8	114	6	8
2016	505	111	105	115	22	116	18	18
2017	389	93	107	55	33	65	13	23
2018	506	52	91	56	15	71	4	217
2019	407	53	133	103	18	86	6	8
2020	285	34	120	44	7	75	4	1
2021	301	20	139	56	15	69	0	2
2022	303	51	150	46	2	50	0	4
총계	5,771	1,042	1,329	834	330	1,017	107	1,11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주거 소유 형태

-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표 3-20〕).
 - ‘부분수리’ 완료가구 중 14.1%인 813가구는 소유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임.
 - 전체 ‘부분수리’ 완료가구 5,771가구 중 29.1%인 1,679가구는 자가 소유, 18.4%인 1,060가구는 전세, 15.4%인 888가구는 월세, 10.1%인 580가구는 무상, 6.8%인 394가구는 유상임대, 2.7%인 156가구는 무상임대임.
 - 자가, 무상임대, 무상을 제외하고, 월세, 전세보증금, 유상임대비용, 무료분을 제외한 집세를 지출해야 하는 가구는 2,354가구로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약 40%가 해당됨.
 - 주거 소유형태 ‘기타’는 미등기 무허가, 연도지세, 보증부월세, 사용대차 등과 같은 주거 소유 형태를 갖는 가구임.
 - 2010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미등기 무허가 1가구임.
 - 2011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미등기 무허가 2가구임.
 - 2013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미등기 무허가 7가구임.
 - 2014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연도지세 1가구, 미등기 무허가 6가구임.
 - 2015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미등기 무허가 2가구임.
 - 2016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미등기 무허가 2가구, 사용대차 1가구임.
 - 2017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보증부월세 4가구, 사용대차 4가구임.
 - 2018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미등기 무허가 1가구, 보증부월세 1가구, 사용대차 4가구임.
 - 2019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사용대차 2가구, 보증부월세 1가구임.
 - 2020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사용대차 4가구임.
 - 2021년 주거 소유 형태 기타의 경우 사용대차 6가구임.

[표 3-20] 부분수리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자가	월세	전세	임대			부분 무료	무상	기타	확인 불가
					무상임대	유상임대	임대기타				
2009	129	40	15	43	13	0	2	0	0	0	16
2010	420	117	36	56	19	0	17	0	1	1	173
2011	637	136	41	70	28	40	32	4	7	2	277
2012	513	203	54	71	21	70	3	2	36	0	53
2013	426	116	71	117	10	39	1	2	60	7	3
2014	464	120	105	104	4	45	12	1	61	7	5
2015	486	155	84	105	6	50	17	0	63	2	4
2016	505	180	82	92	15	26	39	0	60	3	8
2017	389	113	87	66	11	19	8	2	40	8	35
2018	506	158	95	107	9	41	3	1	79	6	7
2019	407	136	70	80	10	34	1	0	64	3	9
2020	285	84	23	23	7	4	2	0	24	4	114
2021	301	72	31	38	3	14	3	0	25	6	109
2022	303	49	94	88	0	12	0	0	60	0	0
총계	5,771	1,679	888	1,060	156	394	140	12	580	49	813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4)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은 재능나눔 봉사자인 만능수리공이 소규모 생활수선·수리 능력이 없는 가구를 방문하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등을 수선해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대상자의 주소, 성명, 가구형태, 소득유형, 수리내용, 수리를 진행한 만능수리공의 성명 등을 기록으로 작성함.
 - 다른 세부 사업인 '전부수리' 및 '부분수리'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연령, 주거 형태, 주거 소유 형태 등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가구가 많음.¹⁸⁾
 - 이에 따라,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은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있는 기초지자체별 분포, 가구 형태, 소득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는 [표 3-1]에 따르면, 3,539가구이지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결과보고(사업추진 결과보고),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붙임 자료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중 중복된 완료가구 명단을 제외하면 총 3,519가구임([표 3-21]).
 - 이에 따라,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은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3,519가구를 대상으로 가능함.

18)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중 연령, 주거 형태, 주거 소유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는 전부수리, 부분수리와 중복 대상가구인 경우가 많아 전부수리, 부분수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내용에 이미 포함됨.

❖ 군·구별 분포

-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중 20.7%인 729가구는 계양구, 15.8%인 556가구는 미추홀구, 14.6%인 513가구는 부평구, 13.0%인 457가구는 서구, 12.1%인 426가구는 남동구, 9.9%인 350가구는 연수구, 7.2%인 255가구는 동구, 6.2%인 219가구는 중구임.
- 반면에, 강화군은 9가구, 옹진군은 5가구로 총 3,519가구의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중 14가구만 강화군, 옹진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14	498	40	15	62	56	69	65	100	91	0	0
2015	536	33	50	103	43	75	69	87	63	8	5
2016	260	23	24	54	11	14	61	53	20	0	0
2017	497	36	59	131	42	43	49	76	61	0	0
2018	505	39	56	52	81	63	45	85	83	1	0
2019	302	28	22	45	46	25	37	62	37	0	0
2020	302	6	16	36	35	47	39	84	39	0	0
2021	302	2	8	21	22	36	86	93	34	0	0
2022	317	12	5	52	14	54	62	89	29	0	0
총계	3,519	219	255	556	350	426	513	729	457	9	5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가구 형태

-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중 가구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전체의 52.4%인 1,834가구임([표 3-22]).
-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 중 독거노인가구는 30.3%인 1,068가구, 장애인가구는 10.5%인 371가구, 한부모가구는 5.5%인 194가구, 노인부부는 0.5%인 16가구임.

-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이 스스로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등을 수선·수리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주요 대상가구로 선정된 것으로 분석됨.
- 가구형태 중 ‘기타’는 자녀동거가구, 청·장년 1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포함함.
 - 2017년 가구형태 ‘기타’의 경우 자녀동거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1가구, 다문화가구 1가구임.
 - 2018년 가구 형태 ‘기타’의 경우 다자녀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1가구임.
 - 2019년 가구 형태 ‘기타’의 경우 부모자녀동거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1가구임.
 - 2020년 가구 형태 ‘기타’의 경우 청·장년 1인가구 1가구임.
 - 2021년 가구 형태 ‘기타’의 경우 다문화가구 1가구임.
 - 2022년 가구 형태 ‘기타’의 경우 부부중심가구 1가구임.

[표 3-22]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질병세대	노인부부	복합	기타	파악불가
2014	498	48	25	22	0	1	0	1	0	0	401
2015	536	19	4	4	0	0	0	3	1	0	505
2016	260	0	0	0	0	0	0	0	0	0	260
2017	497	183	135	49	0	0	0	0	4	3	123
2018	505	223	85	41	1	1	0	5	1	2	146
2019	302	136	39	15	0	0	0	2	5	2	103
2020	302	163	26	28	0	0	0	4	1	1	79
2021	302	158	29	16	0	0	0	1	1	1	96
2022	317	138	28	19	0	0	0	0	1	1	130
총계	3,519	1,068	371	194	1	2	0	16	14	10	1,843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소득 유형

-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25.0%인 879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는 10.4%인 366가구, 저소득가구는 3.1%인 109가구임([표 3-23]).
 - 2018년, 2019년, 2021년 ‘소규모 생활수선’의 소득 유형 중 ‘기타’는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가구임.
 - 소득 유형 중 ‘확인 불가’는 수리연도 당시 소득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구로 전체의 61.4%인 2,160가구임.
 - 소득 유형 ‘확인 불가’ 가구가 세부 사업 전체 대상자의 2/3 수준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 혹은 기타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추후 보완자료를 통해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함.

[표 3-23]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단위: 가구)

연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기타	확인 불가
2014	498	97	25	10	0	366
2015	536	34	8	6	0	488
2016	260	0	0	0	0	260
2017	497	167	31	5	0	294
2018	505	212	52	19	1	221
2019	302	113	57	18	1	113
2020	302	22	89	36	0	155
2021	302	52	85	9	3	153
2022	317	182	19	6	0	110
총계	3,519	879	366	109	5	2,16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5)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2020년부터 수행하는 ‘시원한 여름나기’는 현관 방충망 설치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관 방충망을 맞춤형으로 주문하여 제작·설치하는 세부 사업임.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는 총 253가구이며(표 3-1), 이들 모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결과보고(사업추진 결과보고)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총 253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시행함.

❖ 군·구별 분포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 총 253가구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의 42.3%인 107가구는 계양구, 15.0%인 38가구는 남동구, 12.3%인 31가구는 미추홀구, 10.7%인 27가구는 부평구, 9.9%인 25가구는 연수구, 5.1%인 13가구는 서구, 3.2%인 8가구는 중구, 1.6%인 4가구는 동구에 거주하는 가구임(표 3-24).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 중 강화군, 옹진군에 거주하는 가구는 없음.

[표 3-24]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20	103	7	3	12	11	24	9	34	3	0	0
2021	100	0	1	10	14	4	8	58	5	0	0
2022	50	1	0	9	0	10	10	15	5	0	0
총계	253	8	4	31	25	38	27	107	13	0	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연령분포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를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70-79세인 가구는 30.8%인 78가구, 80세 이상인 가구는 35.6%인 90가구로 70세 이상인 가구가 전체의 약 2/3 수준인 168가구임(표 3-25).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 중 70세 미만 가구의 경우 60-69세가 14.6%인 3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8.7%인 22가구, 40-49세가 4.7%인 12가구, 30-39세가 1.2%인 3가구, 29세 미만이 0.8%인 2가구임.

[표 3-25]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연령 분포(수리년도 당시 연령) (단위: 가구)

연도	계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확인 불가
2020	103	1	0	6	9	16	31	37	3
2021	100	0	2	3	7	9	34	39	6
2022	50	1	1	3	6	12	13	14	0
총계	253	2	3	12	22	37	78	90	9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가구 형태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는 독거노인이 51.8%인 131가구로 가장 많음([표 3-26]).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 중 장애인은 9.5%인 24가구, 한부모가구는 3.6%인 9가구, 노인부부가구는 1.2%인 3가구, 복합가구는 0.8%인 2가구, 질병세대는 0.4%인 1가구임.
 - 반면에, 가구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32.8%인 83가구임.

[표 3-26]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질병세대	노인부부	복합	기타	확인 불가
2020	103	47	8	5	0	0	1	3	1	0	38
2021	100	60	11	2	0	0	0	0	0	0	27
2022	50	24	5	2	0	0	0	0	1	0	18
총계	253	131	24	9	0	0	1	3	2	0	83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소득 유형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을 구분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9.6%인 75가구로 가장 많음([표 3-27]).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 중 차상위계층은 22.9%인 58가구, 저소득계층은 7.5%인 19가구임.
 - 반면에, 소득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39.9%인 101가구임.

[표 3-27]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단위: 가구)

연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기타	파악 불가
2020	103	20	28	14	0	41
2021	100	19	25	4	0	52
2022	50	36	5	1	0	8
총계	253	75	58	19	0	10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주거 형태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중 다세대주택이 22.1%인 56가구로 가장 많음([표 3-28]).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 중 연립주택은 8.3%인 21가구, 아파트는 6.3%인 16가구, 단독주택은 2.8%인 7가구, 빌라는 1.6%인 4가구임.

[표 3-28]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기타	파악 불가
2020	103	2	13	6	1	7	0	74
2021	100	1	20	6	3	6	0	64
2022	50	4	23	9	0	3	0	11
총계	253	7	56	21	4	16	0	149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주거 소유 형태

-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중 자가와 월세가 각각 14.2%인 36가구이며, 전세가 5.9%인 15가구, 무상이 4.7%인 12가구, 유상임대가 1.6%인 4가구, 무상임대가 0.4%인 1가구임([표 3-29]).

[표 3-29]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자가	월세	전세	임대			부분 무료	무상	기타	파악 불가
					무상임대	유상임대	임대기타				
2020	103	17	3	6	1	0	0	0	2	0	74
2021	100	12	12	2	0	4	0	0	6	0	64
2022	50	7	21	7	0	0	0	0	4	0	11
총계	253	36	36	15	1	4	0	0	12	0	149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6)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2022년부터 수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수매트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임.
-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는 총 25가구이며(표 3-1), 이들 모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결과보고(사업추진 결과보고)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시행함.

❖ 군·구별 분포

-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의 기초지자체별 분포의 경우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 각각 12%인 3가구씩 거주하고, 강화군, 옹진군에 각각 8%인 2가구씩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세부 사업과 달리 군·구별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표 3-30).
- 반면에, 완료가구 중 동구에 거주 가구는 없음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서는 동구 거주 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30]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22	25	3	0	3	3	3	3	3	3	2	2
총계	25	3	0	3	3	3	3	3	3	2	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연령분포

-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 중 11가구는 80세 이상이며, 70-79세는 5가구, 60-69세는 4가구임(표 3-31).
- 이에 따라, 겨울나기 완료가구 25가구 중 60세 이상인 가구가 80%인 20가구임.

[표 3-31] 따뜻한 겨울나기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단위: 가구)

연도	계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파악 불가
2022	25	0	1	2	2	4	5	11	0
총계	25	0	1	2	2	4	5	11	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7) 물품지원 완료가구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하는 ‘물품지원 사업’은 생활가전 제품이 낡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필수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등)을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세부 사업임.
- ‘물품지원’ 완료가구는 [표 3-1]에서 확인하면 총 1,045가구이지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연도별 결과보고, 물품지원 대상자 목록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하면 ‘물품지원’ 완료가구는 총 1,035가구임([표 3-32]).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물품지원’ 완료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은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1,035가구가 대상이 됨. 그러나 2009년 ‘물품지원’ 완료가구 2가구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물품지원’ 완료가구를 분석함.

❖ 군·구별 분포

-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기초지자체별 분포의 경우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18.6%인 192가구로 가장 많음([표 3-32]).
- ‘물품지원’ 완료가구 중 남동구 거주는 14.5%인 150가구, 중구는 13.3%인 138가구, 서구는 13.0%인 135가구, 부평구는 12.9%인 133가구임.

[표 3-32]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10	95	63	2	2	14	2	2	2	8	0	0
2011	136	9	15	53	5	22	13	10	9	0	0
2012	128	15	20	25	14	13	8	13	13	1	6
2013	184	12	13	37	20	39	17	19	26	1	0
2014	276	24	11	55	28	35	51	32	40	0	0
2015	216	15	30	20	8	39	42	20	39	3	0
총계	1,035	138	91	192	89	150	133	96	135	5	6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연령분포

- ‘물품지원’ 완료가구 중 70-79세에 해당하는 가구가 22.0%인 228가구로 가장 많으며, 40-49세가 18.9%인 196가구, 50-59세가 17.7%인 183가구, 60-69세가 15.6%인 161가구 등임([표 3-33]).
- ‘물품지원’ 완료가구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488가구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세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년층이 주 대상가구임.

[표 3-33]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단위: 가구)

연도	계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파악 불가
2010	95	2	7	19	12	18	27	9	1
2011	136	2	2	14	13	16	18	7	64
2012	128	5	10	21	27	14	35	11	5
2013	184	10	11	46	40	32	34	11	0
2014	276	6	19	57	47	46	62	37	2
2015	216	5	17	39	44	35	52	24	0
총계	1,035	30	66	196	183	161	228	99	7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가구 형태

- ‘물품지원’ 완료가구 중 독거노인이 28.8%인 298가구, 장애인은 18.9%인 196가구, 한부모가구는 18.8%인 195가구, 조손가구는 1.2%인 12가구, 노인부부는 0.5%인 5가구임([표 3-34]).
- 가구 형태 중 ‘기타’는 다자녀가구, 2인가구 등의 가구형태를 의미하며, 2011년의 경우 다자녀가구 2가구, 2014년의 경우 2인가구 1가구가 ‘기타’에 해당함.

[표 3-34]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가구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구	질병 세대	노인 부부	복합	기타	파악 불가
2010	95	15	20	21	1	1	0	0	0	0	37
2011	136	34	24	28	0	4	0	0	0	2	44
2012	128	33	25	22	1	3	0	3	0	0	41
2013	184	48	40	36	0	0	0	0	0	0	60
2014	276	97	40	54	0	3	0	2	1	1	78
2015	216	71	47	34	0	1	3	0	0	0	60
총계	1,035	298	196	195	2	12	3	5	1	3	32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소득 유형

- ‘물품지원’ 완료가구 중 75.6%인 782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며, 차상위계층 가구는 8.7%인 90가구, 저소득가구는 6.1%인 63가구임([표 3-35]).
- 소득 유형 중 ‘기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외의 소득 유형을 의미하며, 2010년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 1가구, 2014년의 경우에는 우선돌봄대상가 구 1가구가 ‘기타’에 해당됨.

[표 3-35]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단위: 가구)

연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기타	파악 불가
2010	95	35	1	4	1	54
2011	136	99	10	13	0	14
2012	128	99	11	7	0	11
2013	184	161	16	5	0	2
2014	276	211	30	19	1	15
2015	216	177	22	15	0	2
총계	1,035	782	90	63	2	98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주거 형태

- ‘물품지원’ 완료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다세대주택으로 24.3%인 252가구임([표 3-36]).
 - ‘물품지원’ 완료가구 중 단독주택은 20.5%인 212가구, 아파트는 17.2%인 178가구, 연립주택은 11.4%인 118가구, 빌라는 6.0%인 62가구임.
 - 주거 형태 중 6.9%인 71가구인 ‘기타’는 원룸, 컨테이너,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완료가구를 의미함.
 - 2010년 주거 형태 ‘기타’는 원룸 1가구, 컨테이너 1가구, 무허가건물 1가구, 일반주택 3가구임.
 - 2011년 주거 형태 ‘기타’는 상가 1가구임.
 - 2012년 주거 형태 ‘기타’는 임대주택 1가구, 비닐하우스 2가구, 상가 1가구, 여관 1가구, 조립식건물 1가구, 컨테이너 2가구, 무허가건물 1가구임.
 - 2013년 주거 형태 ‘기타’는 임대주택 7가구, 오피스텔 1가구, 다가구주택 1가구, 무허가건물 1가구임.
 - 2014년 주거 형태 ‘기타’는 임대주택 9가구, 상가 1가구, 여관 1가구, 쪽방 1가구, 컨테이너 2가구, 무허가건물 1가구, 일반주택 20가구임.
 - 2015년 주거 형태 ‘기타’는 임대주택 3가구, 상가 1가구, 여인숙 3가구, 컨테이너 1가구, 다가구주택 1가구, 일반주택 1가구임.

[표 3-36]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기타	파악 불가
2010	95	24	4	0	18	3	6	40
2011	136	13	8	3	19	7	1	85
2012	128	31	32	17	2	27	9	10
2013	184	33	67	26	4	40	10	4
2014	276	53	81	35	15	55	35	2
2015	216	58	60	37	4	46	10	1
총계	1,035	212	252	118	62	178	71	14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주거 소유 형태

-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중 월세가 33.8%인 350가구로 가장 많음([표 3-37]).
 -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중 전세는 20.9%인 216가구, 자가는 11.0%인 114가구, 무상은 8.3%인 86가구, 유상임대는 7.5%인 78가구, 임대기타는 4.2%인 43가구, 무상임대는 2.3%인 24가구임.
 - 주거 소유 형태 중 기타는 1.2%인 12가구이며, 이는 모두 미등기 무허가 가구임.

[표 3-37] 물품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자가	월세	전세	임대			부분 무료	무상	기타	파악 불가
					무상임대	유상임대	임대기타				
2010	95	14	18	25	12	0	11	0	0	4	11
2011	136	11	14	19	1	4	3	0	3	0	81
2012	128	19	37	24	5	13	0	0	18	6	6
2013	184	20	78	26	2	23	5	0	26	1	3
2014	276	26	122	68	1	17	16	0	17	1	8
2015	216	24	81	54	3	21	8	0	22	0	3
총계	1,035	114	350	216	24	78	43	0	86	12	11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8) 단열지원 완료가구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2016년과 2017년에 수행하는 '단열지원사업'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를 대비해 단열필름, 비닐 등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세부 사업임.
- '단열지원' 완료가구는 총 187가구이나([표 3-1]), 이 중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결과보고(사업추진 결과보고)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명단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총 186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시행함.

❖ 군·구별 분포

- '단열지원' 완료가구 186가구를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하면 중구는 18.8%인 35가구, 동구는 16.1%인 30가구, 계양구는 14.0%인 26가구, 미추홀구는 11.8%인 22가구, 남동구는 9.1%인 17가구, 부평구는 8.6%인 16가구임([표 3-38]).

[표 3-38]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군·구별 분포

(단위: 가구)

연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16	97	12	12	11	11	9	10	10	11	5	6
2017	89	23	18	11	4	8	6	16	3	0	0
총계	186	35	30	22	15	17	16	26	14	5	6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연령분포

- '단열지원' 완료가구를 연령으로 구분하면 70-79세가 32.3%인 60가구로 가장 많음([표 3-39]).
 - '단열지원' 완료가구 중 60-69세는 122.6%인 42가구, 80세 이상이 17.2%인 32가구, 50-59세는 9.7%인 18가구, 40-49세는 5.4%인 10가구, 29세 미만 및 30-39세는 각각 0.5%인 1가구임.

[표 3-39]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연령분포(수리연도 당시 연령)

(단위: 가구)

연도	계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파악 불가
2016	97	1	1	5	5	27	37	21	0
2017	89	0	0	5	13	15	23	11	22
총계	186	1	1	10	18	42	60	32	2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가구 형태

- ‘단열지원’ 완료가구 중 독거노인은 47.8%인 89가구이며, 15.6%인 29가구는 장애인 가구, 2.2%인 4가구는 복합가구, 한부모가구는 1.6%인 3가구임([표 3-40]).
- 가구 형태 중 ‘기타’는 노인가구, 청·장년 1인가구 등이며, 2016년에는 노인가구 1가구, 2017년에는 노인가구 1가구, 청·장년 1인가구 2가구가 ‘기타’에 해당됨.

[표 3-40]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가구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구	질병세대	노인부부	복합	기타	파악 불가
2016	97	58	18	3	0	0	0	2	0	1	15
2017	89	31	11	0	0	1	0	0	4	3	39
총계	186	89	29	3	0	1	0	2	4	4	54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소득 유형

- ‘단열지원’ 완료가구를 소득 유형으로 구분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65.6%인 122가구로 가장 많음([표 3-41]).
-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중 차상위가구는 14.5%인 27가구, 저소득가구는 7.5%인 14가구임.

[표 3-41]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소득 유형

(단위: 가구)

연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기타	파악 불가
2016	97	68	21	8	0	0
2017	89	54	6	6	0	23
총계	186	122	27	14	0	23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주거 형태

- '단열지원' 완료가구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9.6%인 55가구, 빌라가 21.0%인 39가구, 다세대주택이 15.6%인 29가구, 아파트가 12.9%인 24가구, 연립주택이 4.3%인 8가구임([표 3-42]).
 - 거주형태 중 4.8%인 9가구인 '기타'는 임대주택, 상가 등에 거주하는 완료가구이며, 2017년은 임대주택 3가구, 상가 1가구, 다가구주택 5가구가 '기타'임.

[표 3-42]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기타	파악 불가
2016	97	29	17	0	33	18	0	0
2017	89	26	12	8	6	6	9	22
총계	186	55	29	8	39	24	9	22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주거 소유 형태

- '단열지원' 완료가구를 소유 형태를 구분하면, 32.3%인 60가구 자가임([표 3-43]).
 - 단열지원' 완료가구 중 전세는 19.9%인 37가구, 월세는 15.1%인 28가구, 무상은 12.4%인 23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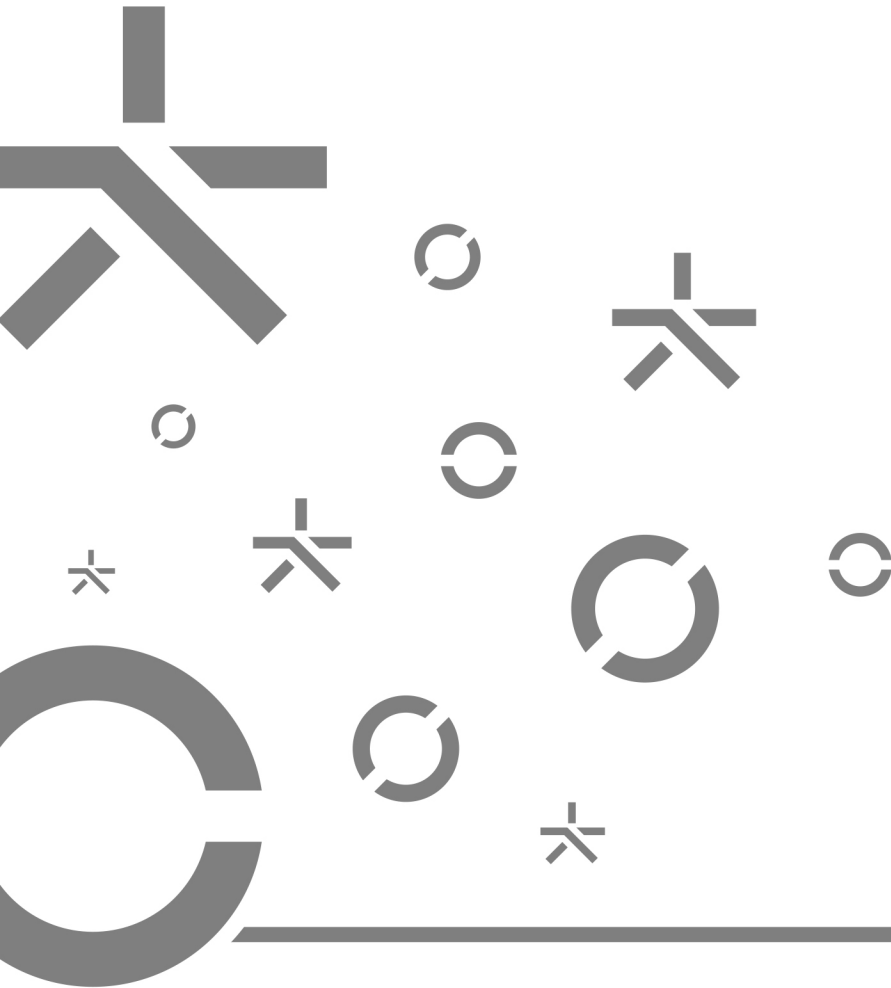
[표 3-43] 단열지원 완료가구의 주거 소유 형태

(단위: 가구)

연도	계	자가	월세	전세	임대			부분 무료	무상	기타	파악 불가
					무상임대	유상임대	임대기타				
2016	97	42	15	23	0	0	3	0	14	0	0
2017	89	18	13	14	3	1	1	0	9	3	27
총계	186	60	28	37	3	1	4	0	23	3	27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민간기업·단체 후원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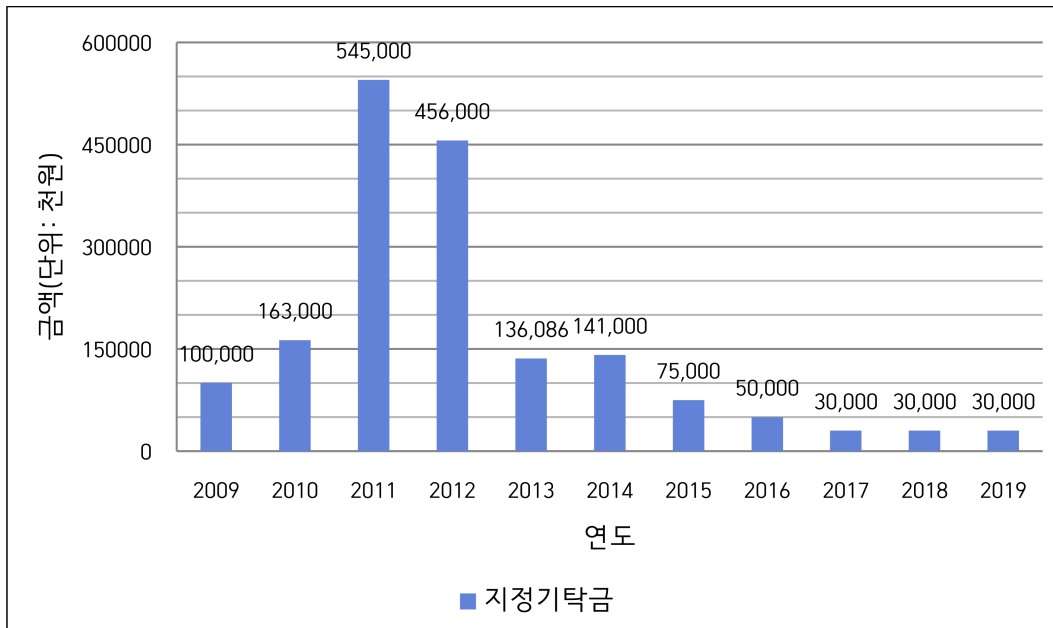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민간기업·단체 후원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분석

1. 민간기업·단체의 후원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형식으로 후원한 민간기업 및 단체는 41개임([표 4-1]).
 - GS건설(주), 대림산업 등과 같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인천불교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주안복지재단, 부평감리교회 등과 같은 다양한 단체들도 후원에 동참함.

[그림 4-1] 연도별 지정기탁금 총액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표 4-1] 연도별 지정기탁금

(단위: 천 원)

연도	기업/단체명	지정기탁금	연도	기업/단체명	지정기탁금
2009	GS건설(주)	100,000	2013	스카이72(주)	30,000
	대림산업	60,000		(주)선광	20,000
	스카이72(주)	50,000		부평감리교회	20,000
	포스코파워(주)	20,000		대한건설협회	9,000
	대왕조경	5,000		신한은행	11,086
	삼천리(주)	4,000		(주)이건산업	10,000
	일주건설(주)	4,000		대상산업(주)	10,000
	원정건설(주)	2,000		농협	10,000
	(주)미래해운	1,000		대한제당(주)	10,000
	(주)랜드마크	2,000		인천도시공사	6,000
2010	(주)신라산업개발	2,000	인천도시공사	6,000	
	(주)유승종합건설	2,000	스카이72(주)	20,000	
	(주)창보중건	2,000	(주)선광	30,000	
	대상산업(주)	2,000	(주)이건창호	10,000	
	(주)정광중건	2,000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7,000	
	천우라이온스클럽	2,000	(주)한양	5,000	
	(주)두손건설	2,000	(주)유승종합건설	2,000	
	(사)인천아파트연합회	1,000	NH농협은행인천시청지점	10,000	
	(주)유승종합건설	2,000	인천성산교회	10,000	
	JA건설(주)	3,000	인천제2교회	6,000	
2011	부평감리교회	20,000	낙원제일교회	3,000	
	OCI(주)	100,000	(사회복지법인)주안복지재단	20,000	
	(주)한진중공업	100,000	한국가스공사(인천지역본부)	6,000	
	두산인프라코어	100,000	한국가스공사(인천지역본부)	6,000	
	대한제당(주)	50,000	(주)선광	30,000	
	동국제강(주)	50,000	스카이72(주)	20,000	
	(주)선광	30,000	한국가스공사(인천지역본부)	20,000	
	(주)이건산업	10,000	(주)한양건설	5,000	
	공무원급여 우수리 모금	60,000	스카이72(주)	20,000	
	(주)신용회복기금(한국자산공사)	20,000	(주)선광	20,000	
2012	스카이72(주)	50,000	(주)힐라선	10,000	
	(주)선광	30,000	(주)선광	20,000	
	OCI(주)	100,000	(주)힐라선	10,000	
	두산인프라코어	100,000	(주)선광	20,000	
	대한제당(주)	50,000	(주)힐라선	10,000	
	(주)이건산업	10,000	(주)선광	20,000	
	인천불교총연합회	10,000	(주)힐라선	10,000	
	(주)한진중공업	100,000			
	인천도시개발공사	6,000			
			총계	1,756,086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2009년부터 실제 기부금이 후원된 2019년까지 민간기업 및 단체의 지정기탁금 총액은 약 17억 5,609만 원임([표 4-1]) 및 [그림 4-1]).
- 지정기탁금 후원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1년으로 12개 기업이 약 5억 4,500만 원을 후원함([그림 4-1]).

- 2017년부터는 (주)선광, (주)휠라선의 지정기탁금 후원만 이루어졌으며, 2020년부터는 이 2개 기업의 후원도 중단된 상황임([표 4-1]).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기탁금을 후원한 41개 기업 및 단체 중 가장 많은 횟수의 후원을 한 기업은 (주)선광으로, 총 9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의 지정기탁금을 후원함([표 4-2]).¹⁹⁾
 - (주)스카이72는 6회, (주)이건산업(창호) 및 (주)휠라선은 4회에 걸쳐 지정기탁금을 후원하였으며, (주)유승종합건설, 대한제당(주),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인천지역본부)는 3회에 걸쳐 후원함.
 - 반면에, 기부금을 후원한 민간기업과 단체의 절반 이상인 25개 민간기업 및 단체는 1회만 기부금을 후원하였음.

[표 4-2] 기업/단체별 지정기탁금

(단위: 천 원)

횟수순	기업/단체명	지정기탁금	횟수	횟수순	기업/단체명	지정기탁금	횟수
1	(주)선광	220,000	9회	22	(주)신라산업개발	2,000	1회
2	(주)스카이72	190,000	6회	23	(주)신용회복기금 (한국자산공사)	20,000	1회
3	(주)이건산업(창호)	40,000	4회	24	(주)정광중건	2,000	1회
4	(주)휠라선	40,000	4회	25	(주)창보중건	2,000	1회
5	(주)유승종합건설	6,000	3회	26	(주)JA건설	3,000	1회
6	(주)대한제당	110,000	3회	27	공무원급여 우수리모금	60,000	1회
7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18,000	3회	28	낙원제일교회	3,000	1회
8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32,000	3회	29	대림산업	60,000	1회
9	(주)OCI	200,000	2회	30	대왕조경	5,000	1회
10	(주)한양(건설)	10,000	2회	31	(주)동국제강	50,000	1회
11	(주)한진중공업	200,000	2회	32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	20,000	1회
12	농협(NH농협은행 인천시청지점)	20,000	2회	33	(주)삼천리	4,000	1회
13	(주)대상산업	12,000	2회	34	신한은행	11,086	1회
14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16,000	2회	35	(주)원정건설	2,000	1회
15	두산인프라코어	200,000	2회	36	인천불교총연합회	10,000	1회
16	부평감리교회	40,000	2회	37	인천성산교회	10,000	1회
17	(주)GS건설	100,000	1회	38	인천제2교회	6,000	1회
18	(사)인천아파트연합회	1,000	1회	39	(주)일주건설	4,000	1회
19	(주)두손건설	2,000	1회	40	천우라이온스클럽	2,000	1회
20	(주)랜드마크	2,000	1회	41	(주)포스코파워	20,000	1회
21	(주)미래해운	1,000	1회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19)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사회적 공헌(CSR), 또는 ESG 경영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1) 재능나눔 봉사자 수 추정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 수와 전문인력 재능나눔 자원봉사자의 실인원이 아닌, 연인원(사업 참여자)을 기준으로, 복수로 산정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재능나눔 봉사자 수를 추정하면 약 3.1만 명이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됨([표 4-3]).

[표 4-3]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에 따른 재능나눔 봉사자 수 추정(중복 산정) (단위: 가구)

연도	전부수리	부분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클린방역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지원 (가전제품)	단열지원	골목길 (벽화) (단위: 지역)
2009		148					2		
2010		425					96		
2011		637					143		
2012		518					128		
2013		427					184		
2014	11	454	509				276		
2015	31	500	540				216		10
2016	15	505	260					97	13
2017	13	508	502					90	12
2018	8	506	505						5
2019	12	407	302						12
2020	15	285	302	797	103				10
2021	12	301	302	1,035	100				
2022	10	303	317	2,204	50	25			
총계	127	5,924	3,539	4,036	253	25	1,045	187	62
필요 봉사자 (단위: 명)	5	3	1	2	1			1	10
세부 사업별 봉사자 추정 (단위: 명)	635	17,772	3,539	8,072	253	0	0	187	620
총 봉사자 추정 (단위: 명)	31,078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4-2] 세부 사업별 완료가구에 따른 재능나눔 봉사자 수 추정

세부 사업	완료가구 (단위: 가구)	필요 봉사자 (단위: 명)	세부 사업별 봉사자 추정 (단위: 명)
전부수리	127	X 5	= 635
부분수리	5,924	X 3	= 17,772
소규모 생활수선	3,539	X 1	= 3,539
클린방역	4,036	X 2	= 8,072
시원한 여름나기	253	X 1	= 253
따뜻한 겨울나기	25	X 	= 0
물품지원 (가전제품)	1,045	X 	= 0
단열지원	187	X 1	= 187
골목길(벽화) (단위: 지역)	62	X 10	= 620



총 봉사자 추정
31,078명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자 수를 추정하면 총 31,078명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음([그림 4-2]).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세부 사업 ‘전부수리’ 완료가구가 127가구이며, ‘전부수리’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1가구당 평균 5명이므로 ‘전부수리’에 참여한 봉사자 수는 635명으로 추정됨.²⁰⁾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세부 사업 '부분수리' 완료가구가 5,924가구이며, '부분수리'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1가구당 평균 3명이므로 '부분수리'에 참여한 봉사자 수는 17,772명으로 추정됨.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세부 사업 '소규모 생활수선' 완료가구가 3,539가구이며, '소규모 생활수선'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1가구당 평균 1명이므로 '소규모 생활수선'에 참여한 봉사자 수는 3,539명으로 추정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부 사업 '클린방역' 완료가구가 4,036가구이며, '클린방역'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1가구당 평균 2명이므로 '클린방역'에 참여한 봉사자 수는 8,072명으로 추정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부 사업 '시원한 여름나기' 완료가구가 253가구이며, '시원한 여름나기'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1가구당 평균 1명이므로 '시원한 여름나기'에 참여한 봉사자 수는 253명으로 추정됨.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부 사업 '단열지원' 완료가구가 187가구이며, '단열지원'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1가구당 평균 1명이므로 '단열지원'에 참여한 봉사자 수는 187명으로 추정됨.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부 사업 '골목길(벽화)' 완료지역이 62개 지역이며, '골목길(벽화)'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1개 지역당 평균 10명이므로 '골목길(벽화)'에 참여한 봉사자 수는 620명으로 추정됨.
- 세부 사업 '따뜻한 겨울나기(온수매트 지원)' 사업의 경우 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온수매트의 배부 주체가 되어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수매트를 배부한 사업임에 따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필요한 봉사자 수는 각 군·구별로 다를 수 있어 재능나눔 봉사자 수 추정 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제외함.
- 세부 사업 '물품지원(가전제품)' 사업의 경우 생활가전 제품이 낡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봉사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재능나눔 봉사자 수 추정 시 '물품지원' 사업 또한 제외함.

20) 그러나 이 규모는 본 연구의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사업에서는 각 사업에 필요한 봉사자 수보다 많은 수가 참여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자는 31,078명보다 많을 수도 있음.

2) 기업 및 단체의 전문인력 재능나눔 봉사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는 89개 기업 및 단체가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함(표 4-4).
 - 이 중 기업은 56개, 봉사단체는 14개, 기타 단체는 11개, 비영리단체는 7개, 종교단체는 1개임.
 - 기업/단체별 재능나눔 봉사 횟수는 기업인 ‘오성인테리어’가 16회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 봉사단체 ‘나눔회’가 15회, 기업인 ‘진주인테리어’가 14회, 비영리단체인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가 12회, 기타인 ‘가좌3동 새마을협의회’가 11회임.

[표 4-4] 기업/단체별 재능나눔 봉사 횟수

횟수순	구분	기업/단체명	횟수	횟수순	구분	기업/단체명	횟수
1	기업	오성인테리어	16회	46	기타	각시탈	1회
2	봉사단체	나눔회	15회	47	기업	그랜드건설	1회
3	기업	진주인테리어	14회	48	기업	꿈꼬미인테리어	1회
4	비영리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12회	49	기업	덕환지붕공사	1회
5	기타	가좌3동새마을협의회	11회	50	비영리	동구자활센터	1회
6	기업	강인그룹(여객)	9회	51	기업	동원인테리어	1회
7	기업	광진코퍼레이션	9회	52	기업	러블리하우스	1회
8	기업	경동나비엔	8회	53	기업	롯데백화점	1회
9	봉사단체	소망키움봉사단	8회	54	기업	무영건축	1회
10	기업	영화인테리어	8회	55	비영리	보호관찰소	1회
11	봉사단체	웨슬리봉사단	8회	56	기업	부평건설	1회
12	기업	도영인테리어	7회	57	기업	삼광하우징	1회
13	기업	부름홈인테리어	7회	58	기업	삼우종합건설	1회
14	기업	인테리어플러스	7회	59	기업	새단장인테리어	1회
15	봉사단체	참사랑나눔봉사단	7회	60	기업	새롬종합장식	1회
16	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6회	61	비영리	서구자원봉사센터	1회
17	기업	우영인테리어	6회	62	기업	송죽리뉴건설	1회
18	봉사단체	나눔봉사단	5회	63	봉사단체	신민애봉사단	1회
19	봉사단체	동구집수리봉사단	5회	64	기업	신인테리어	1회
20	봉사단체	소담봉사단	5회	65	종교단체	여의도순복음교회	1회
21	기업	다함하우징	4회	66	기업	영린건업	1회

횟수순	구분	기업/단체명	횟수	횟수순	구분	기업/단체명	횟수
22	기업	벨전자	4회	67	기업	예다인	1회
23	기업	성심인테리어	4회	68	기업	오케이인테리어	1회
24	봉사단체	아기천사의 합창	4회	69	기업	인천교통공사	1회
25	기업	경인설비	3회	70	기타	인천서부경우회	1회
26	기업	동남장식	3회	71	기타	인천시청 청소과	1회
27	봉사단체	둘로스봉사단	3회	72	기업	종합철물	1회
28	봉사단체	영화집수리봉사단	3회	73	기업	(주)에이플렛폼	1회
29	봉사단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	3회	74	비영리	중구자원봉사센터	1회
30	기업	현대제철 다물단	3회	75	기업	창대종합건축	1회
31	비영리	대한적십자동구지회	2회	76	기업	창일건설	1회
32	기타	새마을지도자 강화군 협의회	2회	77	기업	천지상사	1회
33	기업	예쁜집인테리어	2회	78	기업	푸르미	1회
34	기타	인천 헌병봉사대	2회	79	기업	프로탑인테리어	1회
35	기타	인천중앙인테리어협동조합	2회	80	기업	플러스시스템	1회
36	기업	정원방수	2회	81	기업	하나종합장식	1회
37	기업	포스코건설 및 협력업체	2회	82	기업	히늘연종합인테리어	1회
38	기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2회	83	기타	한국자활중앙물류	1회
39	기업	현대건설(주) 및 협력단체	2회	84	기타	한국주택협동조합	1회
40	기업	현대제철 및 협력업체	2회	85	기타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1회
41	기업	(주)광진건설	1회	86	봉사단체	한아름봉사단(계양센터)	1회
42	기업	(주)근원	1회	87	봉사단체	행복하고아름다운봉사회	1회
43	기업	(주)삼천리도시가스	1회	88	기업	호반건설 인천지점	1회
44	기업	(주)성경건설	1회	89	비영리	희망나눔운동본부	1회
45	기업	JY건설	1회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기업 및 단체가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한 연도 및 참여사업 현황은 [표 4-5]와 같음.
 - 벨전자, 보호관찰소, 서구자원봉사센터, 종합철물,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교수 및 학생 등을 제외하고,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 및 단체는 '전부수리', '부분수리' 사업에 참여하였음.

[표 4-5] 기업/단체별 재능나눔 봉사 참여연도 및 참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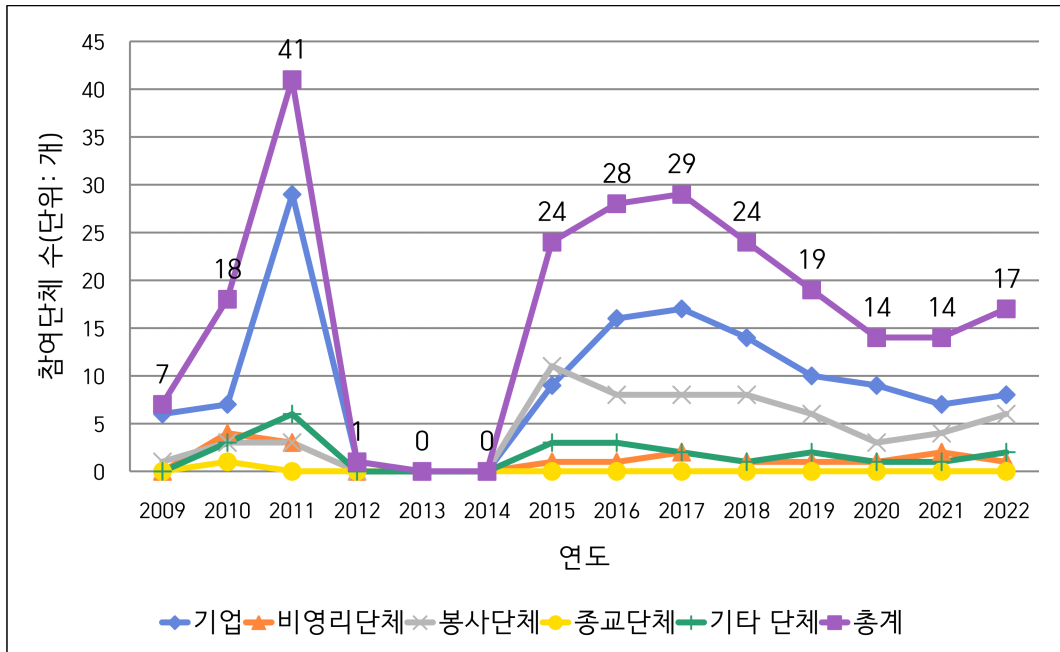
구분	기업/단체명	봉사활동 참여연도												참여사업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기업	(주)광진건설			●													부분수리
기업	(주)근월			●													부분수리
기업	(주)삼천리도시기스	●															부분수리
기업	(주)성경건설			●													부분수리
기업	JY건설			●													부분수리
기타	가정봉사대연합회		●	●				●	●	●	●	●	●	●	●	●	전부·부분수리
기타	각시탈			●													부분수리
기업	강인그룹(여객)							●	●	●	●	●	●	●	●	●	전부·부분수리
기업	경동나비엔							●	●	●	●	●	●	●	●	●	부분수리
기업	경인설비								●	●		●					부분수리
기업	광진코퍼레이션							●	●	●	●	●	●	●	●	●	전부·부분수리
기업	그랜드건설			●													부분수리
기업	꿈꼬미인테리어			●													부분수리
봉사단체	나눔봉사단							●	●	●	●						전부·부분수리
봉사단체	나눔회	●	●	●				●	●	●	●	●	●	●	●	●	전부·부분수리
기업	다함하우징							●	●	●	●						부분수리
비영리	대한적십자동구자회		●	●													부분수리
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	●			●	●	●							부분수리
기업	덕환지공공사							●									전부수리
기업	도영인테리어			●				●	●	●	●						전부·부분수리
비영리	동구자활센터		●														부분수리
봉사단체	동구집수리봉사단							●	●	●	●	●					부분수리
기업	동남장식							●	●	●	●						부분수리
기업	동원인테리어			●													부분수리
봉사단체	둘로스봉사단							●	●	●							부분수리
기업	러블리하우스											●					부분수리
기업	롯데백화점			●													부분수리
기업	무영건축	●															부분수리
기업	벨전자								●	●	●					●	소규모생활수선
비영리	보호관찰소									●							기타(짐운반 등)
기업	부름홈인테리어							●	●	●	●	●					전부·부분수리
기업	부평건설			●													부분수리
기업	삼광하우징			●													부분수리
기업	삼우종합건설			●													부분수리
기업	새단장인테리어			●													부분수리
기업	새롬종합장식			●													부분수리
기타	새마을지도자 강화군 협의회		●	●													부분수리
비영리	서구자원봉사센터															●	소규모생활수선
기업	성심인테리어									●	●	●	●				부분수리
봉사단체	소담봉사단							●	●	●	●						전부·부분수리
봉사단체	소망키움봉사단							●	●	●	●	●	●	●	●		부분수리
기업	송축리뉴건설			●													부분수리
봉사단체	신민애봉사단							●									부분수리
기업	신인테리어			●													부분수리
봉사단체	아기천사의 합창		●	●													부분수리
종교단체	여의도순복음교회		●														부분수리
기업	영린건설							●									부분수리
기업	영화인테리어								●	●	●		●	●			전부·부분수리

구분	기업/단체명	봉사활동 참여연도												참여사업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봉사단체	영화집수리봉사단							●				●		●	부분수리
기업	에다인	●													부분수리
기업	예쁜집인테리어								●						전부·부분수리
기업	오성인테리어		●	●				●	●	●	●	●	●	●	전부·부분수리
기업	오케이인테리어													●	부분수리
기업	우영인테리어	●	●	●				●	●						전부·부분수리
봉사단체	웨슬리봉사단							●	●	●	●	●	●	●	부분수리
기타	인천 헌병봉사대		●	●											부분수리
기업	인천교통공사		●												부분수리
기타	인천서부경우회										●				부분수리
기타	인천시청 청소과			●											부분수리
기타	인천중앙인테리어 협동조합							●	●						부분수리
기업	인테리어플러스										●	●	●	●	전부·부분수리
기업	정원방수		●	●											부분수리
기업	종합철물									●					소규모생활수선
기업	(주)에이플렛폼									●					부분수리
비영리	중구자원봉사센터		●												부분수리
기업	진주인테리어							●	●	●	●	●	●	●	전부·부분수리
봉사단체	참사랑나눔봉사단							●	●	●	●		●	●	부분수리
기업	창대종합건축			●											부분수리
기업	창일건설			●											부분수리
기업	천자상사			●											부분수리
기업	포스코건설 및 협력업체		●	●											부분수리
기업	푸르미			●											부분수리
기업	프로탑인테리어								●						부분수리
기업	플러스시스템										●				전부수리
기업	하나종합장식			●											부분수리
기업	하늘연종합인테리어			●											부분수리
기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	●						부분수리
기타	한국자활중앙물류			●											부분수리
기타	한국주택협동조합									●					부분수리
기타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	시원한 여름나기
비영리	한국희망집짓기 운동본부		●	●				●	●	●	●	●	●	●	전부·부분수리
봉사단체	한아름봉사단 (계양센터)													●	부분수리
봉사단체	행복하고아름다운 동행		●	●				●							부분수리
봉사단체	행복하고아름다운 봉사회							●							부분수리
기업	현대건설(주) 및 협력단체	●													부분수리
기업	현대제철 및 협력업체			●					●						부분수리, 기타(방충망)
기업	현대제철 다물단		●	●					●						부분수리, 소규모생활수선
기업	호반건설 인천지점	●													부분수리
비영리	희망나눔운동본부			●											부분수리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가좌3동새마을협의회, 경동나비엔, 나눔회, 소망키움봉사단, 오성인테리어, 웨슬리봉사단, 진주인테리어, 참사랑나눔봉사단,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49개 기업 및 단체의 재능나눔은 일회성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연도별 결과보고 등을 근거로 기업 및 단체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만을 대상으로 연도별 재능나눔 봉사 참여단체 수를 확인할 수 있음([그림 4-3]).
-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에 기업 및 단체의 재능나눔 봉사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연도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가 있었음에도 결과보고 등을 통해 기업 및 단체명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예를 들면, 2012년의 경우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자원봉사단체’, ‘집수리 참여업체 및 봉사단체’ 등으로 기재하였으며, 2013년, 2014년 또한 ‘집수리 참여업체 및 봉사단체’ 등으로 기재함

[그림 4-3] 연도별 재능나눔 봉사 참여단체 수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3) 개인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봉사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에는 기업 및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참여하였음.
 -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에서 만능수리공으로 활동하거나, ‘골목길(벽화) 사업’에 참여해 벽화그리기 등에 동참하거나, ‘클린방역’ 사업에 참여해 소독 및 방역 봉사를 함.
 - 연인원 기준으로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445명, ‘골목길(벽화)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1,419명, ‘클린방역’ 사업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4,581명으로 총 6,445명의 개인 전문인력이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함([표 4-6]).

[표 4-6]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의 참여사업별 봉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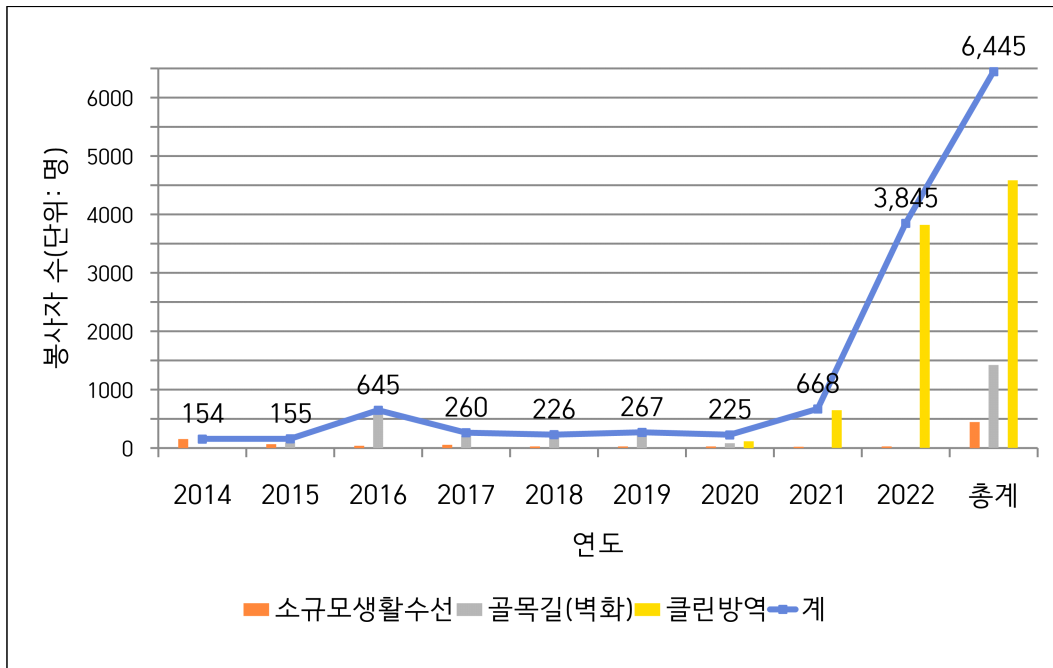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계	참여사업별 봉사자 수		
		소규모 생활수선	골목길(벽화)	클린방역
2014	154	154		
2015	155	65	90	
2016	645	40	605	
2017	260	56	204	
2018	226	29	197	
2019	267	24	243	
2020	225	28	80	117
2021	668	22		646
2022	3,845	27		3,818
총계	6,445	445	1,419	4,58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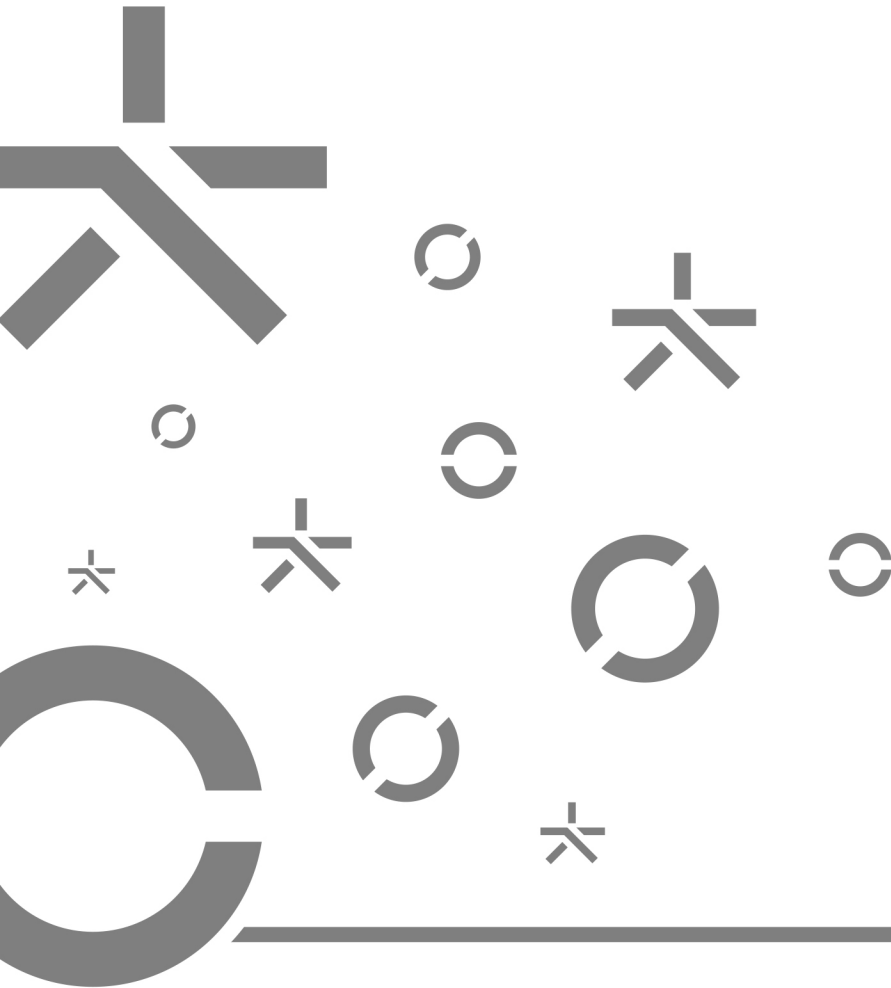
- 전문인력 재능나눔에 참여한 개인의 연도별 규모는 인원 기준으로 ‘골목길(벽화)’ 사업이 활성화되었던 2016년을 제외하고는 어느 일정 규모를 유지하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클린방역’이 대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참여한 개인 재능나눔 참여자가 연인원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함.
- 그 결과, 2017~2020년 약 250명 전후 규모의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는 2021년 668명, 2022년에는 3,845명으로 증가함([그림 4-4]).

[그림 4-4] 개인 재능나눔 봉사자의 참여사업별 봉사자 수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분석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분석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상자,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 만족도, 제시하는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21) 22)}
 - 첫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수리 완료가구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사업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조사 결과를 분석·활용함.
 - 둘째, 본 연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 중 인천에 소재한 지역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기부금 후원의 동기와 만족도, 기부금 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본 연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재능나눔 봉사단체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단체 중 인천 지역 단체 8개를 대상으로 재능나눔 자원봉사의 동기와 만족도, 재능나눔 참여의 지속을 위한 필요 자원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21) 수리 완료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업시행 연도가 경과한 것뿐만 아니라, 수리완료가구 가구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사업 시행 각 연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연결하여 분석함.

22) 41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및 89개 전문인력 재능나눔 단체 중 설문조사 대상자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기부금·재능나눔에 참여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였음. 이에 따라,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 및 전문인력 재능나눔 단체 대상 서면 설문조사는 일반적인 설문조사라기 보다는 답변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서면조사 방식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내용이 대표성이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함.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완료가구의 만족도 분석

1) 조사개요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사업 완료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2012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3월에서 12월 약 10개월 동안 실시함으로써 사업 동안 상시적 조사가 가능하였음.
 - 2011년 ‘만족도 조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리 완료된 총 954가구(2009년 수리 완료가구 150명, 2010년 수리 완료가구 521명, 2011년 1월 1일부터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 2011년 8월 31일까지의 수리 완료가구 283명) 중 50%에 해당하는 480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2015년 만족도 조사의 대상인 재료비 지원가구는 도배, 장판, 샴시교체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로 다른 연도의 부분수리 완료가구와 같음.
- 만족도 조사는 2018년까지는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2019년 이후에는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는 기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공완료 후 수리 완료가구의 만족도 및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렴하고 있음([표 5-1]).

[표 5-1] 연도별 만족도 조사 개요

연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2011	2011. 9. 1 ~ 9. 30	480가구(기완료된 954가구의 50%)	전화설문조사 480가구
2013	2013. 12. 2 ~ 12. 31	240가구(기완료된 400가구의 69%)	전화설문조사 144가구(60%)/ 방문조사96가구(40%)
2014	2015. 1. 2 ~ 1. 30	723가구(기완료된 741가구의 97%)	전화설문조사 578가구(80%)/ 방문조사145가구(20%)
2015	2016. 1. 4 ~ 1. 15	재료비 지원가구 500가구 중 무작위 300가구(기완료된 500가구의 60%)	전화설문조사 300가구
2016	2017. 3월 ~ 12월	520가구(기완료된 520가구의 100%)	방문조사 520가구
2017	2017. 3월 ~ 12월	521가구(기완료된 521가구의 100%)	방문조사 521가구
2018	2018. 3월 ~ 12월	부분수리 완료가구 506가구 (기완료된 506가구의 100%)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 506가구
2019	2019. 3월 ~ 12월	부분수리 완료가구 407가구 (기완료된 407가구의 100%)	시공완료후 준공검사기간 만족도 조사(설문지 작성)
2020	2020. 3월 ~ 12월	부분·전부수리 완료가구 300가구 (기완료된 300가구의 100%)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기간 만족도 조사(설문지 작성)
2021	2021. 3월 ~ 12월	부분·전부수리 완료가구 300가구 (기완료된 313가구의 96%)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기간 만족도 조사(설문지 작성)
2022	2022. 3월 ~ 12월	부분·전부수리 완료가구 313가구 (기완료된 313가구의 100%)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기간 만족도 조사(설문지 작성)

2) 만족도 조사결과

- 2011년부터 실시된 완료가구 대상 '만족도 조사'의 연도별 결과는 [표 5-2]와 같음.²³⁾
 -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만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결과는 2011년 86%, 2013년 95%, 2014년 98%, 2015년 94%, 2016년 97%, 2017년 98%, 2018년 70%, 2019년 93%, 2020년 92%, 2021년 93%, 2022년 93%임([그림 5-1]).
 - 즉, 2011년과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완료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5-2]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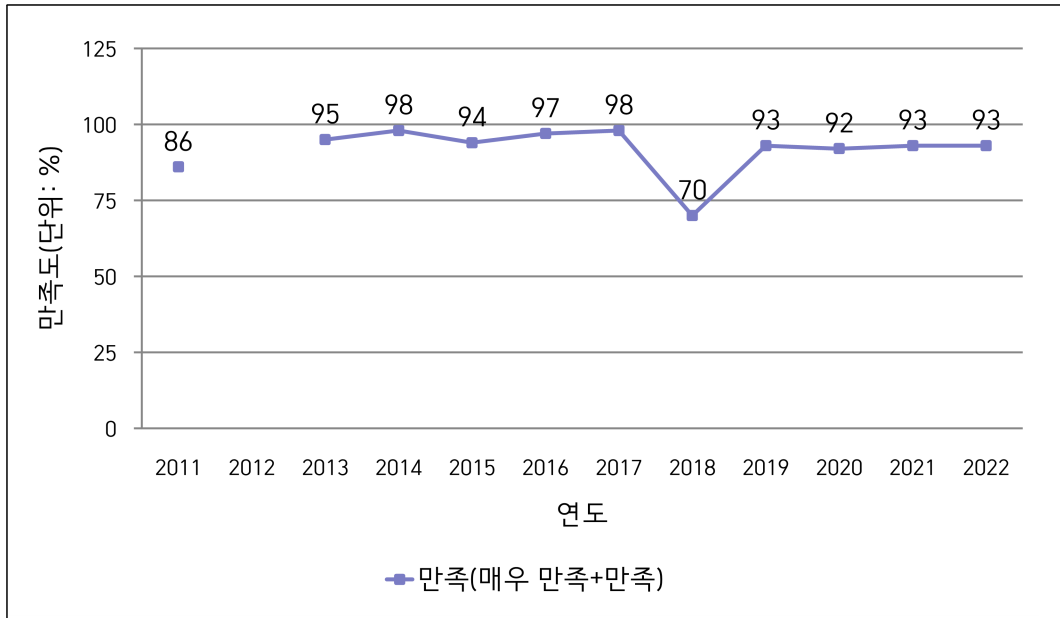
(단위: %)

연도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1	39	47	10	4	0
2013	29	66	5	0	0
2014	0	98	1	1	0
2015	28	66	5	0	0
2016	37	60	3	0	0
2017	28	70	0	2	0
2018	13	57	25	4	1
2019	5	88	4	2	1
2020	16	76	6	1	1
2021	15	78	4	3	0
2022	15	78	4	3	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23) 2015년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2015년 결과 보고'에 근거였으나, 총비율의 합이 100%가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그림 5-1]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중 만족(매우 만족+만족) 비율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만족도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대상자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만족도 조사 시 불만족에 대한 내용 확인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둘째,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의 경우 만족도가 70% 수준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내용 확인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기부금 후원기업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한 기업으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 중, 인천 지역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진행됨.
- 문항은 크게 ①후원 참여 현황, ②후원 동기, ③후원에 대한 만족도, ④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⑤후원 계속 여부, ⑥‘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문항 총 17개로 구성됨([표 5-3]).

[표 5-3] 후원기업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참여 기업 대상 만족도 및 효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수요 파악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5월 10일~5월 17일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체 중, 인천 지역 기업 4개소 • 기업 내 사업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한 설문조사 시행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원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 연도별 후원 여부 및 후원 규모 ② 후원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인지 요인 - 사업 선택 이유 - 후원 시작 동기 ③ 후원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만족도 - 후원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보통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ESG에 대한 후원의 기여도 - 기여도 높은 이유, 낮은 이유, 보통 이유 ⑤ 후원 계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계속 여부 - 후원 계속 이유, 중단 이유 ⑥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2) 조사결과

❖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응답 기업은 4개소는 모두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각 기업의 기부금 후원 현황은 A 기업 9회, B 기업 4회, C 기업 3회, D 기업 2회임.

[표 5-4] 후원기업 응답자 특성

(단위: 회)

기업 구분	후원 횟수
A	9
B	4
C	3
D	2

❖ 후원 참여 현황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4개 기업의 후원 평균 참여율은 약 26.7%임.
 - 기부금 후원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3개 기업)이며, 2009년과 2020년, 2023년(2023년 5월 조사시점 기준)에는 후원에 참여한 기업이 없었음.

[표 5-5] 연도별 후원 참여 현황

(n=4, 단위: 개,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n	%	n	%	n	%	n	%	n	%						
0	0.0	4	100.0	1	25.0	3	75.0	2	50.0	2	50.0	2	50.0	2	50.0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n	%	n	%	n	%	n	%	n	%						
3	75.0	1	25.0	1	25.0	3	75.0	1	25.0	3	75.0	1	25.0	3	75.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n	%	n	%	n	%	n	%	n	%						
1	25.0	3	75.0	0	0.0	4	100.0	1	25.0	3	75.0	1	25.0	3	75.0

○ 같은 기간에 4개 기업의 후원 금액은 평균 약 2,673만 원임.

- 후원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22년(8,000만 원)이며, 그다음은 2021년(7,500만 원), 2014년(4,200만 원) 등의 순임.

[표 5-6] 연도별 후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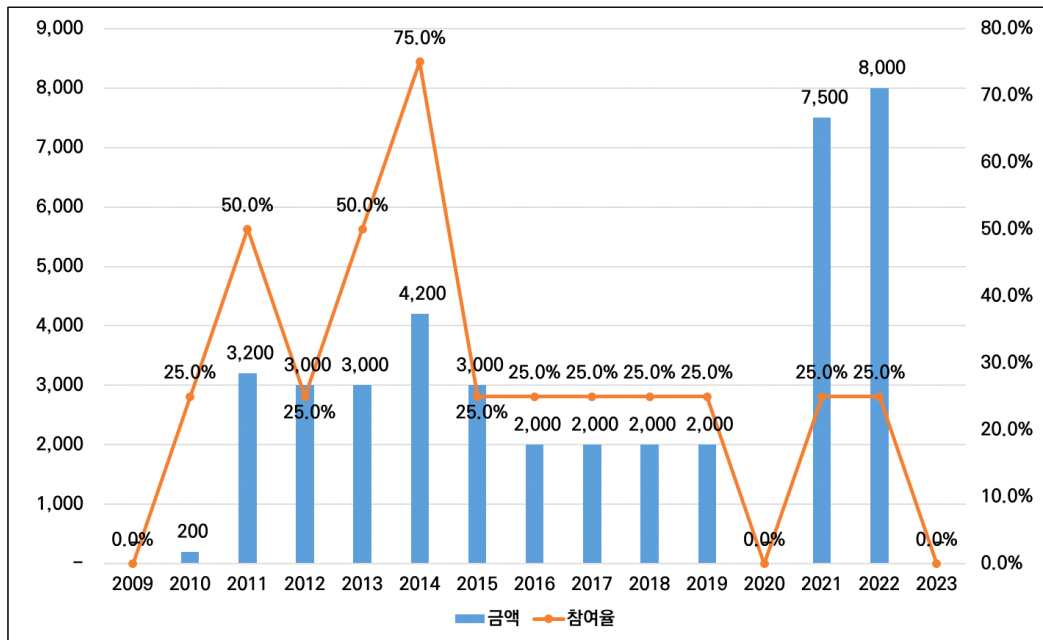
(n=4, 단위: 만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	200	3,200	3,000	3,00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4,200	3,000	2,000	2,000	2,000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2,000	-	7,500	8,000	-

○ 연도별 후원 참여율과 후원 규모의 변동 추이의 경우, 참여율은 대체로 감소한 반면, 후원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음.

[그림 5-2] 연도별 후원 참여 현황 및 후원 규모

(n=4, 단위: 만 원, %)



❖ 후원 동기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알게 된 계기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가 2개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참여 권유’ 및 ‘사업 홍보물(팸플릿 등)을 통해’가 각각 1개 기업임.

[표 5-7] 사업 인지 요인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	2	5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참여 권유	1	25.0
사업 홍보물(팸플릿 등)을 통해	1	25.0
합계	4	100.0

- 기부금 후원사업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하게 된 1순위 이유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각각 2개 기업임.

[표 5-8] 사업 선택 이유 - 1순위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	2	50.0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	50.0
합계	4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하게 된 2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2개 기업임.

[표 5-9] 사업 선택 이유 - 2순위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	50.0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	25.0
무응답	1	25.0
합계	4	100.0

- 기부금 후원사업으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4개 기업)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0] 사업 선택 이유 - 1+2순위

(n=4,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	100.0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	2	50.0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	25.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된 1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개 기업임.

[표 5-11] 후원 시작 이유 - 1순위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50.0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	50.0
합계	4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된 2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개 기업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1개 기업, 나머지는 무응답임.

[표 5-12] 후원 시작 이유 - 2순위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	50.0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1	25.0
무응답	1	25.0
합계	4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4개 기업)이 후원 시작의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남.

[표 5-13] 후원 시작 이유 - 1+2순위

(n=4,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100.0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3	75.0

❖ 후원 만족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후원 만족도는 9점 만점에 7.75점으로 높은 수준임.
 - 만족도가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1개 기업이 있으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기업이 1개 기업, '매우 만족'한다는 기업이 2개 기업임.

[표 5-14] 후원 만족도

(n=4,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비율	만족도 (9점 만점)
불만족 (0)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0	0.0	7.75
	보통 (1)	1	25.0	
만족 (3)	대체로 만족	1	25.0	
	매우 만족	2	50.0	
합계		4	100.0	

- 후원에 만족(약간 만족~만족~매우 만족)한다는 기업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이유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2개 기업),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1개 기업) 순임.

[표 5-15] 후원 만족 이유 - 1순위

(n=3,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66.7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1	33.3
합계	3	100.0

- 후원에 만족하는 2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2개 기업),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1개 기업) 순임.

[표 5-16] 후원 만족 이유 - 2순위

(n=3,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2	66.7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1	33.3
합계	3	100.0

- 후원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표 5-17] 후원 만족 이유 - 1+2순위

(n=3,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3	100.0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3	100.0

- 후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라고 답함.

[표 5-18] 후원 만족 보통 이유

(n=1,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	1	100.0

* 후원 만족도가 보통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1순위 항목만 응답하였음

❖ 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의 후원이 기업의 ESG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도가 9점 만점에 7.50점으로 대체로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여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은 1개 기업에서 있었으며, ‘기여’한다는 기업이 1개 기업, ‘매우 기여’한다는 기업이 2개 기업임.

[표 5-19]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n=4,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비율	기여도
기여하지 않음 (0)	매우 기여하지 않음 ~약간 기여하지 않음	0	0.0	
	보통 (1)	1	25.0	
기여함 (3)	기여함	1	25.0	
	매우 기여함	2	50.0	
합계		4	100.0	

- ESG 활동에 기여(약간기여함/기여함/매우기여함)한다는 기업 3개를 대상으로 기여도가 높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이유를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2개 기업),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1개 기업) 순으로 꼽음.

[표 5-20]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순위

(n=3,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	2	66.7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	1	33.3
합계	3	100.0

- ESG 활동 기여도가 높은 2순위 이유는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2개 기업),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1개 기업) 순임.

[표 5-21]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2순위 (n=3,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	2	66.7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	1	33.3
합계	3	100.0

- ESG 활동 기여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3개 기업)가 가장 주된 요인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2개 기업),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1개 기업) 순임.

[표 5-22]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2순위 (n=3,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	3	100.0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	2	66.7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	1	33.3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의 후원이 기업 ESG 활동에 보통 수준으로 기여한다고 답한 1개 기업의 경우, 그 이유로 ‘환경오염억제·환경규제에 기여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으로 대답함.

[표 5-23]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보통 이유 (n=1,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환경오염억제·환경규제에 기여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	1	100.0

* 후원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가 보통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1순위 항목만 응답하였음

❖ 후원 계속 여부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후원 지속 여부 조사 결과, 후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는 기업이 3개 기업, 후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기업이 1개 기업이었음.

[표 5-24] 후원 계속 여부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계속할 예정(2023년 예정 포함)	3	75.0
중단(이미 중단 포함)	1	25.0
합계	4	100.0

- 후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3개 기업은 후원 계속 1순위 이유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2개 기업),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1개 기업) 순으로 답함.

[표 5-25] 후원 계속 이유 - 1순위

(n=3,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66.7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1	33.3
합계	3	100.0

- 후원을 계속하는 2순위 이유는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2개 기업),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1개 기업) 순임.

[표 5-26] 후원 계속 이유 - 2순위

(n=3,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2	66.7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1	33.3
합계	3	100.0

- 후원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3개 기업),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3개 기업)가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표 5-27] 후원 계속 이유 - 1+2순위

(n=3,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3	100.0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3	100.0

- 후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1개 기업은 그 이유를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방식의 지원에 참여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함.²⁴⁾
 - 특히 후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1개 기업은 후원에 대한 만족도와 기업 ESG 활동에의 기여도를 모두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표 5-28] 후원 중단 이유

(n=1,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방식의 지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1	100.0

* 후원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1순위 항목만 응답하였음

24) 앞선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기업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금 후원을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향후 발전 방향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1순위 응답은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2개 기업, 그다음으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1개 기업),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1개 기업) 순임.

[표 5-29]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순위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50.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1	25.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1	25.0
합계	4	100.0

- 2순위로는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가 각각 1개 기업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 무응답 1건이 있음.

[표 5-30]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2순위

(n=4,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1	25.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1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25.0
무응답	1	25.0
합계	4	100.0

-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각각 2개 기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1]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n=4,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50.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2	50.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1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1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25.0

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 단체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재능나눔 봉사단체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체·단체 중, 인천 지역에 소재한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한 후, 다시 추가로 전화를 통한 개별 인터뷰를 병행함.²⁵⁾
- 문항은 크게 ①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②후원 동기, ③후원에 대한 만족도, ④후원과 기업의 ESG 활동, ⑤후원 계속 여부, ⑥‘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⑦애로사항(어려움), ⑧개선 필요 사항, ⑨사업 필요 자원, ⑩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여를 위한 필요 지원에 관한 문항 총 21개로 구성됨.

[표 5-32] 재능나눔 봉사단체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참여 기업 및 단체 대상 만족도 및 효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수요 파악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5월 10일~5월 17일(약 7일간)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전화를 통한 개별 인터뷰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재능나눔 봉사단체 중, 인천 지역 단체 8개 • 단체 내 사업 관련 담당자를 통한 설문 및 전화 인터뷰 조사 시행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인원 ② 재능나눔 제공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인지 요인 - 사업 선택 이유 - 재능나눔활동 시작 동기 ③ 재능나눔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나눔활동 만족도 - 재능나눔활동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보통 이유 ④ 재능나눔과 기업의 ESG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ESG에 대한 재능나눔활동의 기여도 - 기여도 높은 이유, 낮은 이유, 보통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재능나눔활동 계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나눔활동 계속 여부 - 재능나눔활동 계속 이유, 중단 이유 ⑥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⑦ 애로사항(어려움) ⑧ 개선 필요 사항 ⑨ 사업 필요 자원 ⑩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여를 위한 필요 지원

25) 전문인력 재능나눔 단체 대상 전화 인터뷰는 조사항목 중 ⑦, ⑧, ⑨, ⑩에 대하여 문의함.

2) 조사결과

❖ 응답자 특성

-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8개 단체이며, 가장 참여 횟수가 많은 단체가 16회, 가장 적게 참여한 단체는 8회 참여하였음.

[표 5-33] 재능나눔 봉사단체 응답자 특성

(단위: 회)

단체 구분		재능 나눔 횟수
가	기업	16
나	기업	14
다	단체	11
라	기업	9
마	기업	9
바	기업	8
사	기업	8
아	단체	8

❖ 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8개 단체의 평균 재능나눔활동 참여율은 약 79.2% 임. 가장 참여율이 높았던 해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각각 100.0%)이며, 2009년이 37.5%로 가장 낮음.

[표 5-34]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n=8, 단위: 개,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n	%	n	%	n	%	n	%	n	%										
3	37.5	5	62.5	4	50.0	4	50.0	5	62.5	3	37.5	5	62.5	3	37.5	6	75.0	2	25.0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n	%	n	%	n	%	n	%	n	%										
6	75.0	2	25.0	6	75.0	2	25.0	7	87.5	1	12.5	7	87.5	1	12.5	7	87.5	1	12.5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n	%	n	%	n	%	n	%	n	%										
8	100.0	0	0.0	8	100.0	0	0.0	8	100.0	0	0.0	8	100.0	0	0.0	7	87.5	1	12.5

○ 같은 기간에 재능나눔활동에 참여한 평균 인원수는 약 326명임.

-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총 404명이 참여했으며, 그다음으로 2019년 401명, 2018년 388명, 2016년 384명 등의 순임.

[표 5-35]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 인원

(n=8,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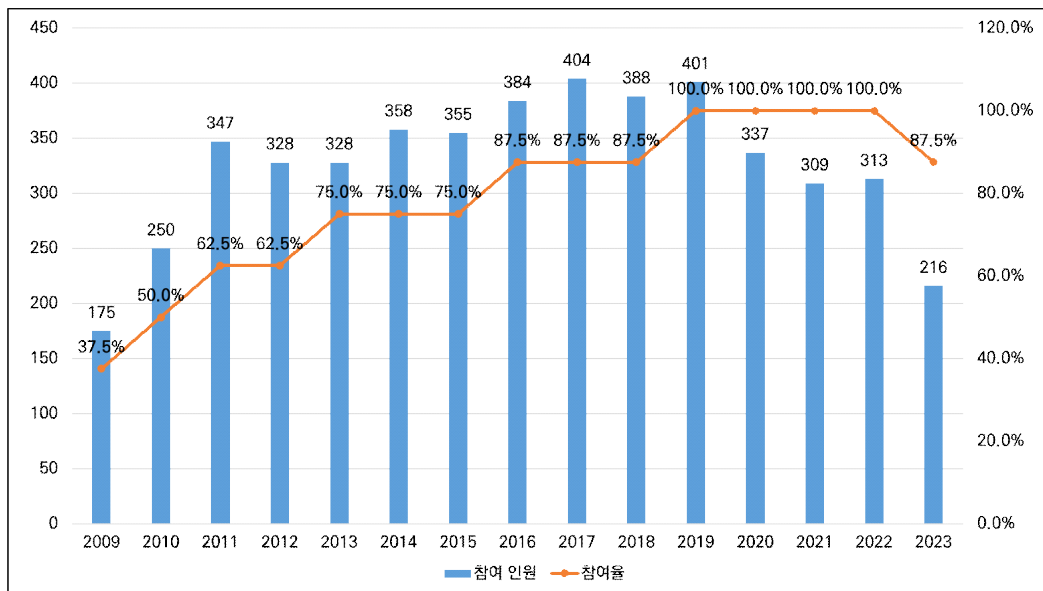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	175	250	347	328	328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358	355	384	404	388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원	401	337	309	313	216

○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율과 참여 인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율은 2022년까지 상승하다 2023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참여 인원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²⁶⁾

[그림 5-3] 연도별 재능나눔활동 참여 현황 및 참여 인원

(n=8, 단위: 명, %)



26) 사업 재원의 감소 및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업실시가 어려워 지면서 발생한 문제임.

❖ 재능나눔 제공 동기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알게 된 요인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와 ‘주변 기업/지인의 소개’가 각각 4개 단체임.

[표 5-36] 사업 인지 요인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참여 권유	4	50.0
주변 기업/지인의 소개	4	50.0
합계	8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하게 된 1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5개 단체이며, 그다음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2개 단체),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1개 단체) 순임.

[표 5-37] 사업 선택 이유 - 1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	62.5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	25.0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1	12.5
합계	8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한 2순위 이유로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가 각각 2개 단체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1개 단체, 그 외에는 무응답 1건이 있음.

[표 5-38] 사업 선택 이유 - 2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	25.0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	2	25.0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2	25.0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12.5
무응답	1	12.5
합계	8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선택한 1순위와 2순위 이유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6개 단체이며, 그다음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4개 단체),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3개 단체),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1개 단체) 순임.

[표 5-39] 사업 선택 이유 - 1+2순위

(n=8,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	75.0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4	50.0
기업의 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3	37.5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여	2	25.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재능나눔활동을 시작하게 된 1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4개 단체이며,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3개 단체), ‘임직원에게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1개 단체) 순임.

[표 5-40] 재능나눔활동 시작 이유 - 1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50.0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3	37.5
임직원에게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1	12.5
합계	8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재능나눔활동을 시작하게 된 2순위 이유로는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동참’이 3개 단체,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2개 단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1개 단체), ‘기업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도움’(1개 단체)임.
- 기타 의견으로는 ‘수강생 배출에 도움이 됨’(1개 단체)이 있음.

[표 5-41] 재능나눔활동 시작 이유 - 2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동참	3	37.5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	25.0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1	12.5
기업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도움	1	12.5
기타	1	12.5
합계	8	100.0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 재능나눔활동을 시작하게 된 1순위와 2순위 이유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6개 단체)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4개 단체),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동참’(3개 단체) 등의 순임.

[표 5-42] 재능나눔활동 시작 이유 - 1+2순위

(n=8,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6	75.0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4	50.0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동참	3	37.5
기업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도움	1	12.5
임직원에게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1	12.5
기타	1	12.5

❖ 재능나눔활동 만족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서의 재능나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개 단체 평균 9점 만점에 7.75점으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단체는 1개 단체가 있었으며, 그 외 7개 단체는 ‘만족(약간 만족 1개 단체, 대체로 만족 3개 단체, 매우 만족 3개 단체)’한다고 응답함.

[표 5-43] 재능나눔활동 만족도

(n=8,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비율	만족도 (9점 만점)
불만족 (0)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0	0.0	7.75
	보통 (1)	1	12.5	
만족 (7)	약간 만족	1	12.5	
	대체로 만족	3	37.5	
	매우 만족	3	37.5	
합계		8	100.0	

- 재능나눔활동에 만족한다는 단체 7개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이유로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3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가 2개 단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가 각각 1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표 5-44] 재능나눔활동 만족 이유 - 1순위

(n=7,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3	42.9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	2	28.6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1	14.3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1	14.3
합계	7	100.0

- 재능나눔활동에 만족하는 2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2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각각 1개 단체 등의 순임.

[표 5-45] 재능나눔활동 만족 이유 - 2순위

(n=7,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28.6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	2	28.6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1	14.3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1	14.3
미응답	1	14.3
합계	7	100.0

- 재능나눔활동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와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4개 단체로 가장 주된 이유로 밝혀짐.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

헌·ESG 등)가 3개 단체,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가 2개 단체 순임.

[표 5-46] 재능나눔활동 만족 이유 - 1+2순위

(n=7,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4	57.1
재능나눔으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	4	57.1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3	42.9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2	28.6

- 재능나눔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1개 단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를, 2순위로는 '재능나눔으로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한가를 확신할 수 없어서'를 꼽음.

[표 5-47] 재능나눔활동 만족 보통 이유 - 1순위

(n=1,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	1	100.0

[표 5-48] 재능나눔활동 만족 보통 이유 - 2순위

(n=1,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재능나눔으로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한가를 확신할 수 없어서	1	100.0

[표 5-49] 재능나눔활동 만족 보통 이유 - 1+2순위

(n=1,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	1	100.0
재능나눔으로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한가를 확신할 수 없어서	1	100.0

❖ 재능나눔과 단체의 ESG 활동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 활동이 단체의 ESG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는 8개 단체 평균 9점 만점에 7.38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조사됨
 - 기여도가 ‘보통’ 수준이라는 단체는 1개 단체였으며, 그 외 7개 단체는 ‘기여한다(기여함 4개 단체, 대체로 기여함 1개 단체, 매우 기여함 2개 단체)’고 응답함.

[표 5-50]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n=8,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비율	기여도
기여하지 않음 (0)	매우 기여하지 않음 ~약간 기여하지 않음	0	0.0	
보통 (1)		1	12.5	7.38
기여함 (7)	기여함	4	50.0	
	대체로 기여함	1	12.5	
	매우 기여함	2	25.0	
합계		8	100.0	

- 재능나눔활동이 기업 및 단체의 ESG 활동에 기여한다고 답한 7개 단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함’(6개 단체)을 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1개 단체)로 나타남.

[표 5-51]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순위

(n=7,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	6	85.7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	1	14.3
합계	7	100.0

- 재능나눔이 기업 및 단체 ESG 활동에 기여하는 2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가 3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가 2개 단체, ‘인권·양성평등·다양성 보장에 기여’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가 각각 1개 단체 순임.

[표 5-52]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2순위

(n=7,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	3	42.9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	2	28.6
인권·양성평등·다양성 보장에 기여	1	14.3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	1	14.3
합계	7	100.0

- 재능나눔이 기업 및 단체 ESG 활동에 기여하는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7개 단체)가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가 4개 단체,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가 2개 단체, '인권·양성평등·다양성 보장에 기여'가 1개 단체 순임.

[표 5-53]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높은 이유 - 1+2순위

(n=7,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기여	7	100.0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기여	4	57.1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억제에 기여	2	28.6
인권·양성평등·다양성 보장에 기여	1	14.3

- 재능나눔이 기업 및 단체 ESG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답한 1개 단체는 그 이유를 '개인 정보·사생활 보호에 기여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이라고 답함.

[표 5-54]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 보통 이유

(n=1,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개인 정보·사생활 보호에 기여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	1	100.0

* 재능나눔의 기업 ESG 활동 기여도가 보통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1순위 항목만 응답하였음

❖ 재능나눔활동 계속 여부

- ‘사랑의 집 가꾸기’ 재능나눔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8개 단체 모두 ‘계속할 예정’(100.0%)이라고 답함.

[표 5-55] 재능나눔활동 계속 여부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계속할 예정(2023년 예정 포함)	8	100.0
중단(이미 중단 포함)	0	0.0
합계	8	100.0

- 재능나눔활동을 계속하는 1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2개 단체임.
 - 그 외에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1개 단체)와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해져서’(1개 단체)가 있음.

[표 5-56] 재능나눔활동 계속 이유 - 1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25.0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2	25.0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2	25.0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1	12.5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해져서	1	12.5
합계	8	100.0

- 재능나눔활동을 계속하는 2순위 이유로는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4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가 2개 단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와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각각 1개 단체 순임.

[표 5-57] 재능나눔활동 계속 이유 - 2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4	50.0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2	25.0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1	12.5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1	12.5
합계	8	100.0

- 재능나눔활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가 6개 단체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가 각각 3개 단체,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해져서'가 1개 단체로 나타남.

[표 5-58] 재능나눔활동 계속 이유 - 1+2순위

(n=8,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6	75.0%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3	37.5%
재능나눔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효과적이어서	3	37.5%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3	37.5%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이 가능해져서	1	12.5%

❖ 향후 발전 방향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 1순위로는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4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가 2개 단체,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와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가 각각 1개 단체 순임.

[표 5-59]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4	50.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1	12.5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12.5
합계	8	100.0

- 향후 발전 방향 2순위 응답은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와 ‘재능나눔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기업 대상 교육·홍보 활성화 및 제도화’,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각각 2개 단체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응답으로는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1개 단체)가 있음.

[표 5-60]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2순위

(n=8, 단위: 개, %)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2	25.0
재능나눔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기업 대상 교육·홍보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2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1	12.5
무응답	1	12.5
합계	8	100.0

-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면,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가 75.0%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5-61]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1+2순위

(n=7, 단위: 개, %, 다중응답)

구분	사례	비율
기업의 재능나눔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기업의 사회적 공헌·ESG 등)	6	75.0
재능나눔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기업 대상 교육·홍보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재능나눔 기업과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만남 활성화 및 제도화	2	25.0
공공기관 사업발주에서 기업의 재능나눔 실적 인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	2	25.0
지역사회발전 지원 차원에서 재능나눔 기업과 인천광역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역할 강화	2	25.0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나눔 기업 임직원의 지역사회사랑 실천기회 제공 제도화	1	12.5

❖ 애로사항(어려움)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애로사항(어려움)으로 ①사업대상자 및 가족·임대인 등의 낮은 사업 이해도로 인한 갈등 문제, ②불필요한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③수혜자 선정의 적합성·적절성 문제, ④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의 주차 문제, ⑤높은 자재비로 인한 비용의 어려움, ⑥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어려움, ⑦사업대상자와 일정 조정 어려움, ⑧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어려움 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62] ‘사랑의 집 가꾸기’ 참여 시 애로사항(어려움)

주요 어려움	응답 내용
사업대상자 및 가족·임대인 등의 낮은 사업 이해도로 인한 갈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수혜자들의 낮은 사업 이해도로 인한 갈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들이 사업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 봉사단체를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업체로 보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당연하게 잡심부름을 요구한다거나 하면 봉사를 하러 갔음에도 기분이 상하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음 • 수혜자 가족의 낮은 이해로 인한 갈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 그 부모가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고 좋은 자재로 집수리를 진행하길 바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 수혜자 및 수혜자 가족의 낮은 이해도로 인한 갈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참여 초창기에는 시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공사를 해준다고 오해하고 봉사활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음. 수혜자나 가족들한테서 민원을 많이 들었음. 인천시 내에서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몰랐을 것으로 생각함 - 지금은 그래도 민원이 거의 없음 • 임대인의 민원 혹은 불만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활동임을 감안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지만, 임대인, 건물주 등과의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음. 대부분 세입자인 수혜자분들은 만족하지만,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었음
불필요한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 작업 이전에 짐을 치우는 작업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를 해야 하는데 이불이나 밥상 등 생활 짐들을 전혀 치우지 않아서 짐을 치우는 일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 수혜자들의 활동제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장애인이거나 고령층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수리 전 짐을 정리해줘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그렇게 되면 수리 전에 짐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거주 중인 집을 수리함에 따라 생활 짐 정리에 대한 애로사항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빈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해야 하다 보니 수리에 앞서 기존 사용하던 생활 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힘들. 그 밖에 애로사항은 딱히 없음

주요 어려움	응답 내용
사업대상자 선정의 적합성·적절성에 관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선정 시 꼼꼼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를 가보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수혜자들도 있음. 주거환경도 양호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의문이 들기도 함 • 수혜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서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봄
사업수행 차량 주차 관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들은 대부분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살다 보니 봉사를 진행하면서 주차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큼. 집 근처에 차를 댈 수 없어서 대로변에 잠시 정차 후 짐을 내려 집까지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많이 물었음 - 봉사하러 나갈 때 '공무수행중'이라거나 '봉사수행중'이라는 스티커라도 붙일 수 있도록 하거나,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높은 자재비로 인한 비용적 어려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서 산정한 재료비보다 높은 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를 실제로 맞출 때 금액 차이가 날 때가 있음.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애로사항이 있음
자원봉사자 모집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에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워진 실정임. 목욕봉사도 봉사였는데 이런 것이 유급활동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음. 또한, 도배사를 섭외해도 일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모집이 쉽지가 않은 상황임
사업대상자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와의 공사 약속 잡는 데의 어려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애로사항은 없으나, 대부분 취약계층이어서 생업이 중요하다 보니 약속을 잡고 방문하려고 해도 불발되는 경우가 많음. 여러 차례 약속을 다시 잡아야 하는 부분이 어려움. 그래도 크게 힘든 것은 아님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어려움에 따른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해주지 못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을 가면 수혜자들이 여러 가지를 부탁하는데, 작은 일은 도와주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일들은 충분히 돕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

❖ 사업수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①식대, 주차요금 등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활동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의 지원, ②무상봉사로 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인정·헌정 관련 지원 확대, ③최근 물가 상승에 맞춘 재료비 현실화, ④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충원을 위한 홍보 지원, ⑤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충원을 위한 홍보 지원, ⑥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정적 절차 개선 등을 제시함.

[표 5-63]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선 필요 사항

주요 사항	응답 내용
식대, 주차요금 등 소정의 활동 경비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봉사를 하루 8시간씩 하게 되는데 밥이라도 먹고 하려면 식대 지원이 필요함. 식비는 편성이 안 되니 재료비를 넉넉히 주는 방식으로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음 • 지자체 행정주체 간 사업홍보·협조 등을 통한 주차 범칙금 대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봉사 시에 주차와 관련한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소정의 사례비 혹은 교통비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의 사례비나 교통비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음 • 식사비와 같은 경비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는 사비를 들여서 같이 참여해주는 봉사단원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됨. 점심 식대 한 끼 정도는 지원이 되면 좋겠음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정·헌정 관련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관해서 자원봉사자 보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워 봉사 중 다치거나 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움 • 봉사자에 대한 포상·시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심히 하는 봉사단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이나 시상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음
최근 물가 상승에 맞춘 재료비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비 인상 등 전반적인 금전적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창기에는 연말, 연초에 정기모임을 하면 봉사자들이 10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지금은 참여율이 많이 떨어짐. 이렇게 된 원인은 아마도 최근 급격히 증가한 자재비 등 비용적 부담 때문일 것으로 생각함 - 업체 중에서도 집 전반에 대한 수리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수리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인건비 지출이 상당함 - 자재비가 인상된다면 인건비로 일부 충당할 수 있겠지만 전부를 충당할 정도로 인상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임

주요 사항	응답 내용
자원봉사자 모집·총원을 위한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원 모집·총원을 위한 홍보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내 봉사단체이다 보니 퇴직 등으로 기존단원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 입사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음. 일정 정도 봉사단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팸플릿 등 직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정적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행정적 절차로 적시 지원에의 한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일적으로 여러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집을 많이 보게 됨.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제안을 해도 수혜자로 선정되기까지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보일러 수리 및 설치를 주로 하는 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지나기전에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때 맞춰 지원하기가 쉽지 않음

❖ 사업수행에 가장 필요한 자원

-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자원은 ①전문인력 자원봉사자의 식비, 주차요금 등 필요 활동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 필요, ②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위한 맞춤형 지원, ③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④재료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적 예산 운용 필요, ⑤수리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확보와 기업 후원의 확대, ⑥사업대상자 확대, ⑦인천광역시 차원의 적극적 홍보 및 지원, ⑧전문인력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함.

[표 5-64]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참여 자원 중 가장 필요한 자원

주요 사항	응답 내용
식비, 주차요금 등 소정의 활동 경비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의 경우, 8시간 이상 걸리는데, 봉사점수 외에 현실적인 보상이나, 인정, 대우가 좋아졌으면 좋겠음 - 주차가 사실 큰 문제인데, 봉사하는 날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음 -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봉사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지원해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음 • 경제적 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기부 활동과 연관된 기업체 내에 있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주민들로 조직된 봉사단체다 보니 자재를 구입할 때도 원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음.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식비 같은 경비도 계속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봉사단체라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서 재료비 외에 일정 부분 실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주요 사항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 주차요금 등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시간이 길다 보니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 주차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지원이나 후원 등이 필요함 • 지자체 차원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다 보니 경제적인 지원은 생각하지 않지만, 주차 관련해서는 지원이 됐으면 함
수혜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위한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에는 수혜자들이 선풍기만 있어도 버틸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 단열이 가장 중요함 - 실족을 나가보면 집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고충이 다 다름. 각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재료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적 예산 운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예산 편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재료비는 현실에 맞게 많이 상향됨. 다만 간혹 현장에서 수혜자가 고급 자재를 썼으면 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하면 추가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기는 어려움. 무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혜자들도 오랜 기간 기다리고 나서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사전에 책정된 재료비 외에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비용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수리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확보, 기업 후원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확보 혹은 후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래도 시간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 지원받는 예산이 더 많아지면 시공도 질 높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기업 후원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재를 후원받는다거나 비용을 더 지원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주었으면 함
수혜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확충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 홍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차원에서의 적극적 홍보, 지원 필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사업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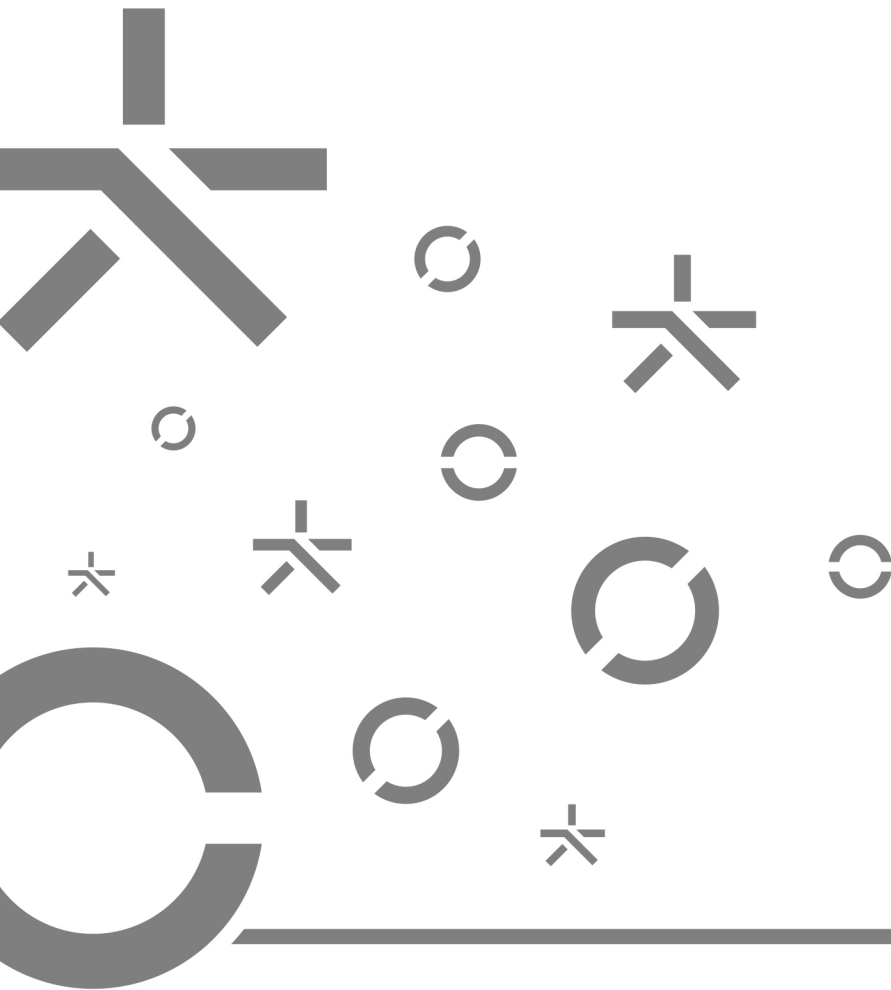
- 재능나눔 봉사단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이 앞으로 지속 성장하여 지역사회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①수리한 집에 대한 집주인의 경제적 이익 확대 등과 같은 악용사례에 대한 점검 및 세입자 보호, ②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발굴을 통한 사업대상자 확대, ③사업대상자 및 기부금 후원기업 대상 적극적 사업홍보, ④재능나눔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⑤인천광역시 차원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계 지원, ⑥수리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확보 후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표 5-65]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필요 지원

주요 사항	응답 내용
수리한 집에 대한 집주인의 경제적 이익 확대 등과 같은 악용사례에 대한 점검 및 세입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용사례에 대한 점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을 고쳐주고 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도 자주 봄. 주인이 이 사업을 악용해서 세입자에게 해줘야 할 기본적인 수리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악용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취약계층은 대부분 세입자인 경우가 많은데, 집을 수리해주고 나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월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안 좋은 결과로 돌아갈 수 있음 • 악용사례에 대한 점검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주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대부분 수혜자들이 집주인이 아니라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를 마치고 나면 임차인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음. 공사 시작 전에 수혜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사업을 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사를 마치고 나서 보름이나 한 달 후 쫓아내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음
적극적인 사업대상자 발굴을 통한 사업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대상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함. 봉사를 나가보면 힘든 여건이지만 사랑의 집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보였음. 그간 직접 발견한 대상자들을 자원봉사센터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한 경우도 있음. 다만 봉사자들이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동 차원에서 발굴하면 좋을 것 같음 • 사업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발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함.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찾아내는 사각지대를 센터에 역으로 알려주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및 기부금 후원기업 대상 적극적 사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및 후원기업 대상 적극적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는 사람들만 사업에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후원 단체나 사업 대상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산을 확보한다면 사업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주요 사항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법, 자원봉사 참여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를 많이 받는데 정확히 몰라서 답변이 어려웠던 적이 있음. 향후 사업과 참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p style="text-align: center;">재능나눔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해야 함. 수혜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음 - 수혜자들은 받는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에 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재능기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차원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계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배, 장판 등 여러 부분에서 함께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간혹 인건비를 주고 외부업체 인력을 섭외하기도 함.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단체 내 나이 많은 봉사자들이 많은데,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청년 단체와 연계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함. 서로 교류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p style="text-align: center;">수리비용 총당을 위한 예산확보/후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비용 총당을 위한 예산확보 혹은 후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적인 부담과 자재 단가 문제로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안 좋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자재비 단가를 고려해서 재료가 현실화된다면 시공도 질 높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결론: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결론: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변화와 적응전략

- 2009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작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장하였음.
 - 성격: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 목적: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 자원: 민간기업과 단체의 기부금,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
 - 사업수행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 ①재원확보: 인천광역시를 통한 지자체/중앙정부의 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기업·단체의 지정기탁금, 복권기금위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복권기금 분배금 등 재원확보
 - ②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실비) 지급
 - ③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결과 보고
 - 재능나눔 봉사단체
 - ①재능나눔 자원봉사를 하는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화
 - ②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사업비(실비)를 받아 사업수행
 -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 및 단체
 - ①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으로 기부금 지정기탁

- 인천광역시
 - ①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다양한 자원발굴 지원
 - ②민간위탁사업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 및 전문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으로 수행되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지역사회와의 연계·지원 및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이라는 자원봉사참여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는 다양한 민간기업·단체가 기부금을 후원하고, 재능나눔 단체가 수많은 전문인력을 조직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산출함.
 -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인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업보조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외에도 41개 민간기업·단체가 총 20억 6,100만 원을 기부금으로 후원하는 등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69억 8,050만 원의 수입으로 64억 5,184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음.
 - 전문인력의 재능나눔으로 수행되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89개 재능나눔 단체가 연인원 31,078명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동원하였음.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세부 사업별 성과의 경우 전부수리 127가구, 부분수리 5,771가구, 소규모 생활수선 3,519가구, 시원한 여름나기 253가구, 따뜻한 겨울나기 25가구, 물품지원 1,035가구, 단열지원 186가구 등임.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사업수행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하고 있음.
 - 무엇보다 먼저, 사업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기부금 후원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0년부터는 전혀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이 매년 3.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후원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중 적립금에서 매년 1,300만 원이 지출되면서 총 예산이 3억 9,300만 원으로 축소됨([표 3-6], [그림 4-1]).²⁷⁾
- 이에 따라, 사업예산은 축소되었고, 또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실시된다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특성도 옅어지게 됨.

[표 6-1]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환경 변화

환경 변화	내용
재원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 → 인천광역시 보조금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의 새로운 행위자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 분야)/인천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 분야) → 인천광역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주택 분야)
전문인력 재능나눔 자원봉사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과정에서 실비 미지원 문제 및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필요성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클린 방역’ 사업 수행 →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필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필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전체수리/부분수리’ 중심에서 주기적 ‘소규모 생활수선’ 확대 →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필요

- 또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이 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역할이 주변화되고 있음.²⁸⁾

27)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이 감소한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첫째, 민간기업·단체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ESG 경영이 확산되며 이를 위한 기부금 후원이나, 자원제공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부금 후원/자원제공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이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자원제공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과도 연결될 수 있음. 둘째, 고경환 외(2022)는 지난 2020년 초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부금의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의 90% 이상이 기업(법인)의 기부금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하지만,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자원제공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해석이 보다 타당할 수 있으며, 향후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찾는 과정에서 시사점을 찾는 데도 유용할 수 있을 것임.

28) 2023년 7월 현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①2000년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②2009년 이후에는 행정안전 분야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③2021년부터는 주택 분야에서 ‘인천광역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것,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일지라도, 재원과 인천광역시의 행정

-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공사(iH)에 운영을 위탁한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2021년 2월 개소함.
-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수행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과 인천도시공사(iH)의 지원으로 자체 세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수행하고 있음(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2023.6.8. 검색).
 - ①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주)대성산업개발 아카포럼, 전국인테리어목수사회적협동조합이 기초지자체별 1가구,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행 중임.²⁹⁾
 - ②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입주자 맞춤형 고령친화 주택개조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4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진단하고 신체적생활행위물리적 특성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³⁰⁾
 - ③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 보조금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iH)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여관,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거주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임.
- 셋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실비 미지원 문제([표 5-62])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특성도 옹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넷째,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클린방역’을 실시함. 이에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게 됨에 따라 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적관리가 필요한 세부 사업 ‘소규모 생활수

지원부서, 사업수행자와 전달체계, 성과평가, 대외협력 등은 다를 수밖에 없음.

29)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중 세부 사업 ‘전부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30)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중 세부 사업 ‘부분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세부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통상적으로 재능나눔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동원하고,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받아 수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라는 전달체계로 운영되었음.
 - 하지만,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세부 사업이 실시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라는 자원봉사전달체계의 구축도 필요함.
- 다섯째, 인천도시공사(iH)가 운영하는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보다 풍부한 자원을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핵심 세부 사업을 일회성인 '전체수리/부분수리' 사업 중심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규모 생활수선'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 본 연구가 분석한 세부 사업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확인(파악) 불가'가 많은 것은 '전체수리/부분수리' 중심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이 대상자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洞)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사업 완료 후 대상자 가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지 않는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반면에, 2014년부터 시작한 '소규모 생활수선'은 소규모 생활수선·수리 능력이 없는 가구를 방문하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등을 수선해주는 세부 사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주기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

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 2009년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작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민간기업과 단체의 기부금 후원 및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구성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세 과정의 분석과 논의를 수행하였음.
 - 첫째, 2009년~2022년까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서 성과, 민간기업·단체가 후원한 기부금 및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현황을 분석함.
 - 둘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인천에 소재한 민간기업 및 재능나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현황, 기부금 후원·재능나눔 동기와 만족도, 기부금 후원·재능나눔과 ESG 활동, 기부금 후원·재능나눔 계속 여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논의함.
- 다양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 모색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주택 관련 부서 및 인천도시공사(iH)와 협력하는 인천광역시광역시광역주거복지 센터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중 전부수리·부분수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및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많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핵심 사업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중심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³¹⁾

[표 6-2]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발전 방향

발전 방향	내용
[발전 방향 1]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역할 정립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 중심으로 전환
[발전 방향 2]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전달체계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대상자’로 확립
[발전 방향 3]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주기적 ‘소규모 생활개선’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 구축
[발전 방향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화	•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발전 방향 5]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화 및 지원 확대	•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

- 둘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 모색에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로 전달체계의 확립임.
-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부 사업 ‘클린방역’의 실시 경험 및 향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의 확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대상자’로 설정되어 있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전달체계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 단체-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31) 이 경우 기초지자체 지역자활센터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취약계층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기초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 모색에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례관리의 확립임.
 -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중심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인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수행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기존의 사업수행방식에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또한 대상자가 거주하는 기초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이 체계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넷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 모색에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체계화임.
 - 민간기업·단체가 후원하는 기부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전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적 인정 등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부금 후원이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기업의 ESG 경영과 연결된다고 한 응답을 고려한다면(표 5-20), 기부금을 후원하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임(표 5-29).³²⁾
- 다섯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 모색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체계화와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재능나눔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능나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다고 한 응답을

32) 2023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소재 5개 민간기업은 인천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4,5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음(김정호, 2023.6.8.). 이와 같은 방식의 기부금 후원은 해당 민간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행사이며, 해당 민간기업의 ESG 활동 보고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식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음

고려한다면([표 5-51]),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인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임([표 5-63], [표 5-64]).

- 특히,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재능나눔활동 참여단체 대상 설문 결과에 의하면,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모집과 운영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표 5-62], [표 5-63], [표 5-64]).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과 전문인력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집행부가 만들고자 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된 사업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도약이 시작될 필요가 있음.

주제어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ESG, 재능나눔, 사회적 인정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

- 고경환·이연희·장영식·진재현·조용찬. (2022). 나눔실태 2021. 보건복지부.
- 도현명. (2021). ESG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사회적 가치 연계방안. 정책기획위원회.
- 이금룡·김진욱·전용호·이민홍. (2018). 노인 사회활동(재능나눔, 자원봉사 등)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최상명·주성수·최민희. (2012).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 최상미·신경화·이혜림. (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최준규·이지은·오단아·김화연·조현혜. (2022).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 황인창·김고운·백종락·이유혜. (202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 UNEP. (1991).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 학술지/학위논문

- 이명신. (2018).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자원봉사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분석틀 수립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7, 129-157.

■ 법률과 특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법안 제2103712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 행정자료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2009~2022).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결과. [내부자료].

■ ■ 보도자료/신문기사

김정호(2023.6.8.). 인천 5개 기업, 취약계층 접수리 자원봉사에 후원금 전달. 경인매일. URL: 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66(검색일: 2023년 6월 8일)

■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 URL: <http://icvt.or.kr>(검색일: 2023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 사업안내. URL: <https://www.ihwc.or.kr>(검색일: 2023년 6월 8일)

2023년도 기획연구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가능성 방향 연구

발행인 박호균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청송출판인쇄사

I S B N 979-11-6870-166-3 93330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인천연구원 202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